

2022년
진주시 아동존중캠페인

진주지역 아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기초 인식조사 보고서

< 아동학대 인식 및 아동-부모 관계 인식 중심으로 >

2022년
진주시 아동존중캠페인

진주지역 아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기초 인식조사 보고서

< 아동학대 인식 및 아동-부모 관계 인식 중심으로 >



진주시역 아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기초 인식조사 보고서
 - 아동학대 인식 및 아동-부모 관계 인식 중심으로-

조사기간	2022년 9월 ~ 2022년 11월				
조사대상	진주시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 및 학부모				
조사표본	•아동: 7,963명				
	구분	조사대상	조사참여	참여율(%)	분석사례수
	학교	46개교	41개교	89.1%	-
	학생	10,311명	8,662명	84.0%	7,963명
	•보호자: 622명				
	구분	조사대상	조사참여	참여율(%)	분석사례수
	보호자	10,311명	622명	6.0%	622명
조사기관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 경남아동권리센터				
협력기관	진주시,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진주시 관내 초등학교				
조사책임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 경남아동권리센터				
연구원	강명진(경남연구원 포용협력사회연구실 전문연구원)				

본 보고서는 연구원의 재능기부로 작성되었습니다

Contents

제1장 서 론	3
1. 추진배경	3
2. 목적	6
제2장 조사방법	9
1. 조사범위	9
2. 추진체계	10
3. 추진경과	11
4. 조사도구: 설문지	12
5.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15
6. 자료분석 방법	17
제3장 조사결과	23
1. 응답자 일반적 특성	23
2. 아동 연령기준에 대한 인식	26
3. 아동학대 인식	30
4.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화’에 관한 사항	58
5. 부모님의 ‘부부싸움’에 관한 사항	67
6. 부모님이 자녀에게 평소 하시는 말	78
7. 부모양육태도	82
8. 아동 존중 문화	87
제4장 결 론	95
1. 요약	95
2. 시사점	101
3. 제언	103

표 목 차

〈표 2-1〉 일반적 특성 조사 항목	12
〈표 2-2〉 아동학대 인식 조사 항목	13
〈표 2-3〉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인식 조사 항목	14
〈표 2-4〉 아동존중 이미지 및 아동존중사회를 위한 사회적 대책 조사 항목	15
〈표 3-1〉 응답자 일반적 특성(아동/보호자)	25
〈표 3-2〉 아동 연령기준에 대한 인식(아동/보호자)_기준 연령별	27
〈표 3-3〉 아동 연령기준에 대한 인식(아동)_기준 연령대별	28
〈표 3-4〉 아동 연령기준에 대한 인식(보호자)_기준 연령대별	29
〈표 3-5〉 아동학대 문항별 인식(아동)	34
〈표 3-6〉 아동학대 문항별 인식(보호자)	35
〈표 3-7〉 아동학대 유형별 인식(아동)	42
〈표 3-8〉 아동학대 유형별 인식(보호자)	43
〈표 3-9〉 아동학대 개념 인식 키워드(아동)	45
〈표 3-10〉 아동학대 개념 인식 키워드(보호자)	46
〈표 3-11〉 주변에 학대피해아동 여부(아동)	48
〈표 3-12〉 주변에 학대피해아동 여부(보호자)	49
〈표 3-13〉 진주시역 내 아동학대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아동)	51
〈표 3-14〉 진주시역 내 아동학대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보호자)	52
〈표 3-15〉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인식(아동)	54
〈표 3-16〉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인식(보호자)	55
〈표 3-17〉 아동학대 예방대책 제안사항(보호자)	57
〈표 3-18〉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를 내게 되는 상황 주요 키워드(아동)	59
〈표 3-19〉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를 내게 되는 상황 주요 키워드(보호자)	60
〈표 3-20〉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났을 때 행동 인식(아동)	62
〈표 3-21〉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났을 때 행동 인식(보호자)	63
〈표 3-22〉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를 냈을 때 기분 상태 키워드(아동)	65
〈표 3-23〉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를 냈을 때 기분 상태 키워드(보호자)	66
〈표 3-24〉 자녀 앞에서의 부부싸움 여부(아동)	68
〈표 3-25〉 자녀 앞에서의 부부싸움 여부(보호자)	69

〈표 3-26〉 부부싸움 이후 자녀에게 화풀이 하듯 한 적이 있는지 여부(아동)	71
〈표 3-27〉 부부싸움 이후 자녀에게 화풀이 하듯 한 적이 있는지 여부(보호자)	72
〈표 3-28〉 부부싸움 이후 자녀에게 화풀이 하듯 한 행동(아동)	74
〈표 3-29〉 부부싸움 이후 자녀에게 화풀이 하듯 한 행동(보호자)	75
〈표 3-30〉 부부싸움 이후 자녀에게 화풀이 하였을 때 기분 키워드(아동/보호자)	77
〈표 3-31〉 부모님이 자녀에게 평소 하시는 말(기분 좋은 말)	79
〈표 3-32〉 부모님이 자녀에게 평소 하시는 말(기분 좋지 않은 말)	81
〈표 3-33〉 부모님의 양육태도 문항별 인식(아동)	84
〈표 3-34〉 부모님의 양육태도 문항별 인식(보호자)	84
〈표 3-35〉 부모님의 양육태도 유형별 인식(아동)	85
〈표 3-36〉 부모님의 양육태도 유형별 인식(보호자)	86
〈표 3-37〉 어른들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키워드(아동)	88
〈표 3-38〉 아동존중에 대한 이미지 키워드(아동/보호자)	90
〈표 3-39〉 아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제안사항 주요내용(보호자)	92

그림목차

〈그림 1-1〉 아동학대 판정사례 현황(전국/경남/진주시)	3
〈그림 1-2〉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및 아동학대 발생장소(진주시)	4
〈그림 1-3〉 아동본인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현황(전국)	5
〈그림 1-4〉 조사목적	6
〈그림 2-1〉 조사범위	9
〈그림 2-2〉 추진체계 주체별 주요역할	10
〈그림 2-3〉 추진경과	11
〈그림 2-4〉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16
〈그림 2-5〉 자료분석 절차	17
〈그림 2-6〉 자료분석 방법	18
〈그림 3-1〉 응답자 일반적 특성(아동)	23
〈그림 3-2〉 응답자 일반적 특성(보호자)	24
〈그림 3-3〉 아동 연령기준에 대한 인식(아동/보호자)	26
〈그림 3-4〉 아동학대(신체학대) 문항별 인식(아동/보호자)	30
〈그림 3-5〉 아동학대(정서학대) 문항별 인식(아동/보호자)	31
〈그림 3-6〉 아동학대(성학대) 문항별 인식(아동/보호자)	32
〈그림 3-7〉 아동학대(방임) 문항별 인식(아동/보호자)	33
〈그림 3-8〉 아동학대 유형별 인식(아동/보호자)	36
〈그림 3-9〉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인식(아동)	44
〈그림 3-10〉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인식(보호자)	44
〈그림 3-11〉 주변에 학대피해아동 여부(아동/보호자)	47
〈그림 3-12〉 진주지역 내 아동학대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아동/보호자)	50
〈그림 3-13〉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인식(아동/보호자)	53
〈그림 3-14〉 아동학대 예방대책 제안사항(보호자)	56
〈그림 3-15〉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를 내게 되는 주요 상황(아동)	58
〈그림 3-16〉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를 내게 되는 주요 상황(보호자)	58
〈그림 3-17〉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났을 때 행동 인식(아동/보호자)	61
〈그림 3-18〉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를 냈을 때 기분 상태(아동)	64
〈그림 3-19〉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를 냈을 때 기분 상태(보호자)	64

〈그림 3-20〉 자녀 앞에서의 부부싸움 여부(아동/보호자)	67
〈그림 3-21〉 부부싸움 이후 자녀에게 화풀이 하듯 한 적이 있는지 여부(아동/보호자) ·	70
〈그림 3-22〉 부부싸움 이후 자녀에게 화풀이 하듯 한 행동(아동/보호자)	73
〈그림 3-23〉 부부싸움 이후 자녀에게 화풀이 하였을 때 기분 상태(아동)	76
〈그림 3-24〉 부부싸움 이후 자녀에게 화풀이 하였을 때 기분 상태(보호자)	76
〈그림 3-25〉 부모님이 자녀에게 평소 하시는 말(기분 좋은 말)	78
〈그림 3-26〉 부모님이 자녀에게 평소 하시는 말(기분 좋지 않은 말)	80
〈그림 3-27〉 부모님의 양육태도 인식(아동/보호자)	83
〈그림 3-28〉 어른들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아동)	87
〈그림 3-29〉 아동존중에 대한 이미지(아동/보호자)	89
〈그림 3-30〉 아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제안사항(보호자)	91
〈그림 4-1〉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성	104
〈그림 4-2〉 아동학대예방사업 추진 방향성	108

Chapter I |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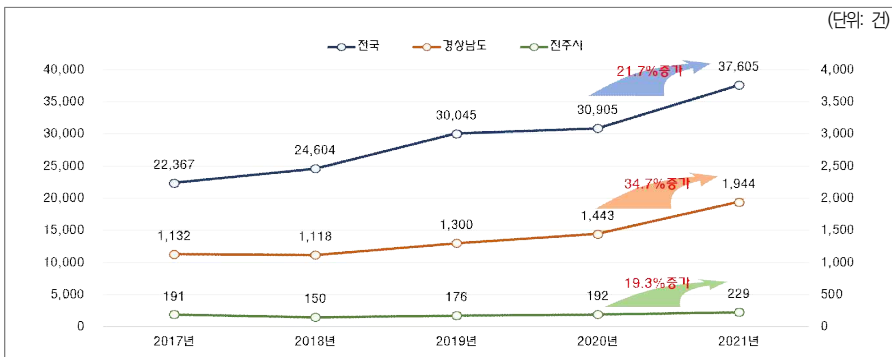
1. 추진배경
2. 목적

제1장 서론

1. 추진배경

■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지속 발생

- 매년 아동학대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전국 기준 아동학대사례는 37,605건으로 2020년 30,905건 대비 21.7%로 크게 증가하였음
 - 경상남도도 2021년 기준 1,944건으로 2020년 1,443건 대비 34.7% 증가하였음
 - 진주시는 2021년 기준 229건으로 2020년 192건 대비 19.3%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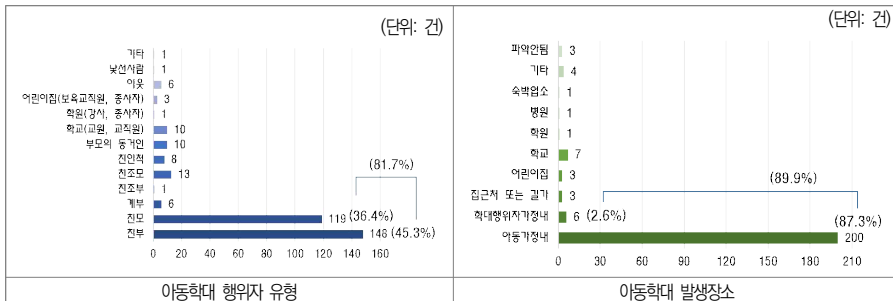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별), 「아동학대 주요통계」;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아동학대현황자료) 참고하여 재구성 하였음

〈그림 1-1〉 아동학대 판정사례 현황(전국/경남/진주시)

- 아동학대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에 의한 학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발생 장소 역시 가정 내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함
 - 진주시의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327명의 학대행위자 중 친부가 148명(45.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친모가 119명(36.4%)을 차지하였음. 친부와 친모의 비율을 합했을 때, 학대행위자의 약 81%가 친부모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21년 기준 229건의 아동학대사례 발생장소가 '아동가정 내'인 경우가 200건(87.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학대행위자의 가정 내'인 경우 6건(2.6%)을 포함하면, 아동학대사례의 약 90%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음

진주시역 아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기초 인식조사 보고서
- 아동학대 인식 및 아동-부모 관계 인식 중심으로



*자료: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아동학대현황자료) 참고하여 재구성 하였음/2021년 기준

〈그림 1-2〉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및 아동학대 발생장소(진주시)

- 이상과 같이 매년 아동학대 사례 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정 내에서 보호자의 학대 비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효과적인 아동학대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특히,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비중이 높게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보호자들의 아동학대 인식수준에 대한 진단과 대책마련은 매우 필요함
- 이때, ‘아동학대’라는 단편적인 사안 외에도 아동학대를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문화적 진단과 대책마련도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부모자녀관계 및 아동존중에 관한 인식조사도 함께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훈육과 체벌에 대한 이해와 인식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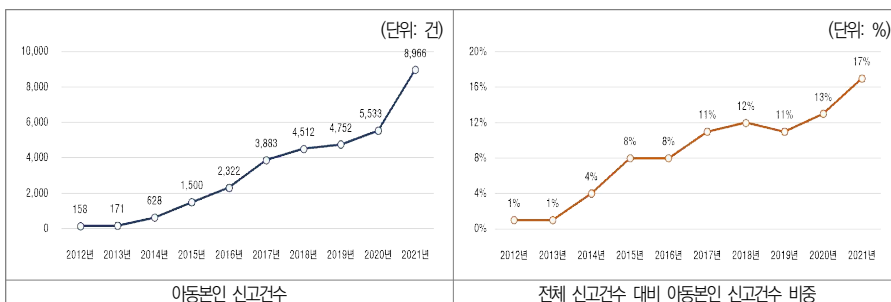
-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여겨진 민법 제915조 아동징계권 조항(친권자는 그자(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이 2021년 1월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징계권 폐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60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가정 내 체벌금지 인식 및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8%는 징계권이 삭제된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한겨레, 2022.06.27. 보도자료)¹⁾
- 또한 같은 조사에서 신체적 체벌의 경우 응답자의 약 65%가 ‘상황에 따라 체벌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음

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8589.html

- 성인들의 체벌에 관한 인식은 여전히 자녀에 대한 훈육방법으로 체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증가 원인이 되기도 함
- 법률상 체벌 근거 조항이 폐지되었고, 시대적으로도 아동권리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체벌이 아닌 아동존중기반 긍정적 양육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현재 진주시 관내 아동과 보호자들의 관계 특성은 어떠한지, 아동존중도시 조성을 위한 사회적 대책과 필요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는지 당사자(아동, 보호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과 보호자의 인식 격차

- 아동학대 발생의 지속 증가와 더불어 아동본인에 의한 신고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전국 현황을 기준으로 보면, 2012년 158건(전체 신고의 1%)이었던 아동본인에 의한 신고가 2021년에는 8,966건으로 전체 신고의 17%를 차지하였음
 - 인권교육세대인 아동들의 권리인식이 향상되면서, 아동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적극적 행동 발현의 결과로 볼 수 있음
- 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수준의 성숙된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상호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 아동존중에 관한 전반적 인식격차는 어떠한지, 이를 바탕으로 상호존중하는 문화 확립을 위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별), 「아동학대 주요통계」 참고하여 재구성 하였음

〈그림 1-3〉 아동본인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현황(전국)

2. 목적

■ 본 조사는 진주시역의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기초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존중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사업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과 보호자의 인식격차 파악하기
 - 둘째, 부모양육태도 및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특성 파악하기
 - 셋째, 아동존중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 파악하기
 - 넷째,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존중사회 조성을 위한 제안사항 파악하기



〈그림 1-4〉 조사목적

Chapter II | 조사방법

1. 조사범위
2. 추진체계
3. 추진경과
4. 조사도구: 설문지
5.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6. 자료분석 방법

제2장 조사방법

1. 조사범위

■ 시간적 범위: 2022년 8월 ~ 2022년 11월

- 조사시기: 2022년 9월 ~ 10월 (1.5개월간)

■ 공간적 범위: 경상남도 진주시 일원

- **진주교육지원청 및 진주시 관내 초등학교의 협조를 받아 조사 실시함**

■ 내용적 범위

- 본 조사는 아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기초 인식을 조사하는 것임
 - 크게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 부모와 아이 관계에 관한 인식,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인식, 아동존중에 관한 인식 등을 파악하는 것임
- 아동과 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인식 격차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내용의 상당 부분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함



〈그림 2-1〉 조사범위

2. 추진체계

■ 본 조사는 진주시, 진주시교육지원청, 세이브더칠드런,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함

- 진주시에서는 조사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 추진 관련 자문을 제공함
- 진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조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및 학부모 대상 설문지 배포, 회수 등 실무적 지원을 함. 또한 교육현장 차원의 아동학대예방 추진 관련 자문을 제공함
- 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 조사 추진을 위한 경비 부담과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조사사업 전반을 총괄 지원함
- 진주시 관내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들은 이번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및 참여함. 특히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존중 관련 다양한 정책제언을 함께 제안함
-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존중문화 캠페인’ 총괄 운영기관으로, 해당 캠페인을 연계한 인식조사 전반을 총괄 기획 및 추진함. 이를 위해 관계 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였음. 또한 설문지 배포 및 수거, 자료입력, 데이터 클리닝 등 조사 추진에 필요한 실무 역할을 수행함



〈그림 2-2〉 추진체계 주체별 주요역할

3. 추진경과

■ 본 조사는 2022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개월 간 추진되었고,
현장 조사(설문조사)는 1.5개월 간(9월~10월) 진행되었음

-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는 SPSS프로그램을 활용한 데이터 입력 및 통계처리를 거쳐 최종 자료분석에 활용되었음
-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도출을 거쳐 보고자료 작성을 완료함
- 2022년 11월 22일, 아동존중정책토론회에서 주요 조사결과 발표 및 유관기관 토론이 진행되었음
- 토론회 이후 분석자료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으며, 주요 제언사항들은 향후 진주시의 아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추진 방향으로 참고할 예정임



〈그림 2-3〉 추진경과

4. 조사도구: 설문지

1) 일반적 특성

-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조사 대상별로 공통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항목들로 구성된 가운데, 일부 항목은 대상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제외하였음
- 세부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2-1〉 일반적 특성 조사 항목

구분	조사항목
아동	성별, 연령, 학년, 현재 거주지(읍면동), 아동학대예방교육 이수 여부, 아동권리교육 이수 여부
부모 (보호자)	성별, 연령, 자녀에 관한 사항(자녀수, 출생순위별 성별학년), 현재 거주지(읍면동), 아동학대예방교육 이수 여부, 아동권리교육 이수 여부, 부모교육(자녀양육교육) 이수 여부

2) 아동학대 인식

■ 아동학대 유형별 인식

- 아동학대 유형별 인식은 정선영·박보은(2019)이 아동학대 인식 조사에 활용한 척도를 한국리서치(2022)가 재인용한 것을 수정·보완 및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음
 - 총 4개의 아동학대 유형(신체, 정서, 성, 방임)에 대한 3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학대가 아니다”, “경미한 학대이다”, “심각한 학대이다” 등 3점 척도(1점~3점)로 응답하도록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 아동학대 전반적 인식

- 아동학대 전반적 인식은 조사진들이 문헌자료 등을 참고하여 자체 구성함
 - 아동의 연령 기준,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해 개방형으로 질문함
 - 또한 주변에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있는지 여부, 지역에서 아동학대 발생 정도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 발견(목적) 시 신고 태도에 대한 인식 등을 질문함

〈표 2-2〉 아동학대 인식 조사 항목

조사도구	출처	측정수준 및 내용	조사대상	
			아동	부모 (보호자)
아동학대 유형별 인식	한국리서치 (2022) 수정보완 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개 문항 · 3점 척도(1~3) ·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음 	○	○
아동학대 전반적 인식	자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연령 기준(개방형) · 아동학대의 개념(개방형) · 주변의 아동학대 경험한 아동 여부 · 지역의 아동학대 발생 정도 인식 · 아동학대 신고 태도 	○	○

3)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인식

■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가 나셨을 때 상황 인식

-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가 나셨을 때 상황 인식은 조사진들이 자체 구성함
 - 부모님이 화를 내시는 상황과 행동에 대해 질문함
 - 또한 화를 내셨을 때 기분 상태에 대해 질문함

■ 부모님이 다투셨을 때 상황 인식

- 부모님의 부부싸움 상황 인식은 어린이재단(2016)에서 부산광역시 아동학대예방 원탁토론회의 주제로 다룬 질문지를 재구성하였음
 - 아동 앞에서 다툼이 있었는지 여부, 부부싸움 이후 아동에 대한 화풀이 경험 여부와 당시 행동, 그리고 화풀이 이후의 기분 상태 등에 대해 질문함

■ 부모님이 평소 하시는 말에 대한 인식

- 부모님이 평소 하시는 말에 대한 아동들이 인식하는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 구성함
 - 평소 하시는 말 중 기분 좋은말과 기분 좋지 않은 말을 3가지 적어보도록 질문함

■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인식

- 부모양육태도는 어린이재단(2020)에서 실시한 부모자녀 아동권리인식 비교 조사의 척도를 사용함
 -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가운데, 하위 2개 척도(지지적 양육태도, 강요적 양육태도)로 구성되어 있음
 - “전혀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4점척도(0점~3점)로 응답하도록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태도로 인식함을 의미함
 - 단, 하위척도 중 강요적 양육태도는 역산하여 태도의 방향을 동일하게 맞춤

〈표 2-3〉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인식 조사 항목

조사도구	출처	측정수준 및 내용	조사대상	
			아동	부모 (보호자)
부모님이 화가난 상황 인식	자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를 내시는 상황 • 화를 내시는 행동 • 화를 내셨을 때 기분 상태 	○	○
부모님의 부부싸움 상황 인식	어린이재단(2016) 참고하여 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앞에서의 부부싸움 경험 여부 • 부부싸움 이후 아동에 대한 화풀이 여부 • 부부싸움 이후 아동에 대한 화풀이 행동 • 아동에 대한 화풀이 이후 기분 상태 	○	○
부모님의 평소 하시는 말 인식	자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 부모님 하시는 말 중 가장 기분 좋은 말 (개방형, 3가지) • 평소 부모님 하시는 말 중 가장 기분 좋지 않은 말 (개방형, 3가지) 	○	X
부모양육태도	어린이재단(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번 지지적 양육태도 - 5~8번 강요적 양육태도 • 4점 척도(0~3) •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태도로 인식 - 단, 강요적 양육태도는 역산하여 태도 방향 동일하게 맞춤 	○	○

4) 아동존중 이미지 및 아동존중사회를 위한 사회적 대책

■ 아동존중 이미지

- 아동과 부모님이 각각 아동존중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 구성함
 - 아동의 경우, “평소 부모님이나 어른들로부터 어떨 때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아동존중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인지” 등을 질문함
 - 부모(보호자)의 경우는 “아동존중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질문함

■ 아동존중사회를 위한 사회적 대책

-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아동존중사회를 위한 사회적 대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 구성함
- 먼저 아동학대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개방형으로 질문함
- 이어서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개방형으로 질문함

〈표 2-4〉 아동존중 이미지 및 아동존중사회를 위한 사회적 대책 조사 항목

조사도구	출처	측정수준 및 내용	조사대상	
			아동	부모 (보호자)
아동존중 이미지	자체 구성	· 평소 어른들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상황	○	X
		· 아동존중에 대한 이미지(또는 아동존중의 의미)	○	○
아동존중사회 대책	자체 구성	·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X	○
		· 아동존중 사회를 위한 대책	X	○

5.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 아동

- 아동은 진주시 관내 초등학교 고학년(4학년~6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함
- 조사대상의 표집은 진주시 관내 초등학교 고학년(10,311명) 전수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조사대상 선정의 통제성을 확보하기는 어렵기에 임의표집으로 조사 추진함
 - 최대한 전수조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진주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조사를 시행하였음
 - 진주시 관내 초등학교는 총 46개교이며, 4학년~6학년까지 학생수는 10,311명임
 - 각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최종 조사에는 41개교(89.1%)가 참여하였으며, 학생은 8,662명(84.0%)이 참여하였음
 - 자료수집 후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거쳐 최종 7,963명에 대해 분석 진행하였음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0.52\%$ p임

- 자료수집은 서면 설문지를 활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진행됨
 - 진주교육지원청과 관내 초등학교의 협조를 받아 교과시간 중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해당 자리에서 즉시 작성 및 회수하였으며, 담당 교사들의 협조하에 아동들이 최대한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지도함

■ 보호자

- 보호자는 진주시 관내 초등학교 고학년(4학년~6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 중 1명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함
- 조사대상 표집 및 선정에 한계가 있어 온라인을 통한 자율응답의 형태로 임의표집 진행되었음
 - 아동 모집단(10,311명) 수준으로 조사 응답을 기대하였으나, 최종 설문에 응답한 보호자는 622명(6.0%)에 그쳐 아동 표본수와의 차이가 큼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3.81\%$ p임
- 자료수집은 온라인을 통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진행됨
 - 진주시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 학부모 대상으로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였으며, 학부모들은 안내문에 표기된 링크에 접속하여 자율적으로 설문조사에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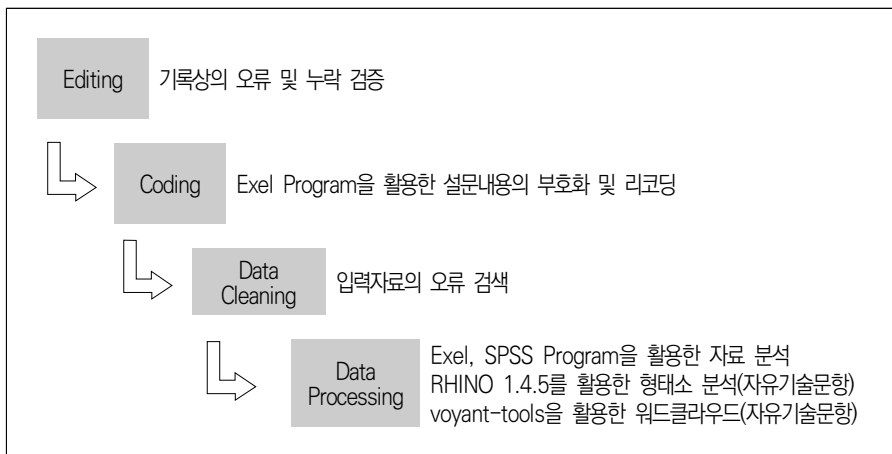


〈그림 2-4〉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6. 자료분석 방법

■ 자료분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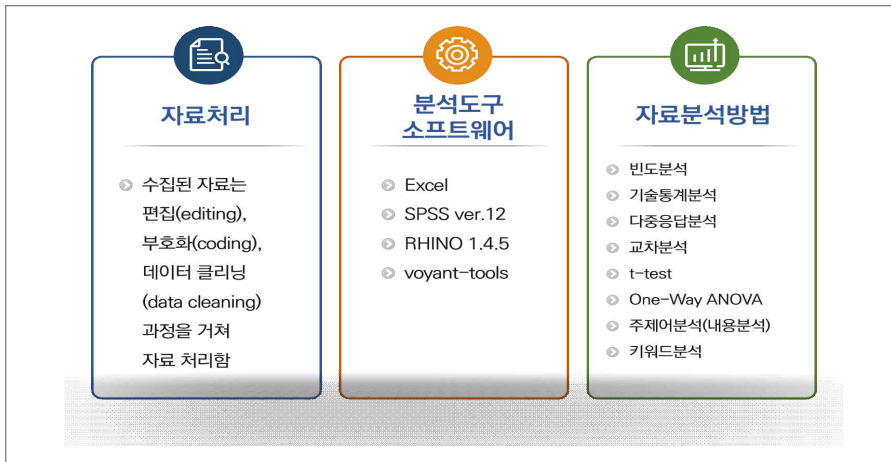
- 수집된 자료는 편집(editing), 부호화(coding), 데이터클리닝(data cleaning) 등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분석도구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함



〈그림 2-5〉 자료분석 절차

■ 구체적인 자료 분석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함

-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 주요 조사항목들의 응답결과
: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다중응답분석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조사항목들의 차이
: 교차분석, 다중응답 교차분석, t-test, One-Way ANOVA
- 주요 조사항목들의 개방형(자유기술) 문항
: 주제어(내용) 분석, 키워드 분석, 워드클라우드 분석



〈그림 2-6〉 자료분석 방법

■ 자료분석 시 고려사항

- 아동과 보호자의 표본 수 차이
 - 본 조사는 아동과 보호자의 아동학대 인식 차이, 아동-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인식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됨
 - 조사대상 규모 및 응답자의 특성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의표집으로 조사가 추진되면서, 아동과 보호자의 표본 수에서 크게 차이남
 - * 아동: 7,963명 / 보호자: 622명
 - 2집단(아동-보호자)의 표본수 및 특징에 있어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집단(아동-보호자) 간 통계적 차이검증은 실시하지 않았음
 - 다만, 각 집단별(아동-보호자) 결과값을 기준으로 인식 수준을 상호 비교하는 형태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방향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음
 - 또한 각 집단 내(아동/보호자)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하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대상별 접근방안 마련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음

- 보호자의 자율적인 조사참여에 따른 응답자들의 특성 고려
 - 아동들의 경우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협조를 받아 일괄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아동들의 특성이나 성향에 관계없이 전수조사에 가까운 많은 인원이 조사에 참여하였음
 - 한편, 보호자들의 경우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다양한 특성과 성향을 고려한 조사대상 선정에 한계가 있어 임의표집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특성이나 성향을 통제하지 못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본 조사에서는 아동보다 보호자의 아동학대 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해석에는 주의가 요구됨
- * 첫째, 통계적 차이검증 결과가 아님. 각 집단별 조사결과 값에 대한 단순 비교임
- * 둘째, 보호자들의 자율적인 조사참여로 인해, 상대적으로 사회문제나 사회참여에 적극적이면서 민감도가 높은 경우 조사참여율이 높았을 것으로 예측됨. 즉, 아동학대에 대한 평소 인식이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호자들의 조사참여율이 높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고려해야 함

ChapterⅢ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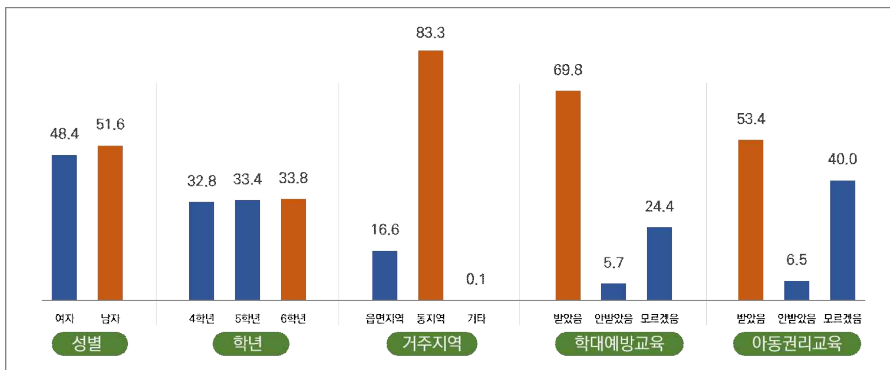
1. 응답자 일반적 특성
2. 아동 연령기준에 대한 인식
3. 아동학대 인식
4. 부모님의 화에 관한 사항
5. 부부싸움에 관한 사항
6. 자녀에게 평소 하는 말
7. 부모님의 양육태도
8. 아동존중문화

제3장 조사결과

1. 응답자 일반적 특성

■ 아동

- 조사응답자 중 아동은 8,662명이며, 분석에 활용된 케이스는 7,963명임
 - 성별 분포는 여자가 48.4%(3,828명), 남자가 51.6%(4,079명)임
 - 학년별 분포는 6학년이 33.8%(2,68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5학년 33.4%(2,657명), 4학년 32.8%(2,610명) 순임
 - 거주지역별 분포는 동지역(시가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83.3%(6,564명)으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은 16.6%(1,312명)임
- 아동들의 아동존중문화 관련 교육 이수 현황을 보면,
 - 10명 중 6.9명(69.8%)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명 중 2.4(24.4%)명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여부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10명 중 5.3명(53.4%)은 아동권리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0명 중 4명(40.0%)은 아동권리교육 이수 여부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3-1〉 응답자 일반적 특성(아동)

■ 보호자

- 아동학대예방교육의 이수율은 10명 중 4.6명(46.6%), 아동권리교육의 이수율은 10명 중 3.6명(36.3%), 부모교육 이수율은 10명 중 5.8명(58.8%)임



〈그림 3-2〉 응답자 일반적 특성(보호자)

〈표 3-1〉 응답자 일반적 특성(아동/보호자)

구분		아동		보호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체		7,963	100.0	622	100.0
성별	여자	3,828	48.4	566	91.0
	남자	4,079	51.6	56	9.0
학년	4학년(11세)	2,610	32.8	-	-
	5학년(12세)	2,657	33.4	-	-
	6학년(13세)	2,689	33.8	-	-
연령대	39세이하	-	-	83	13.6
	40~44세	-	-	297	48.5
	45~49세	-	-	184	30.1
	50세이상	-	-	48	7.8
자녀수	1명	-	-	117	18.8
	2명	-	-	358	57.6
	3명이상	-	-	147	23.6
자녀성별구성	딸만있음	-	-	104	22.3
	아들만있음	-	-	137	29.4
	아들딸있음	-	-	225	48.3
자녀 연령대	초등생이하	-	-	375	62.4
	중고생이하	-	-	175	29.1
	성인이하	-	-	51	8.5
거주지역	읍면지역	1,312	16.6	69	12.6
	동지역	6,564	83.3	478	87.2
	기타	8	0.1	1	0.2
아동학대 예방교육	받았음	5,530	69.8	290	46.6
	안받았음	455	5.7	297	47.7
	모르겠음	1,934	24.4	35	5.6
아동권리교육	받았음	4,223	53.4	226	36.3
	안받았음	517	6.5	338	54.3
	모르겠음	3,163	40.0	58	9.3
부모교육	받았음	-	-	366	58.8
	안받았음	-	-	230	37.0
	모르겠음	-	-	26	4.2

주) 결측값에 따라 합계가 다를 수 있음

2. 아동 연령기준에 대한 인식

■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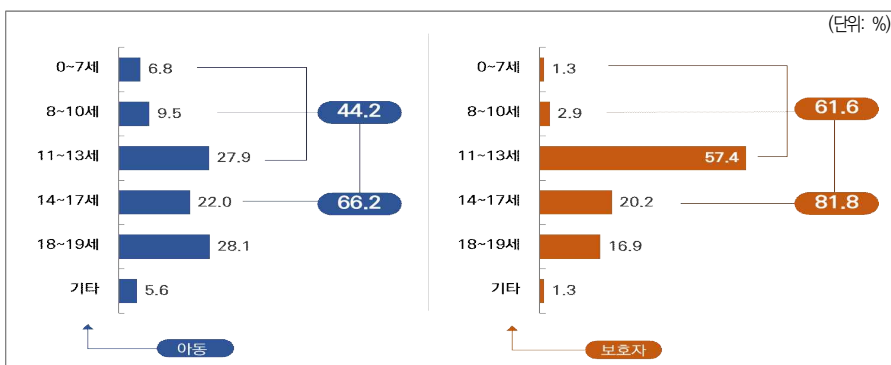
- 만 18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로, 만 17세까지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아동

- 만 17세까지가 아동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7%(207명)에 그침
- 18세~19세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28.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1세~13세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27.9%로 나타남. 이어서 14세~17세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22.0%, 8~10세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9.5%, 0~7세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6.8%로 나타남
- 아동들은 고등학생 연령대 이하를 아동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음

■ 보호자

- 만 17세까지가 아동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5%(9명)에 그침
- 11세~13세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57.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4세~17세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20.2%로 나타남. 이어서 18세~19세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16.9%, 8세~10세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2.9%, 0~7세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1.3%로 나타남
- 보호자들은 초등학생 연령대 이하를 아동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음



〈그림 3-3〉 아동 연령기준에 대한 인식(아동/보호자)

〈표 3-2〉 아동 연령기준에 대한 인식(아동/보호자)_기준 연령별

연령기준 (~세까지)	아동				보호자			
	빈도(명)	비율(%)	비율(%)	비율(%)	빈도(명)	비율(%)	비율(%)	비율(%)
합계	7,739	(100.0)	(100.0)	(100.0)	620	(100.0)	(100.0)	(100.0)
0세	2	(0.0)	(6.8)	(66.2)	0	(0.0)	(1.3)	(81.8)
1세	6	(0.1)			0	(0.0)		
2세	6	(0.1)			0	(0.0)		
3세	16	(0.2)			0	(0.0)		
4세	9	(0.1)			0	(0.0)		
5세	44	(0.6)			0	(0.0)		
6세	32	(0.4)			0	(0.0)		
7세	408	(5.3)			8	(1.3)		
8세	183	(2.4)	1		(0.2)	(2.9)		
9세	149	(1.9)	3		(0.5)			
10세	407	(5.3)	14		(2.3)			
11세	102	(1.3)	8		(1.3)	(57.4)		
12세	196	(2.5)	42		(6.8)			
13세	1,864	(24.1)	306		(49.4)			
14세	467	(6.0)	28		(4.5)	(20.2)		
15세	465	(6.0)	40		(6.5)			
16세	566	(7.3)	48		(7.7)			
17세	207	(2.7)	9		(1.5)			
18세	678	(8.9)	(28.2)	(33.8)	47	(7.6)	(16.9)	(18.2)
19세	1,497	(19.3)			58	(9.4)		
20세	435	(5.6)			8	(1.3)		

주) 절측값에 따라 합계가 다를 수 있음

〈표 3-3〉 아동 연령기준에 대한 인식(아동)_기준 연령대별

구분		0~7세 이하까지	8~10세 이하까지	11~13세 이하까지	14~17세 이하까지	18~19세 이하까지	기타	합계	χ ²	
전체	빈도(명)	523	739	2,162	1,705	2,175	435	7,739	-	
	비율(%)	(6.8)	(9.5)	(27.9)	(22.0)	(28.2)	(5.6)	(100.0)		
성별	여자	빈도(명)	262	361	966	815	1,153	198	3,755	31.951***
		비율(%)	(7.0)	(9.6)	(25.7)	(21.7)	(30.7)	(5.3)	(100.0)	
	남자	빈도(명)	256	373	1,178	879	1,011	234	3,931	
		비율(%)	(6.5)	(9.5)	(30.0)	(22.4)	(25.7)	(6.0)	(100.0)	
학년	4학년	빈도(명)	161	191	649	533	769	216	2,519	113.851***
		비율(%)	(6.4)	(7.6)	(25.8)	(21.2)	(30.5)	(8.6)	(100.0)	
	5학년	빈도(명)	192	243	706	576	761	112	2,590	
		비율(%)	(7.4)	(9.4)	(27.3)	(22.2)	(29.4)	(4.3)	(100.0)	
	6학년	빈도(명)	170	304	806	592	644	107	2,623	
		비율(%)	(6.5)	(11.6)	(30.7)	(22.6)	(24.6)	(4.1)	(100.0)	
거주지역	읍면 지역	빈도(명)	74	119	323	253	431	59	1,259	28.052***
		비율(%)	(5.9)	(9.5)	(25.7)	(20.1)	(34.2)	(4.7)	(100.0)	
	동지역	빈도(명)	448	614	1,816	1,418	1,733	369	6,398	
		비율(%)	(7.0)	(9.6)	(28.4)	(22.2)	(27.1)	(5.8)	(100.0)	
아동학 대예방 교육	받았음	빈도(명)	317	474	1,491	1,193	1,637	305	5,417	74.601***
		비율(%)	(5.9)	(8.8)	(27.5)	(22.0)	(30.2)	(5.6)	(100.0)	
	안받았음	빈도(명)	41	48	107	84	107	34	421	
		비율(%)	(9.7)	(11.4)	(25.4)	(20.0)	(25.4)	(8.1)	(100.0)	
	모르겠음	빈도(명)	163	213	551	419	421	94	1,861	
		비율(%)	(8.8)	(11.4)	(29.6)	(22.5)	(22.6)	(5.1)	(100.0)	
아동권 리교육	받았음	빈도(명)	222	350	1,109	901	1,336	224	4,142	97.998***
		비율(%)	(5.4)	(8.5)	(26.8)	(21.8)	(32.3)	(5.4)	(100.0)	
	안받았음	빈도(명)	42	56	134	109	121	24	486	
		비율(%)	(8.6)	(11.5)	(27.6)	(22.4)	(24.9)	(4.9)	(100.0)	
	모르겠음	빈도(명)	256	326	902	681	707	183	3,055	
		비율(%)	(8.4)	(10.7)	(29.5)	(22.3)	(23.1)	(6.0)	(100.0)	

*p<.05, **p<.01, ***p<.001

주) 결측값에 따라 합계가 다를 수 있음

〈표 3-4〉 아동 연령기준에 대한 인식(보호자)_기준 연령대별

구분		0~7세 이하까지	8~10세 이하까지	11~13세 이하까지	14~17세 이하까지	18~19세 이하까지	기타	합계	χ ²
전체	빈도(명)	8	18	356	125	105	8	620	-
	비율(%)	(1.3)	(2.9)	(57.4)	(20.2)	(16.9)	(1.3)	(100.0)	
성별	여자	빈도(명)	7	17	319	113	101	7	4.836
		비율(%)	(1.2)	(3.0)	(56.6)	(20.0)	(17.9)	(1.2)	
	남자	빈도(명)	1	1	37	12	4	1	
		비율(%)	(1.8)	(1.8)	(66.1)	(21.4)	(7.1)	(1.8)	
연령대	39세이하	빈도(명)	2	4	54	12	10	1	12.348
		비율(%)	(2.4)	(4.8)	(65.1)	(14.5)	(12.0)	(1.2)	
	40~44세	빈도(명)	3	11	168	61	48	4	
		비율(%)	(1.0)	(3.7)	(56.9)	(20.7)	(16.3)	(1.4)	
	45세~49세	빈도(명)	2	3	98	40	38	3	
		비율(%)	(1.1)	(1.6)	(53.3)	(21.7)	(20.7)	(1.6)	
	50세이상	빈도(명)	1	0	27	12	8	0	
		비율(%)	(2.1)	(0.0)	(56.3)	(25.0)	(16.7)	(0.0)	
자녀수	1명	빈도(명)	2	1	75	17	20	0	19.291*
		비율(%)	(1.7)	(0.9)	(65.2)	(14.8)	(17.4)	(0.0)	
	2명	빈도(명)	3	16	188	78	66	7	
		비율(%)	(0.8)	(4.5)	(52.5)	(21.8)	(18.4)	(2.0)	
	3명이상	빈도(명)	3	1	93	30	19	1	
		비율(%)	(2.0)	(0.7)	(63.3)	(20.4)	(12.9)	(0.7)	
자녀 성별	딸만있음	빈도(명)	0	3	65	18	14	2	5.732
		비율(%)	(0.0)	(2.9)	(63.7)	(17.6)	(13.7)	(2.0)	
	아들만있음	빈도(명)	2	4	73	30	25	3	
		비율(%)	(1.5)	(2.9)	(53.3)	(21.9)	(18.2)	(2.2)	
	아들딸있음	빈도(명)	1	7	132	45	38	2	
		비율(%)	(0.4)	(3.1)	(58.7)	(20.0)	(16.9)	(0.9)	
자녀연 령	초등생이하	빈도(명)	5	11	231	63	56	7	20.195*
		비율(%)	(1.3)	(2.9)	(61.9)	(16.9)	(15.0)	(1.9)	
	중고생이하	빈도(명)	1	6	83	47	37	1	
		비율(%)	(0.6)	(3.4)	(47.4)	(26.9)	(21.1)	(0.6)	
	성인이하	빈도(명)	2	0	30	10	9	0	
		비율(%)	(3.9)	(0.0)	(58.8)	(19.6)	(17.6)	(0.0)	
거주지 역	읍면 지역	빈도(명)	0	1	33	16	17	1	5.078
		비율(%)	(0.0)	(1.5)	(48.5)	(23.5)	(25.0)	(1.5)	
	동지역	빈도(명)	8	13	275	96	80	5	
		비율(%)	(1.7)	(2.7)	(57.7)	(20.1)	(16.8)	(1.0)	
아동학 대예장 교육	받았음	빈도(명)	5	6	156	55	63	5	16.462
		비율(%)	(1.7)	(2.1)	(53.8)	(19.0)	(21.7)	(1.7)	
	안받았음	빈도(명)	3	11	183	59	37	2	
		비율(%)	(1.0)	(3.7)	(62.0)	(20.0)	(12.5)	(0.7)	
	모르겠음	빈도(명)	0	1	17	11	5	1	
		비율(%)	(0.0)	(2.9)	(48.6)	(31.4)	(14.3)	(2.9)	
아동권 리교육	받았음	빈도(명)	2	9	119	45	47	4	15.143
		비율(%)	(0.9)	(4.0)	(52.7)	(19.9)	(20.8)	(1.8)	
	안받았음	빈도(명)	5	8	211	65	44	4	
		비율(%)	(1.5)	(2.4)	(62.6)	(19.3)	(13.1)	(1.2)	
	모르겠음	빈도(명)	1	1	26	15	14	0	
		비율(%)	(1.8)	(1.8)	(45.6)	(26.3)	(24.6)	(0.0)	
부모교 육	받았음	빈도(명)	5	9	203	71	7	366	8.477
		비율(%)	(1.4)	(2.5)	(55.5)	(19.4)	(19.4)	(1.9)	
	안받았음	빈도(명)	3	8	139	47	31	1	
		비율(%)	(1.3)	(3.5)	(60.7)	(20.5)	(13.5)	(0.4)	
	모르겠음	빈도(명)	0	1	14	7	3	0	
		비율(%)	(0.0)	(4.0)	(56.0)	(28.0)	(12.0)	(0.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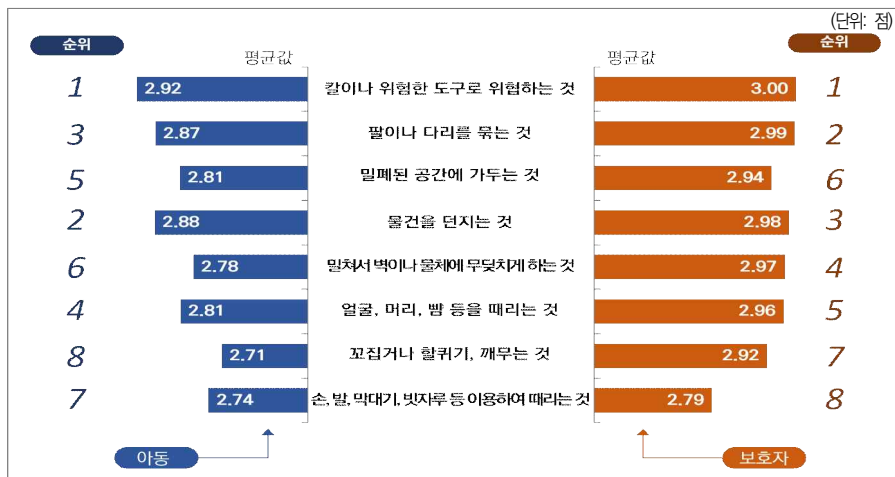
주) 결측값에 따라 합계가 다를 수 있음

3. 아동학대 인식

1) 아동학대 문항별 인식

■ 신체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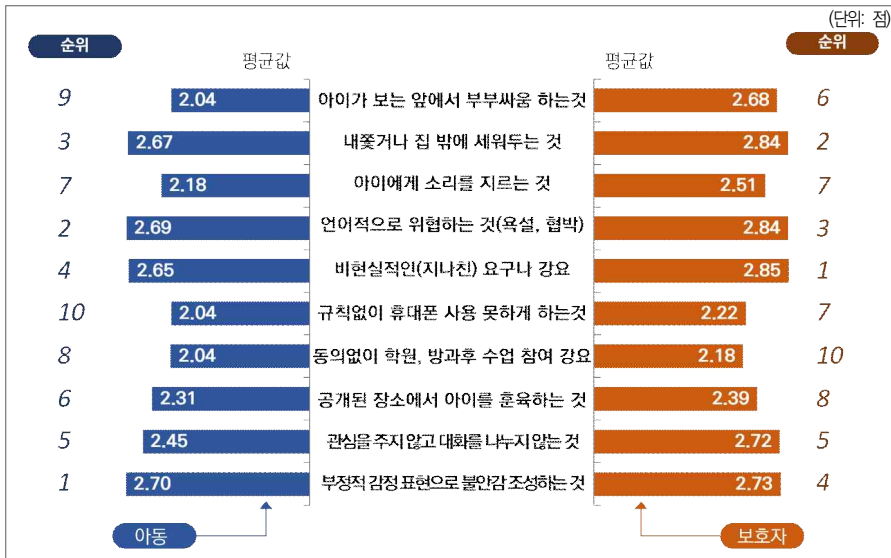
- 신체학대와 관련된 8가지 사례별 인식도를 살펴보았음
- 가장 높게 인식한 문항
 - 아동(M=2.92)과 보호자(M=3.00) 모두 ‘칼이나 위험한 도구로 위협하는 것’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음
- 가장 낮게 인식한 문항
 - 아동은 ‘꼬집거나 핼퀴기, 깨우는 것’(M=2.71)을 가장 낮게 인식하였음
 - 보호자는 ‘손, 발, 막대기, 빗자루 등 이용하여 때리는 것’(M=2.79)을 가장 낮게 인식하였음
- Gap이 가장 큰 항목은 ‘꼬집거나 핼퀴기, 깨우는 것’(gap=0.21), Gap이 가장 작은 항목은 ‘손, 발, 막대기, 빗자루 등 이용하여 때리는 것’(gap=0.05)으로 나타남



〈그림 3-4〉 아동학대(신체학대) 문항별 인식(아동/보호자)

■ 정서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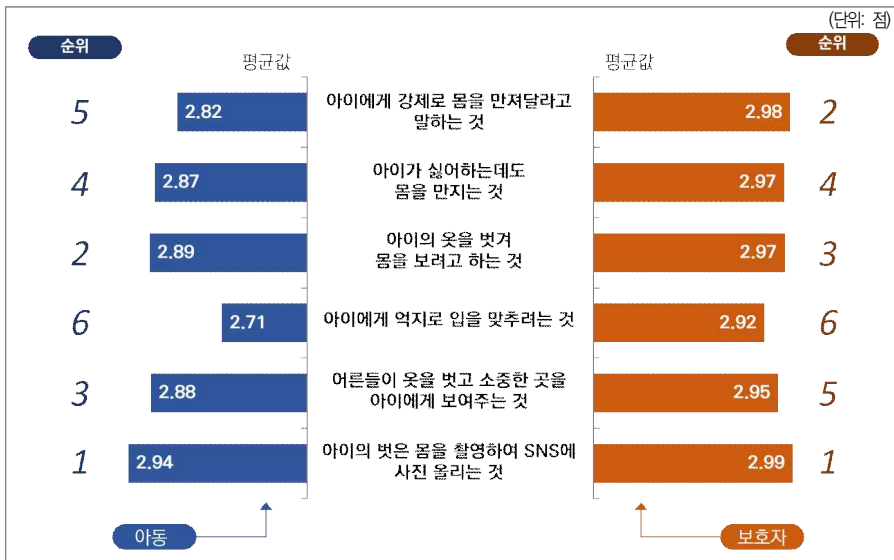
- 정서학대와 관련된 10가지 사례별 인식도를 살펴보았음
- 가장 높게 인식한 문항
 - 아동은 '부정적 감정 표현으로 불안감 조성하는 것'(M=2.70)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음
 - 보호자는 '비현실적인(지나친) 요구나 강요'(M=2.85)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음
- 가장 낮게 인식한 문항
 - 아동은 '규칙없이 휴대폰 사용 못하게 하는 것'(M=2.04)을 가장 낮게 인식하였음
 - 보호자는 '동의없이 학원, 방과후 수업 강요'(M=2.18)를 가장 낮게 인식하였음
- Gap이 가장 큰 항목은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 하는 것'(gap=0.64), Gap이 가장 작은 항목은 '부정적 감정표현으로 불안감 조성하는 것'(gap=0.03)으로 나타남



〈그림 3-5〉 아동학대(정서학대) 문항별 인식(아동/보호자)

■ 성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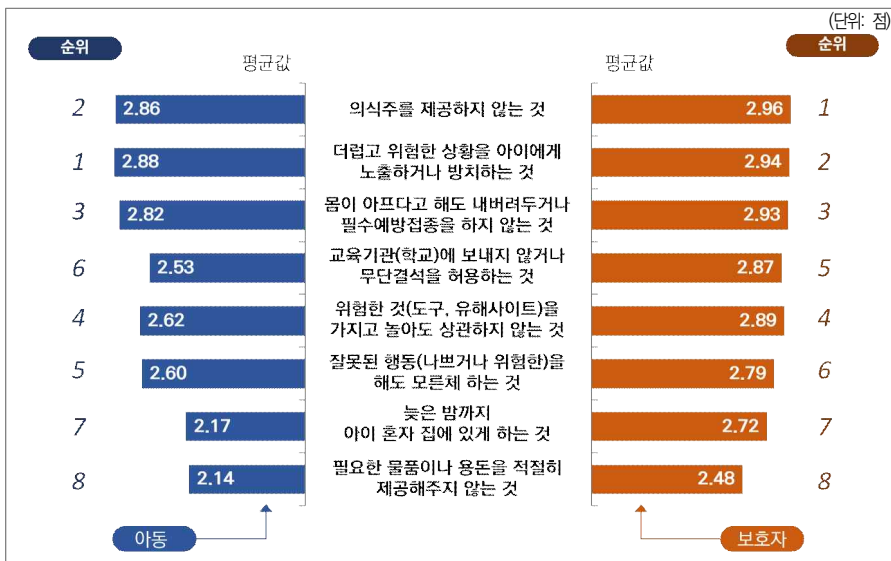
- 성학대와 관련된 6가지 사례별 인식도를 살펴보았음
- 가장 높게 인식한 문항
 - 아동(M=2.94)과 보호자(M=2.99) 모두 '아이의 벗은 몸을 촬영하여 SNS에 사진 올리는 것'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음
- 가장 낮게 인식한 문항
 - 아동(M=2.71)과 보호자(M=2.92) 모두 '아이에게 억지로 입을 맞추려는 것'을 가장 낮게 인식하였음
- Gap이 가장 큰 항목은 '아이에게 억지로 입을 맞추려는 것'(gap=0.21), Gap이 가장 작은 항목은 '아이의 벗은 몸을 SNS에 사진 올리는 것'(gap=0.05)으로 나타남



〈그림 3-6〉 아동학대(성학대) 문항별 인식(아동/보호자)

■ 방임

- 방임과 관련된 8가지 사례별 인식도를 살펴보았음
- 가장 높게 인식한 문항
 - 아동은 '더럽고 위험한 상황을 아이에게 노출하거나 방치하는 것'(M=2.88)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음
 - 보호자는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M=2.96)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음
- 가장 낮게 인식한 문항
 - 아동(M=2.14)과 보호자(M=2.48) 모두 '필요한 물품이나 용돈을 적절히 제공해주지 않는 것'을 가장 낮게 인식하였음
- Gap이 가장 큰 항목은 '늦은 밤까지 아이 혼자 집에 있게 하는 것'(gap=0.55), Gap이 가장 작은 항목은 '더럽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하거나 방치하는 것'(gap=0.06)으로 나타남



〈그림 3-7〉 아동학대(방임) 문항별 인식(아동/보호자)

〈표 3-5〉 아동학대 문항별 인식(아동)

문항	학대가아니다		경미한학대다		심각한학대다		평균	표준편차
1) 칼이나 위험한 도구로 위협하는 것	48	(0.6)	540	(6.8)	7,358	(92.6)	2.92	.293
2) 팔이나 다리를 묶는 것	48	(0.6)	901	(11.4)	6,989	(88.0)	2.87	.349
3) 밀폐된 공간에 가두는 것	70	(0.9)	1,335	(16.8)	6,550	(82.3)	2.81	.411
4) 물건을 던지는 것	62	(0.8)	859	(10.8)	7,016	(88.4)	2.88	.352
5) 밀쳐서 벽이나 물체에 부딪치게 하는 것	86	(1.1)	1,569	(19.7)	6,301	(79.2)	2.78	.439
6) 얼굴, 머리, 뺨 등을 때리는 것	102	(1.3)	1,278	(16.1)	6,549	(82.6)	2.81	.422
7) 꼬집거나 핍대하기, 깨무는 것	149	(1.9)	1,986	(25.0)	5,799	(73.1)	2.71	.493
8) 손, 발, 막대기, 빗자루 등 이용하여 때리는 것	227	(2.9)	1,575	(19.9)	6,123	(77.3)	2.74	.498
9)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 하는 것	1,721	(21.7)	4,179	(52.7)	2,037	(25.7)	2.04	.687
10) 내쫓거나 집 밖에 세워두는 것	253	(3.2)	2,138	(26.9)	5,543	(69.9)	2.67	.535
11)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	1,116	(14.1)	4,276	(53.9)	2,547	(32.1)	2.18	.655
12) 언어적으로 위협하는 것(욕설, 협박)	155	(2.0)	2,137	(26.9)	5,645	(71.1)	2.69	.502
13) 비현실적인(자나친) 요구나 강요	209	(2.6)	2,321	(29.2)	5,406	(68.1)	2.65	.528
14) 규칙없이 휴대폰 사용 못하게 하는 것	1,897	(23.9)	3,842	(48.5)	2,182	(27.5)	2.04	.717
15) 동의없이 학원, 방과후 수업 참여 강요	1,767	(22.3)	4,065	(51.2)	2,106	(26.5)	2.04	.697
16) 공개된 장소에서 아이를 혼욕하는 것	1,143	(14.4)	3,154	(39.8)	3,636	(45.8)	2.31	.710
17) 관심을 주지 않고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	518	(6.5)	3,298	(41.5)	4,123	(51.9)	2.45	.615
18) 부정적 감정 표현으로 불안감 조성하는 것	201	(2.5)	1,994	(25.1)	5,751	(72.4)	2.70	.511
19) 아이에게 강제로 몸을 만져달라고 말하는 것	136	(1.7)	1,164	(14.6)	6,648	(83.6)	2.82	.427
20)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몸을 만지는 것	72	(0.9)	855	(10.8)	7,018	(88.3)	2.87	.358
21) 아이의 옷을 벗겨 몸을 보여고 하는 것	95	(1.2)	709	(8.9)	7,142	(89.9)	2.89	.353
22) 아이에게 억지로 입을 맞추려는 것	265	(3.3)	1,775	(22.3)	5,902	(74.3)	2.71	.522
23) 어른들이 옷을 벗고 소중한 곳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	116	(1.5)	691	(8.7)	7,125	(89.8)	2.88	.363
24) 아이의 벗은 몸을 촬영하여 SNS에 사진 올리는 것	69	(0.9)	345	(4.4)	7,514	(94.8)	2.94	.273
25)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	113	(1.4)	854	(10.8)	6,960	(87.8)	2.86	.382
26) 더럽고 위험한 상황을 아이에게 노출하거나 방치하는 것	72	(0.9)	838	(10.6)	7,024	(88.5)	2.88	.356
27) 몸이 아프다고 해도 내버려두거나 팔수없는것을 하지 않는 것	95	(1.2)	1,215	(15.3)	6,627	(83.5)	2.82	.412
28) 교육기관(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것	492	(6.2)	2,751	(34.6)	4,699	(59.2)	2.53	.611
29) 위험한 것(도로, 유해사이트)을 가지고 놀도록 상하지 않는 것	316	(4.0)	2,356	(29.7)	5,266	(66.3)	2.62	.561
30) 잘못된 행동(나쁜거)나 위험한을 해도 모른체 하는 것	360	(4.5)	2,415	(30.5)	5,148	(65.0)	2.60	.574
31) 늦은 밤까지 아이 혼자 집에 있게 하는 것	1,587	(20.0)	3,399	(42.9)	2,945	(37.1)	2.17	.736
32) 필요한 물품이나 용돈을 적절히 제공해주지 않는 것	1,315	(16.6)	4,195	(52.8)	2,430	(30.6)	2.14	.672

주) 결측값에 따라 합계가 다를 수 있음

〈표 3-6〉 아동학대 문항별 인식(보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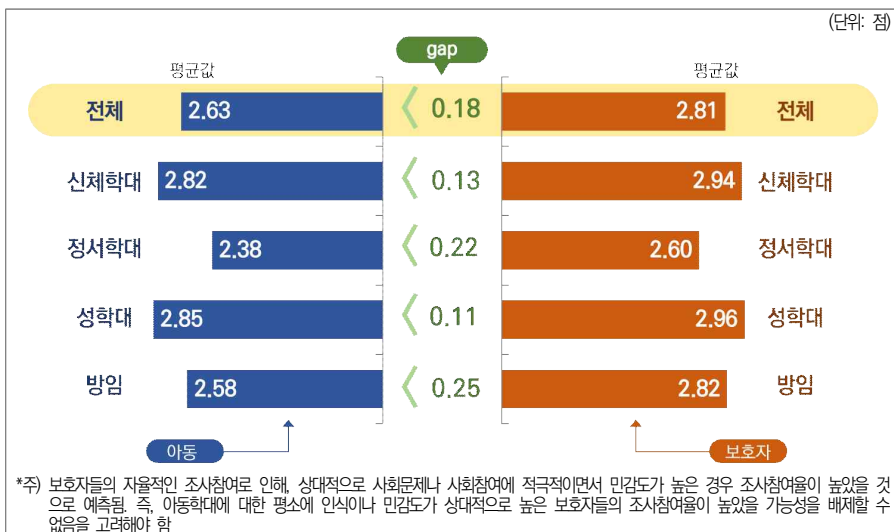
문항	학대가아니다		경미한학대다		심각한학대다		평균	표준편차
1) 칼이나 위험한 도구로 위협하는 것	0	(0.0)	3	(0.5)	619	(99.5)	3.00	.069
2) 팔이나 다리를 묶는 것	0	(0.0)	5	(0.8)	617	(99.2)	2.99	.089
3) 밀폐된 공간에 가두는 것	3	(0.5)	34	(5.5)	585	(94.1)	2.94	.264
4) 물건을 던지는 것	0	(0.0)	14	(2.3)	608	(97.7)	2.98	.148
5) 밀쳐서 벽이나 물체에 부딪치게 하는 것	1	(0.2)	18	(2.9)	603	(96.9)	2.97	.185
6) 얼굴, 머리, 뺨 등을 때리는 것	0	(0.0)	22	(3.5)	600	(96.5)	2.96	.185
7) 꼬집거나 핍대하기, 깨무는 것	1	(0.2)	45	(7.2)	576	(92.6)	2.92	.271
8) 손, 발, 막대기, 빗자루 등 이용하여 때리는 것	7	(1.1)	117	(18.8)	498	(80.1)	2.79	.435
9)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 하는 것	12	(1.9)	174	(28.0)	436	(70.1)	2.68	.506
10) 내쫓거나 집 밖에 세워두는 것	3	(0.5)	93	(15.0)	526	(84.6)	2.84	.379
11)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	26	(4.2)	255	(41.0)	341	(54.8)	2.51	.578
12) 언어적으로 위협하는 것(욕설, 협박)	3	(0.5)	93	(15.0)	526	(84.6)	2.84	.379
13) 비현실적인(자나친) 요구나 강요	3	(0.5)	90	(14.5)	529	(85.0)	2.85	.375
14) 규칙없이 휴대폰 사용 못하게 하는 것	87	(14.0)	310	(49.8)	225	(36.2)	2.22	.673
15) 동의없이 학원, 방과후 수업 참여 강요	96	(15.4)	316	(50.8)	210	(33.8)	2.18	.678
16) 공개된 장소에서 아이를 혼욕하는 것	61	(9.8)	259	(41.6)	302	(48.6)	2.39	.659
17) 관심을 주지 않고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	10	(1.6)	155	(24.9)	457	(73.5)	2.72	.484
18) 부정적 감정 표현으로 불안감 조성하는 것	9	(1.4)	149	(24.0)	464	(74.6)	2.73	.475
19) 아이에게 강제로 몸을 만져달라고 말하는 것	1	(0.2)	9	(1.4)	612	(98.4)	2.98	.144
20)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몸을 만지는 것	0	(0.0)	20	(3.2)	602	(96.8)	2.97	.177
21) 아이의 옷을 벗겨 몸을 보여고 하는 것	4	(0.6)	11	(1.8)	607	(97.6)	2.97	.206
22) 아이에게 억지로 입을 맞추려는 것	2	(0.3)	46	(7.4)	574	(92.3)	2.92	.284
23) 어른들이 옷을 벗고 소중한 곳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	7	(1.1)	15	(2.4)	600	(96.5)	2.95	.259
24) 아이의 벗은 몸을 촬영하여 SNS에 사진 올리는 것	0	(0.0)	7	(1.1)	615	(98.9)	2.99	.106
25)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	1	(0.2)	24	(3.9)	597	(96.0)	2.96	.208
26) 더럽고 위험한 상황을 아이에게 노출하거나 방치하는 것	3	(0.5)	31	(5.0)	588	(94.5)	2.94	.256
27) 몸이 아프다고 해도 내버려두거나 팔수여부관심을 하지 않는 것	1	(0.2)	40	(6.4)	581	(93.4)	2.93	.257
28) 교육기관(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것	9	(1.4)	63	(10.1)	550	(88.4)	2.87	.377
29) 위험한 것(도로, 유해사이트)을 가지고 놀도록 상하지 않는 것	4	(0.6)	58	(9.3)	560	(90.0)	2.89	.328
30) 잘못된 행동(나쁜거)나 위험한을 해도 모른체 하는 것	10	(1.6)	109	(17.5)	503	(80.9)	2.79	.444
31) 늦은 밤까지 아이 혼자 집에 있게 하는 것	15	(2.4)	143	(23.0)	464	(74.6)	2.72	.499
32) 필요한 물품이나 용돈을 적절히 제공해주지 않는 것	32	(5.1)	257	(41.3)	333	(53.5)	2.48	.594

주) 결측값에 따라 합계가 다를 수 있음

2) 아동학대 유형별 인식

■ 종합

- 아동과 보호자 모두 성학대→신체학대→방임→정서학대 순의 인식도를 보임
 - 아동의 아동학대 유형별 인식도는 성학대(M=2.85), 신체학대(M=2.82), 방임(M=2.58), 정서학대(M=2.38) 순으로 나타남
 - 보호자의 아동학대 유형별 인식도는 성학대(M=2.96), 신체학대(M=2.94), 방임(M=2.82), 정서학대(M=2.60)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아동학대 인식도는 보호자가 2.81점으로 아동 2.63점 보다 0.18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유형별로 Gap을 보면, 방임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gap=0.25), 이어서 정서학대(gap=0.22), 신체학대(gap=0.13), 성학대(gap=0.11) 순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 인식도가 낮은 유형일수록 아동과 보호자의 인식 gap이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3-8〉 아동학대 유형별 인식(아동/보호자)

■ 특성별 아동학대 유형별 인식도: 전체

- (성별) 아동(여:2.64 > 남:2.61)과 보호자(여:2.82 > 남:2.72)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인식도를 보임
- (연령별) 아동은 나이가 적을수록(4학년:2.64 > 5학년:2.64 > 6학년: 2.60)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호자는 나이가 많을수록(50세이상:2.84 > 45세~49세:2.84 > 40세~44세:2.80 > 39세이하:2.92) 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녀수) 보호자는 자녀수가 적을수록(1명:2.81 > 2명:2.81 > 3명이상:2.80) 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녀성별) 보호자는 자녀가 아들과 딸 모두 있는 경우(2.85), 딸만 있는 경우(2.80), 아들만 있는 경우(2.80) 순으로 나타남
- (자녀 연령대) 보호자는 성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2.85),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2.81), 중고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2.80)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 아동은 읍면지역(2.66)이 동지역(2.62)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호자는 동지역(2.81)이 읍면지역(2.78)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과 보호자 모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한 경우(아동:2.65, 보호자:2.83), 이수하지 않았거나 모르는 경우 보다 아동학대 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권리교육) 아동과 보호자 모두 아동권리교육을 이수한 경우(아동:2.66, 보호자:2.85), 이수하지 않았거나 모르는 경우 보다 아동학대 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모교육) 보호자는 부모교육을 이수한 경우(2.83)가 이수하지 않았거나(2.79) 이수 여부를 모르는 경우(2.72) 보다 아동학대 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성별 아동학대 유형별 인식도: 신체학대

- (성별) 아동(여:2.83 > 남:2.80)과 보호자(여:2.95 > 남:2.89)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인식도를 보임
- (연령별) 아동은 5학년:2.83 > 6학년:2.82 > 4학년: 2.80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자는 나이가 많을수록(50세이상:2.96 > 45세~49세:2.96 > 40세~44세:2.94 > 39세이하:2.92) 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녀수) 보호자는 자녀수가 적을수록(1명:2.95 > 2명:2.94 > 3명이상:2.94) 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녀성별) 보호자는 자녀가 아들과 딸 모두 있는 경우(2.95), 딸만 있는 경우(2.94), 아들만 있는 경우(2.94) 순으로 나타남
- (자녀 연령대) 보호자는 성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2.97),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2.95), 중고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2.93)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 아동은 읍면지역(2.84)이 동지역(2.81)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호자는 동지역(2.94)이 읍면지역(2.9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과 보호자 모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한 경우(아동:2.83, 보호자:2.96), 이수하지 않았거나 모르는 경우 보다 아동학대 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권리교육) 아동과 보호자 모두 아동권리교육을 이수한 경우(아동:2.84, 보호자:2.96), 이수하지 않았거나 모르는 경우 보다 아동학대 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모교육) 보호자는 부모교육을 이수한 경우(2.95)가 이수하지 않았거나(2.94) 이수 여부를 모르는 경우(2.85) 보다 아동학대 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성별 아동학대 유형별 인식도: 정서학대

- (성별) 아동(여:2.39 > 남:2.36)과 보호자(여:2.61 > 남:2.47)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인식도를 보임
- (연령별) 아동은 나이가 적을수록(4학년:2.41 > 5학년:2.38 > 6학년: 2.34)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호자는 45세~49세:2.65 > 50세이상:2.63 > 40세~44세:2.58 > 39세이하:2.55 순으로 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녀수) 보호자는 자녀수가 적을수록(1명:2.61 > 2명:2.60 > 3명이상:2.57) 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녀성별) 보호자는 자녀가 아들만 있는 경우(2.59), 딸만 있는 경우(2.58), 아들과 딸 모두 있는 경우(2.58) 순으로 나타남
- (자녀 연령대) 보호자는 성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2.66),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2.60), 중고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2.58)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 아동은 읍면지역(2.43)이 동지역(2.37)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호자는 동지역(2.59)이 읍면지역(2.57)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과 보호자 모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한 경우(아동:2.40, 보호자:2.64), 이수하지 않았거나 모르는 경우 보다 아동학대 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권리교육) 아동과 보호자 모두 아동권리교육을 이수한 경우(아동:2.42, 보호자:2.67), 이수하지 않았거나 모르는 경우 보다 아동학대 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모교육) 보호자는 부모교육을 이수한 경우(2.63)가 이수하지 않았거나(2.56) 이수 여부를 모르는 경우(2.52) 보다 아동학대 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성별 아동학대 유형별 인식도: 성학대

- (성별) 아동(여:2.88 > 남:2.83)과 보호자(여:2.96 > 남:2.90)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인식도를 보임
- (연령별) 아동(6학년:2.86 > 5학년:2.86 > 6학년:2.84)과 보호자(50세이상:2.98 > 45세~49세:2.98 > 40세~44세:2.96 > 39세이하:2.96) 모두 연령이 많을수록 더 높은 인식도를 보임
- (자녀수) 보호자는 자녀수가 많을수록(3명이상:2.97 > 2명:2.97 > 1명:2.95) 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녀성별) 보호자는 자녀가 딸만 있는 경우(2.97), 아들과 딸이 있는 경우(2.97), 아들만 있는 경우(2.94) 순으로 나타남
- (자녀 연령대) 보호자는 중고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2.98), 성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2.97), 초등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2.96)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 아동은 읍면지역(2.87)이 동지역(2.8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호자는 동지역(2.97)이 읍면지역(2.9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과 보호자 모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한 경우(아동:2.87, 보호자:2.98), 이수하지 않았거나 모르는 경우 보다 아동학대 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권리교육) 아동과 보호자 모두 아동권리교육을 이수한 경우(아동:2.87, 보호자:2.98), 이수하지 않았거나 모르는 경우 보다 아동학대 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모교육) 보호자는 부모교육을 이수한 경우(2.97)가 이수하지 않았거나(2.96) 이수 여부를 모르는 경우(2.91) 보다 아동학대 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성별 아동학대 유형별 인식도: 방임

- (성별) 아동(여:2.59 > 남:2.57)과 보호자(여:2.83 > 남:2.71)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인식도를 보임
- (연령별) 아동은 나이가 적을수록(4학년:2.62 > 5학년:2.59 > 6학년: 2.53)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호자는 나이가 많을수록(50세이상:2.86 > 45세~49세:2.85 > 40세~44세:2.82 > 39세이하:2.81) 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녀수) 보호자는 자녀수가 2명인 경우 2.83, 3명 이상인 경우 2.82, 1명인 경우 2.80 순으로 나타남
- (자녀성별) 보호자는 자녀가 아들과 딸 모두 있는 경우(2.85), 아들만 있는 경우(2.80), 딸만 있는 경우(2.79) 순으로 나타남
- (자녀 연령대) 보호자는 성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2.88),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2.83), 중고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2.80)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 아동은 읍면지역(2.61)이 동지역(2.57)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호자는 동지역(2.82)이 읍면지역(2.81)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과 보호자 모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한 경우(아동:2.60, 보호자:2.85), 이수하지 않았거나 모르는 경우 보다 아동학대 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권리교육) 아동과 보호자 모두 아동권리교육을 이수한 경우(아동:2.61, 보호자:2.87), 이수하지 않았거나 모르는 경우 보다 아동학대 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모교육) 보호자는 부모교육을 이수한 경우(2.84)가 이수하지 않았거나(2.81) 이수 여부를 모르는 경우(2.72) 보다 아동학대 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7〉 아동학대 유형별 인식(아동)

구분		사례수	전체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7,960	2.63	.269	2.82	.256	2.38	.393	2.85	.273	2.58	.354
성별	여자	3,826	2.64	.258	2.83	.244	2.39	.388	2.88	.243	2.59	.342
	남자	4,078	2.61	.278	2.80	.266	2.36	.397	2.83	.297	2.57	.364
	t	-	5.427***		5.576***		3.470**		8.529***		2.743**	
학년	4학년	2,610	2.64	.279	2.80	.275	2.41	.388	2.84	.285	2.62	.351
	5학년	2,657	2.64	.262	2.83	.243	2.38	.390	2.86	.265	2.59	.346
	6학년	2,686	2.60	.265	2.82	.248	2.34	.398	2.86	.269	2.53	.360
	F (schffe)	-	15.404*** (a,b,c)		8.518*** (a,b)		18.565*** (a,b,c)		5.004** (a,b)		46.117*** (a,b,c)	
거주 지역	읍면지역	1,310	2.66	.257	2.84	.244	2.43	.383	2.87	.253	2.61	.342
	동지역	6,563	2.62	.270	2.81	.256	2.37	.394	2.85	.276	2.57	.356
	t	-	4.579***		3.273**		4.806***		1.917		3.780***	
아동학대 예방교육	받았음	5,527	2.65	.262	2.83	.248	2.40	.388	2.87	.258	2.60	.345
	안받았음	455	2.56	.306	2.76	.305	2.30	.429	2.79	.336	2.51	.404
	모르겠음	1,934	2.59	.274	2.80	.263	2.32	.390	2.82	.294	2.53	.362
	F (schffe)	-	49.131*** (a,c)b		24.391*** (a,c)b		38.849*** (a,b,c)		26.849*** (a,c)b		37.704*** (a,b,c)	
아동 권리교육	받았음	4,221	2.66	.257	2.84	.242	2.42	.382	2.87	.253	2.61	.338
	안받았음	517	2.57	.304	2.75	.314	2.32	.425	2.80	.324	2.51	.402
	모르겠음	3,162	2.60	.274	2.80	.261	2.34	.396	2.83	.287	2.54	.362
	F (schffe)	-	59.798*** (a,c)b		41.705*** (a,c)b		45.532*** (a,b,c)		25.318*** (a,b,c)		45.289*** (a,b,c)	

*p<.05, **p<.01, ***p<.001

주) 결측값에 따라 합계가 다를 수 있음

〈표 3-8〉 아동학대 유형별 인식(보호자)

구분	사례수	전체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622	2.81	.193	2.94	.123	2.60	.358	2.96	.123	2.82	.259
성별	여자	566	2.82	.179	2.95	.108	2.61	.351	2.9697	.10686	2.8348	.235
	남자	56	2.72	.286	2.89	.220	2.47	.413	2.9018	.21968	2.7165	.420
	t	-	3.728***		3.393**		2.737**		3.999***		3.291***	
연령대	39세이하	83	2.78	.194	2.92	.138	2.55	.368	2.96	.107	2.81	.225
	40~44세	297	2.80	.190	2.94	.116	2.58	.363	2.96	.133	2.82	.259
	45세~49세	184	2.84	.172	2.96	.094	2.65	.335	2.98	.067	2.85	.250
	50세이상	48	2.84	.166	2.96	.133	2.63	.335	2.98	.056	2.86	.208
	F (schffe)	-	2.287		1.894		2.176		1.314		1.018	
재취수	1명	117	2.81	.212	2.95	.146	2.61	.361	2.95	.179	2.80	.269
	2명	358	2.81	.187	2.94	.120	2.60	.357	2.97	.100	2.83	.258
	3명이상	147	2.80	.191	2.94	.111	2.57	.362	2.97	.117	2.82	.251
	F (schffe)	-	.159		.139		.376		1.281		.439	
자녀 성별	딸만있음	104	2.80	.201	2.94	.136	2.58	.365	2.97	.091	2.79	.282
	아들만있음	137	2.80	.219	2.94	.141	2.59	.366	2.94	.194	2.80	.294
	아들딸있음	225	2.81	.175	2.95	.112	2.58	.355	2.97	.089	2.85	.220
	F (schffe)	-	.384		.102		.013		2.838		1.964	
자녀 연령대	초등생이하	375	2.81	.184	2.95	.120	2.60	.345	2.96	.135	2.83	.239
	중고생이하	175	2.80	.209	2.93	.128	2.58	.389	2.98	.080	2.80	.299
	성인이하	51	2.85	.175	2.97	.096	2.66	.349	2.97	.107	2.88	.211
	F (schffe)	-	1.653		2.018		1.079		1.103		2.120	
거주 지역	읍면지역	69	2.78	.229	2.93	.169	2.57	.353	2.93	.191	2.81	.291
	동지역	478	2.81	.190	2.94	.120	2.59	.359	2.97	.105	2.82	.261
	t	-	-.911		-.851		-.581		-2.612**		-.416	
아동학대 예방교육	받았음	290	2.83	.173	2.96	.101	2.64	.342	2.98	.072	2.85	.223
	안받았음	297	2.78	.212	2.93	.143	2.56	.377	2.95	.160	2.80	.287
	모르겠음	35	2.82	.149	2.95	.087	2.61	.291	2.98	.054	2.82	.267
	F (schffe)	-	4.981**(a,b)		4.355*(a,b)		3.707*(a,b)		4.422*(a,b)		2.528	
아동 권리교육	받았음	226	2.85	.170	2.96	.096	2.67	.339	2.98	.074	2.87	.221
	안받았음	338	2.78	.206	2.93	.137	2.55	.373	2.95	.151	2.80	.282
	모르겠음	58	2.81	.164	2.94	.115	2.60	.300	2.97	.071	2.81	.230
	F (schffe)	-	8.923*** (a,b)		5.561** (a,b)		7.571** (a,b)		3.604* (a,b)		5.387** (a,b)	
부모교육	받았음	366	2.83	.172	2.95	.109	2.63	.336	2.97	.098	2.84	.226
	안받았음	230	2.79	.197	2.94	.117	2.56	.376	2.96	.129	2.81	.279
	모르겠음	26	2.72	.344	2.85	.258	2.52	.458	2.91	.276	2.72	.436
	F (schffe)	-	4.802** (a,c)		8.913*** (a,b,c)		3.326* (a,c)		2.992		3.291* (a,c)	

*p<.05, **p<.01, ***p<.001

주) 결측값에 따라 합계가 다를 수 있음


3)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인식

■ 종합

- 아동과 보호자 모두 신체학대 관련 개념 키워드가 다수를 차지하였음

■ 아동


- 아동들이 응답한 아동학대 개념 키워드에는 ‘때리기’(2,183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괴롭’(1,012건), ‘폭력’(670건), ‘싫은’(654건), ‘학대’(64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란 폭력, 성폭력, 욕설, 협박 등 때리거나 강제로 무언가를 시키는 것 • 어린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때리는 것 • 아동을 무시, 학대 등 말도 안되는 짓을 하는 것 • 아동에게 정서적 불안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고 아동을 관리하지 않는 것 •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불법행위, 아동의 아픔을 돕지 않는 것, 아동의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 아동학대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다 • 어린이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주지 않는것
[워드클라우드]	[주요응답내용]

〈그림 3-9〉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인식(아동)

■ 보호자

- 보호자들이 응답한 아동학대 개념 키워드에는 ‘신체’(164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정신’(131건), ‘학대’(88건), ‘폭력’(85건), ‘행위’(8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들에 의사를 물어보지않고 행동하는 모든 행위 • 아이의 감정이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어른들의 일방적인 행동이나 감정을 아이에게 표출하는 것 • 신체적은 물론 정신까지 아프게 하는 것 •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하지않고 강압적인태도를 보이는 것 • 아동이 원하지 않는걸 강요하거나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다루는 것 • 행복하게 살 권리를 무너트리는 것 •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지 않는 모든 말과 행동들 • 한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것
[워드클라우드]	[주요응답내용]

〈그림 3-10〉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인식(보호자)

〈표 3-9〉 아동학대 개념 인식 키워드(아동)

응답순위	키워드	응답빈도	응답비율	응답순위	키워드	응답빈도	응답비율
1	때리기	2183	14.2	31	가해	97	0.6
2	괴롭	1012	6.6	32	가두는	96	0.6
3	폭력	670	4.4	33	원하지않는	95	0.6
4	싫은	654	4.3	34	권리	86	0.6
5	학대	648	4.2	35	느끼는	80	0.5
6	행동	542	3.5	36	무섭	80	0.5
7	정신	430	2.8	37	인권	77	0.5
8	육설	354	2.3	38	안되는	76	0.5
9	신체	343	2.2	39	무시	72	0.5
10	위협	330	2.2	40	폭행	71	0.5
11	힘들게	288	1.9	41	다치게	70	0.5
12	방치	284	1.9	42	악착주	67	0.4
13	피해	258	1.7	43	육체	66	0.4
14	나쁜	226	1.5	44	제공	66	0.4
15	불안	225	1.5	45	심리	64	0.4
16	상처	208	1.4	46	이유	61	0.4
17	협박	167	1.1	47	주고	60	0.4
18	말로	155	1.0	48	계속	59	0.4
19	강제	152	1.0	49	만지는	55	0.4
20	심하게	151	1.0	50	못하게	55	0.4
21	몸	149	1.0	51	강요	50	0.3
22	아픔	149	1.0	52	물건	50	0.3
23	사람	145	0.9	53	참해	48	0.3
24	고통	133	0.9	54	감정	47	0.3
25	관심	129	0.8	55	정서	46	0.3
26	마음	128	0.8	56	조성	43	0.3
27	언어	116	0.8	57	가족	40	0.3
28	위험	113	0.7	58	도구	40	0.3
29	행위	110	0.7	59	밥	40	0.3
30	입하는	103	0.7	60	주거	40	0.3

주) 키워드 상위 60개만 추출하여 제시함

〈표 3-10〉 아동학대 개념 인식 키워드(보호자)

응답순위	키워드	응답빈도	응답비율	응답순위	키워드	응답빈도	응답비율
1	신체	164	6.8	31	괴롭	18	0.1
2	정신	131	5.4	32	물리적	18	0.1
3	학대	88	3.6	33	심리	18	0.1
4	폭력	85	3.5	34	의사	18	0.1
5	행위	83	3.4	35	말	17	0.1
6	정서	76	3.1	36	권리	16	0.1
7	행동	63	2.6	37	상황	16	0.1
8	언어	50	2.1	38	인권	16	0.1
9	느끼게	44	1.8	39	자유	16	0.1
10	방치	43	1.8	40	폭행	16	0.1
11	불안	42	0.3	41	욕설	15	0.1
12	가하는	40	0.3	42	강요	14	0.1
13	관심	37	0.2	43	돌보지않는	14	0.1
14	기본	37	0.2	44	몸	14	0.1
15	육체	33	0.2	45	무서움	13	0.1
16	방임	31	0.2	46	필요	13	0.1
17	인격	31	0.2	47	불편	12	0.1
18	못하게	30	0.2	48	사랑	12	0.1
19	무시	27	0.2	49	소유물	12	0.1
20	힘들게	27	0.2	50	의견	12	0.1
21	고통	25	0.2	51	아픔	11	0.1
22	때리기	25	0.2	52	원하지않는	11	0.1
23	마음	24	0.2	53	인간	11	0.1
24	보호	24	0.2	54	훈육	11	0.1
25	위협	23	0.2	55	싫어하는	10	0.1
26	존중	23	0.2	56	위해	10	0.1
27	감정	20	0.1	57	폭언	10	0.1
28	의식주	20	0.1	58	해치는	10	0.1
29	상처	19	0.1	59	환경	10	0.1
30	제공	19	0.1	60	두려움	9	0.1

주) 키워드 상위 60개만 추출하여 제시함

4) 주변에 학대피해아동 여부

■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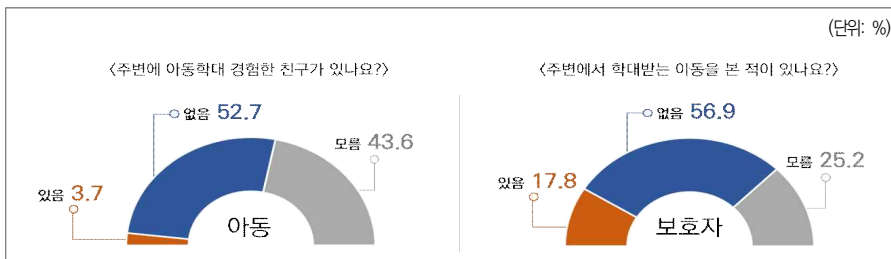
- 아동과 보호자들은 주변에서 적어도 10명 중 1명 정도의 학대피해아동을 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주변의 아동들이 아동학대를 경험하고 있는지 여부를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비교적 높게(아동: 43.6%, 보호자: 25.2%) 나타남. 즉 이웃이나 친구에 대한 관심도나 민감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아동

- 아동들에게 주변에 아동학대를 경험한 친구나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을 때,
 - 있다고 응답한 경우: 10명 중 0.3명(3.7%)
 - 없다고 응답한 경우: 10명 중 5.2명(52.7%)
 -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 10명 중 4.3명(43.6%)

■ 보호자

- 보호자들에게 주변에서 학대받는 아동을 본 적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을 때,
 - 있다고 응답한 경우: 10명 중 1.7명(17.8%)
 - 없다고 응답한 경우: 10명 중 5.6명(56.9%)
 -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 10명 중 2.5명(25.2%)



〈그림 3-11〉 주변에 학대피해아동 여부(아동/보호자)

〈표 3-11〉 주변에 학대피해아동 여부(아동)

구분		있음		없음		모르겠음		합계(명)	χ^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체		277	(3.7)	3,986	(52.7)	3,300	(43.6)	7,563	-
성별	여자	125	(3.4)	2,066	(56.1)	1,493	(40.5)	3,684	32.439***
	남자	149	(3.9)	1,894	(49.5)	1,782	(46.6)	3,825	
학년	4학년	100	(4.0)	1,302	(52.6)	1,074	(43.4)	2,476	4.343
	5학년	89	(3.5)	1,354	(53.9)	1,071	(42.6)	2,514	
	6학년	87	(3.4)	1,327	(51.7)	1,153	(44.9)	2,567	
거주 지역	읍면지역	51	(4.1)	666	(53.5)	527	(42.4)	1,244	1.529
	동지역	223	(3.6)	3,276	(52.5)	2,737	(43.9)	6,236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받았음	182	(3.4)	2,833	(53.6)	2,267	(42.9)	5,282	22.129***
	안받았음	22	(5.2)	245	(58.1)	155	(36.7)	422	
	모르겠음	71	(3.9)	893	(49.0)	860	(47.1)	1,824	
아동 권리 교육	받았음	131	(3.2)	2,220	(55.0)	1,688	(41.8)	4,039	56.623***
	안받았음	41	(8.6)	249	(52.5)	184	(38.8)	474	
	모르겠음	103	(3.4)	1,491	(49.7)	1,407	(46.9)	3,001	

*p<.05, **p<.01, ***p<.001

주) 결측값에 따라 합계가 다를 수 있음

〈표 3-12〉 주변에 학대피해아동 여부(보호자)

구분		있음		없음		모르겠음		합계(명)	χ^2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체		111	(17.8)	354	(56.9)	157	(25.2)	622	-
성별	여자	105	(18.6)	319	(56.4)	142	(25.1)	566	2.149
	남자	6	(10.7)	35	(62.5)	15	(26.8)	56	
연령대	39세이하	13	(15.7)	54	(65.1)	16	(19.3)	83	8.827
	40~44세	45	(15.2)	168	(56.6)	84	(28.3)	297	
	45세~49세	38	(20.7)	105	(57.1)	41	(22.3)	184	
	50세이상	12	(25.0)	22	(45.8)	14	(29.2)	48	
자녀수	1명	21	(17.9)	73	(62.4)	23	(19.7)	117	4.385
	2명	59	(16.5)	205	(57.3)	94	(26.3)	358	
	3명이상	31	(21.1)	76	(51.7)	40	(27.2)	147	
자녀 성별	딸만있음	15	(14.4)	65	(62.5)	24	(23.1)	104	5.105
	아들만있음	24	(17.5)	83	(60.6)	30	(21.9)	137	
	아들딸있음	40	(17.8)	117	(52.0)	68	(30.2)	225	
자녀 연령	초등생이하	61	(16.3)	223	(59.5)	91	(24.3)	375	4.020
	중고생이하	36	(20.6)	96	(54.9)	43	(24.6)	175	
	성인이하	12	(23.5)	24	(47.1)	15	(29.4)	51	
거주 지역	읍면지역	18	(26.1)	36	(52.2)	15	(21.7)	69	3.990
	동지역	78	(16.3)	279	(58.4)	121	(25.3)	478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받았음	64	(22.1)	149	(51.4)	77	(26.6)	290	18.418**
	안받았음	44	(14.8)	189	(63.6)	64	(21.5)	297	
	모르겠음	3	(8.6)	16	(45.7)	16	(45.7)	35	
아동 권리 교육	받았음	48	(21.2)	116	(51.3)	62	(27.4)	226	18.094**
	안받았음	56	(16.6)	212	(62.7)	70	(20.7)	338	
	모르겠음	7	(12.1)	26	(44.8)	25	(43.1)	58	
부모 교육	받았음	75	(20.5)	197	(53.8)	94	(25.7)	366	5.654
	안받았음	33	(14.3)	142	(61.7)	55	(23.9)	230	
	모르겠음	3	(11.5)	15	(57.7)	8	(30.8)	26	

*p<.05, **p<.01, ***p<.001

주) 결측값에 따라 합계가 다를 수 있음

5) 진주시역 내 아동학대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

■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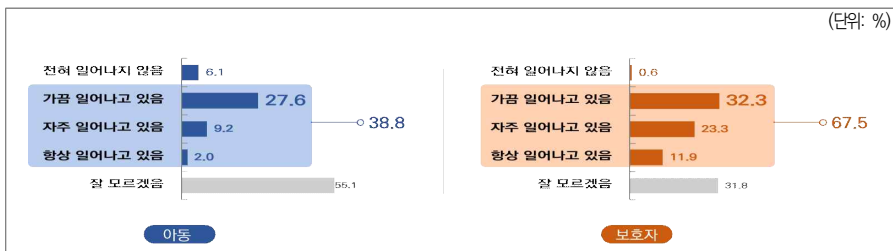
- 진주시역 내 아동학대 발생 빈도에 대해서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적은 반면(아동: 6.1%, 보호자: 0.6%), 응답자들의 다수는 가끔+자주+항상 일어나고 있다고 응답함(아동: 38.8%, 보호자 67.5%)
-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아동

-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10명 중 0.6명(6.1%)
- 가끔 일어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10명 중 2.7명(27.6%)
-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10명 중 0.9명(9.2%)
- 항상 일어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10명 중 0.2명(2.0%)
- 가끔+자주+항상 일어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10명 중 3.8명(38.8%)

■ 보호자

-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10명 중 0.06명(0.6%)
- 가끔 일어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10명 중 3.2명(32.3%)
-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10명 중 2.3명(23.3%)
- 항상 일어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10명 중 1.1명(11.9%)
- 가끔+자주+항상 일어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10명 중 6.7명(67.5%)



〈그림 3-12〉 진주시역 내 아동학대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아동/보호자)

〈표 3-13〉 진주시역 내 아동학대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아동)

구분		전혀 일어나지 않음	가끔 일어나고 있음	자주 일어나고 있음	항상 일어나고 있음	잘 모르겠음	합계	χ^2
전체	빈도(명)	475	2,141	710	156	4,272	7,754	-
	비율(%)	(6.1)	(27.6)	(9.2)	(2.0)	(55.1)	(100.0)	
성별	여자	빈도(명)	194	1,047	354	74	2,081	12.005*
		비율(%)	(5.2)	(27.9)	(9.4)	(2.0)	(55.5)	
	남자	빈도(명)	278	1,077	351	78	2,166	
		비율(%)	(7.0)	(27.3)	(8.9)	(2.0)	(54.8)	
학년	4학년	빈도(명)	175	770	280	66	1,250	89.441***
		비율(%)	(6.9)	(30.3)	(11.0)	(2.6)	(49.2)	
	5학년	빈도(명)	180	718	233	40	1,405	
		비율(%)	(7.0)	(27.9)	(9.0)	(1.6)	(54.5)	
	6학년	빈도(명)	120	652	197	50	1,611	
		비율(%)	(4.6)	(24.8)	(7.5)	(1.9)	(61.3)	
거주지 역	읍면 지역	빈도(명)	98	353	130	20	683	9.754*
		비율(%)	(7.6)	(27.5)	(10.1)	(1.6)	(53.2)	
	동지역	빈도(명)	372	1,757	575	134	3,545	
		비율(%)	(5.8)	(27.5)	(9.0)	(2.1)	(55.5)	
아동학 대예방 교육	받았음	빈도(명)	320	1,556	534	109	2,884	43.793***
		비율(%)	(5.9)	(28.8)	(9.9)	(2.0)	(53.4)	
	안받았음	빈도(명)	40	119	37	7	235	
		비율(%)	(9.1)	(27.2)	(8.4)	(1.6)	(53.7)	
	모르겠음	빈도(명)	110	451	135	39	1,138	
		비율(%)	(5.9)	(24.1)	(7.2)	(2.1)	(60.8)	
아동권 리교육	받았음	빈도(명)	248	1,166	410	81	2,225	30.355***
		비율(%)	(6.0)	(28.2)	(9.9)	(2.0)	(53.9)	
	안받았음	빈도(명)	32	160	54	14	238	
		비율(%)	(6.4)	(32.1)	(10.8)	(2.8)	(47.8)	
	모르겠음	빈도(명)	188	797	240	60	1,784	
		비율(%)	(6.1)	(26.0)	(7.8)	(2.0)	(58.1)	

*p<.05, **p<.01, ***p<.001

주) 결측값에 따라 합계가 다를 수 있음

〈표 3-14〉 진주시역 내 아동학대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보호자)

구분		전혀 일어나지 않음	가끔 일어나고 있음	자주 일어나고 있음	항상 일어나고 있음	잘 모르겠음	합계	χ ²
전체	빈도(명)	4	201	145	74	198	622	-
	비율(%)	(0.6)	(32.3)	(23.3)	(11.9)	(31.8)	(100.0)	
성별	여자	빈도(명)	4	182	136	70	174	5.348
		비율(%)	(0.7)	(32.2)	(24.0)	(12.4)	(30.7)	
	남자	빈도(명)	0	19	9	4	24	
		비율(%)	(0.0)	(33.9)	(16.1)	(7.1)	(42.9)	
연령대	39세이하	빈도(명)	1	28	21	5	28	8.075
		비율(%)	(1.2)	(33.7)	(25.3)	(6.0)	(33.7)	
	40~44세	빈도(명)	2	94	63	44	94	
		비율(%)	(0.7)	(31.6)	(21.2)	(14.8)	(31.6)	
	45세~49세	빈도(명)	1	59	49	18	57	
		비율(%)	(0.5)	(32.1)	(26.6)	(9.8)	(31.0)	
	50세이상	빈도(명)	0	15	10	6	17	
		비율(%)	(0.0)	(31.3)	(20.8)	(12.5)	(35.4)	
자녀수	1명	빈도(명)	1	42	24	14	36	3.585
		비율(%)	(0.9)	(35.9)	(20.5)	(12.0)	(30.8)	
	2명	빈도(명)	2	118	82	45	111	
		비율(%)	(0.6)	(33.0)	(22.9)	(12.6)	(31.0)	
	3명이상	빈도(명)	1	41	39	15	51	
		비율(%)	(0.7)	(27.9)	(26.5)	(10.2)	(34.7)	
자녀 성별	딸만있음	빈도(명)	0	32	20	17	35	7.329
		비율(%)	(0.0)	(30.8)	(19.2)	(16.3)	(33.7)	
	아들만있음	빈도(명)	2	51	29	16	39	
		비율(%)	(1.5)	(37.2)	(21.2)	(11.7)	(28.5)	
	아들딸있음	빈도(명)	2	66	57	24	76	
		비율(%)	(0.9)	(29.3)	(25.3)	(10.7)	(33.8)	
자녀 연령	초등생이하	빈도(명)	2	127	81	44	121	5.784
		비율(%)	(0.5)	(33.9)	(21.6)	(11.7)	(32.3)	
	중고생이하	빈도(명)	1	51	44	22	57	
		비율(%)	(0.6)	(29.1)	(25.1)	(12.6)	(32.6)	
	성인이하	빈도(명)	1	17	16	5	12	
		비율(%)	(2.0)	(33.3)	(31.4)	(9.8)	(23.5)	
거주지 역	읍면지역	빈도(명)	1	23	18	9	18	2.174
		비율(%)	(1.4)	(33.3)	(26.1)	(13.0)	(26.1)	
	동지역	빈도(명)	3	157	109	50	159	
		비율(%)	(0.6)	(32.8)	(22.8)	(10.5)	(33.3)	
아동학 대예방 교육	받았음	빈도(명)	3	101	74	36	76	10.139
		비율(%)	(1.0)	(34.8)	(25.5)	(12.4)	(26.2)	
	안받았음	빈도(명)	1	92	63	33	108	
		비율(%)	(0.3)	(31.0)	(21.2)	(11.1)	(36.4)	
아동권 리교육	받았음	빈도(명)	2	74	61	31	58	10.547
		비율(%)	(0.9)	(32.7)	(27.0)	(13.7)	(25.7)	
	안받았음	빈도(명)	1	105	74	37	121	
		비율(%)	(0.3)	(31.1)	(21.9)	(10.9)	(35.8)	
부모 교육	받았음	빈도(명)	1	22	10	6	19	12.708
		비율(%)	(1.7)	(37.9)	(17.2)	(10.3)	(32.8)	
	안받았음	빈도(명)	4	118	92	49	103	
		비율(%)	(1.1)	(32.2)	(25.1)	(13.4)	(28.1)	
	모르겠음	빈도(명)	0	78	48	22	82	
		비율(%)	(0.0)	(33.9)	(20.9)	(9.6)	(35.7)	
	모르겠음	빈도(명)	0	5	5	3	13	
		비율(%)	(0.0)	(19.2)	(19.2)	(11.5)	(50.0)	

*p<.05, **p<.01, ***p<.001

주) 결측값에 따라 합계가 다를 수 있음

6)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인식

■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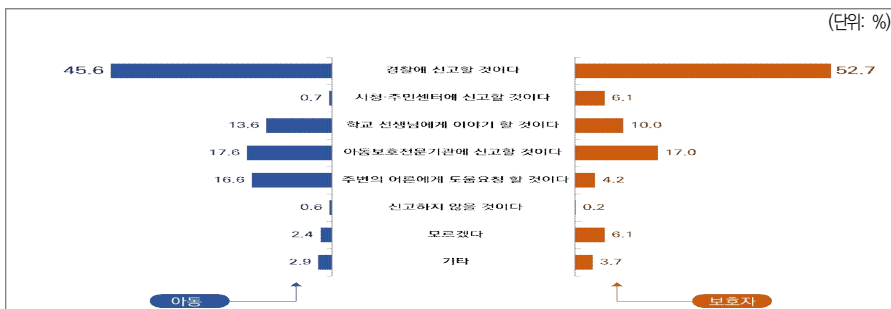
-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아동학대 발견 시 경찰에 신고 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수를 차지함(아동: 45.6%, 보호자: 52.7%)
- 아동의 경우 주변의 어른이나 학교 선생님을 주요 의논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에게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신뢰감을 주는 것이 중요함
- 아동학대 개입의 공공화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통한 신고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

- 아동들에게 주변에서 아동학대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을 때,
 -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0명 중 4.5명(45.6%)으로 가장 높았음
 - 이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17.6%), 주변의 어른에게 도움 요청(16.6%), 학교 선생님에게 이야기(1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시청·주민센터와 같은 관공서 신고는 0.7%에 그침

■ 보호자

- 보호자들에게 주변에서 아동학대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을 때,
 -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0명 중 5.2명(52.7%)으로 가장 높았음
 - 이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17.0%), 학교 선생님에게 이야기(10.0%), 주변의 어른에게 도움 요청(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시청·주민센터와 같은 관공서 신고는 6.1%로 나타남



〈그림 3-13〉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인식(아동/보호자)

〈표 3-15〉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인식(아동)

구분		경찰 신고	시장, 주민센터 신고	학교 선생님에게 이야기	아보전 신고	주변어른 도움요청	신고하지 않을것	모르 겠음	기타	총계	χ^2
전체	빈도(명)	3,544	51	1,058	1,367	1,290	48	189	227	7,774	-
	비율(%)	(45.6)	(0.7)	(13.6)	(17.6)	(16.6)	(0.6)	(2.4)	(2.9)	(100.0)	
성별	여자	빈도(명)	1,527	12	531	703	773	17	83	3,757	135.410 ***
		비율(%)	(40.6)	(0.3)	(14.1)	(18.7)	(20.6)	(0.5)	(2.2)	(100.0)	
	남자	빈도(명)	1,995	39	517	657	506	31	106	3,964	
		비율(%)	(50.3)	(1.0)	(13.0)	(16.6)	(12.8)	(0.8)	(2.7)	(100.0)	
학년	4학년	빈도(명)	1,109	20	335	532	429	11	32	2,551	70.573 ***
		비율(%)	(43.5)	(0.8)	(13.1)	(20.9)	(16.8)	(0.4)	(1.3)	(100.0)	
	5학년	빈도(명)	1,210	17	367	413	435	15	57	2,581	
		비율(%)	(46.9)	(0.7)	(14.2)	(16.0)	(16.9)	(0.6)	(2.2)	(100.0)	
	6학년	빈도(명)	1,222	14	355	420	426	22	100	2,635	
		비율(%)	(46.4)	(0.5)	(13.5)	(15.9)	(16.2)	(0.8)	(3.8)	(100.0)	
거주지 역	읍면 지역	빈도(명)	604	8	193	223	193	5	20	1,283	10.705
		비율(%)	(47.1)	(0.6)	(15.0)	(17.4)	(15.0)	(0.4)	(1.6)	(100.0)	
	동지역	빈도(명)	2,900	43	857	1,136	1,078	41	164	6,405	
		비율(%)	(45.3)	(0.7)	(13.4)	(17.7)	(16.8)	(0.6)	(2.6)	(100.0)	
아동학 대예방 교육	받았음	빈도(명)	2,434	36	795	952	908	30	100	5,411	52.641 ***
		비율(%)	(45.0)	(0.7)	(14.7)	(17.6)	(16.8)	(0.6)	(1.8)	(100.0)	
	안받았음	빈도(명)	220	4	48	74	63	6	17	442	
		비율(%)	(49.8)	(0.9)	(10.9)	(16.7)	(14.3)	(1.4)	(3.8)	(100.0)	
	모르겠음	빈도(명)	871	11	205	332	317	12	71	1,879	
		비율(%)	(46.4)	(0.6)	(10.9)	(17.7)	(16.9)	(0.6)	(3.8)	(100.0)	
아동권 리교육	받았음	빈도(명)	1,890	29	644	714	658	25	69	4,140	60.941 ***
		비율(%)	(45.7)	(0.7)	(15.6)	(17.2)	(15.9)	(0.6)	(1.7)	(100.0)	
	안받았음	빈도(명)	233	3	56	92	74	7	18	499	
		비율(%)	(46.7)	(0.6)	(11.2)	(18.4)	(14.8)	(1.4)	(3.6)	(100.0)	
	모르겠음	빈도(명)	1,396	19	348	546	554	16	100	3,078	
		비율(%)	(45.4)	(0.6)	(11.3)	(17.7)	(18.0)	(0.5)	(3.2)	(100.0)	

주) 결측값에 따라 합계가 다를 수 있음

〈표 3-16〉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인식(보호자)

구분		경찰 신고	사청 주민센터 신고	학교 선생님에게 이야기	아보전 신고	주변어른 도움요청	신고하지 않을것	모르겠음	기타	총계	χ^2
전체	빈도(명)	328	38	62	106	26	1	38	23	622	-
	비율(%)	(52.7)	(6.1)	(10.0)	(17.0)	(4.2)	(0.2)	(6.1)	(3.7)	(100.0)	
성별	여자	빈도(명)	301	36	50	101	23	0	35	566	22.200
	비율(%)	(53.2)	(6.4)	(8.8)	(17.8)	(4.1)	(0.0)	(6.2)	(3.5)	(100.0)	
	남자	빈도(명)	27	2	12	5	3	1	3	56	**
	비율(%)	(48.2)	(3.6)	(21.4)	(8.9)	(5.4)	(1.8)	(5.4)	(5.4)	(100.0)	
연령대	39세이하	빈도(명)	44	4	12	13	3	0	4	83	22.979
	비율(%)	(53.0)	(4.8)	(14.5)	(15.7)	(3.6)	(0.0)	(4.8)	(3.6)	(100.0)	
	40~44세	빈도(명)	164	15	26	45	7	1	25	297	
	비율(%)	(55.2)	(5.1)	(8.8)	(15.2)	(2.4)	(0.3)	(8.4)	(4.7)	(100.0)	
	45세~49세	빈도(명)	90	13	16	37	14	0	8	184	
	비율(%)	(48.9)	(7.1)	(8.7)	(20.1)	(7.6)	(0.0)	(4.3)	(3.3)	(100.0)	
	50세이상	빈도(명)	26	4	5	10	2	0	1	48	5.229
	비율(%)	(54.2)	(8.3)	(10.4)	(20.8)	(4.2)	(0.0)	(2.1)	(0.0)	(100.0)	
	1명	빈도(명)	62	6	9	21	7	0	7	117	
	비율(%)	(53.0)	(5.1)	(7.7)	(17.9)	(6.0)	(0.0)	(6.0)	(4.3)	(100.0)	
	2명	빈도(명)	191	22	35	61	15	1	22	358	
	비율(%)	(53.4)	(6.1)	(9.8)	(17.0)	(4.2)	(0.3)	(6.1)	(3.1)	(100.0)	
자녀 수	3명이상	빈도(명)	75	10	18	24	4	0	9	147	16.638
	비율(%)	(51.0)	(6.8)	(12.2)	(16.3)	(2.7)	(0.0)	(6.1)	(4.8)	(100.0)	
	딸만있음	빈도(명)	57	8	8	14	3	1	7	104	
	비율(%)	(54.8)	(7.7)	(7.7)	(13.5)	(2.9)	(1.0)	(6.7)	(5.8)	(100.0)	
	아들만있음	빈도(명)	72	9	15	16	7	0	13	137	
	비율(%)	(52.6)	(6.6)	(10.9)	(11.7)	(5.1)	(0.0)	(9.5)	(3.6)	(100.0)	
자녀 성별	아들딸있음	빈도(명)	119	8	28	43	10	0	10	225	6.639
	비율(%)	(52.9)	(3.6)	(12.4)	(19.1)	(4.4)	(0.0)	(4.4)	(3.1)	(100.0)	
	초등생이하	빈도(명)	194	23	41	62	16	1	25	375	
	비율(%)	(51.7)	(6.1)	(10.9)	(16.5)	(4.3)	(0.3)	(6.7)	(3.5)	(100.0)	
	중고생이하	빈도(명)	97	11	12	31	6	0	12	175	
	비율(%)	(55.4)	(6.3)	(6.9)	(17.7)	(3.4)	(0.0)	(6.9)	(3.4)	(100.0)	
자녀 연령	성인이하	빈도(명)	25	4	5	11	2	0	1	51	4.236
	비율(%)	(49.0)	(7.8)	(9.8)	(21.6)	(3.9)	(0.0)	(2.0)	(5.9)	(100.0)	
	읍면지역	빈도(명)	35	6	9	14	2	0	2	69	
	비율(%)	(50.7)	(8.7)	(13.0)	(20.3)	(2.9)	(0.0)	(2.9)	(1.4)	(100.0)	
	동지역	빈도(명)	245	29	50	81	23	0	31	478	
	비율(%)	(51.3)	(6.1)	(10.5)	(16.9)	(4.8)	(0.0)	(6.5)	(4.0)	(100.0)	
가주지역	받았음	빈도(명)	154	12	29	54	14	1	13	290	19.377
	비율(%)	(53.1)	(4.1)	(10.0)	(18.6)	(4.8)	(0.3)	(4.5)	(4.5)	(100.0)	
	아동학대 예방교육	빈도(명)	159	22	27	49	12	0	21	297	
	비율(%)	(53.5)	(7.4)	(9.1)	(16.5)	(4.0)	(0.0)	(7.1)	(2.4)	(100.0)	
	모르겠음	빈도(명)	15	4	6	3	0	0	4	35	
	비율(%)	(42.9)	(11.4)	(17.1)	(8.6)	(0.0)	(0.0)	(11.4)	(8.6)	(100.0)	
아동권리 교육	받았음	빈도(명)	122	11	26	38	6	0	10	226	19.595
	비율(%)	(54.0)	(4.9)	(11.5)	(16.8)	(2.7)	(0.0)	(4.4)	(5.8)	(100.0)	
	아동권리 교육	빈도(명)	180	24	27	57	19	1	24	338	
	비율(%)	(53.3)	(7.1)	(8.0)	(16.9)	(5.6)	(0.3)	(7.1)	(1.8)	(100.0)	
	모르겠음	빈도(명)	26	3	9	11	1	0	4	58	
	비율(%)	(44.8)	(5.2)	(15.5)	(19.0)	(1.7)	(0.0)	(6.9)	(6.9)	(100.0)	
부모 교육	받았음	빈도(명)	188	19	37	72	15	1	18	366	19.296
	비율(%)	(51.4)	(5.2)	(10.1)	(19.7)	(4.1)	(0.3)	(4.9)	(4.4)	(100.0)	
	부모 교육	빈도(명)	125	18	24	33	9	0	15	230	
	비율(%)	(54.3)	(7.8)	(10.4)	(14.3)	(3.9)	(0.0)	(6.5)	(2.6)	(100.0)	
	모르겠음	빈도(명)	15	1	1	1	2	0	5	26	
	비율(%)	(57.7)	(3.8)	(3.8)	(3.8)	(7.7)	(0.0)	(19.2)	(3.8)	(100.0)	

주) 결측값에 따라 합계가 다를 수 있음

7) 보호자들이 생각하는 아동학대 예방대책

- 보호자들은 아동학대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자유기술 문항에 응답한 801개의 응답결과를 주제어에 따라 범주를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 54개의 하위범주와 5개의 범주로 분류되었음
- (범주1: 가족기능강화) 가족 구성원간의 긍정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책임감 있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범주2: 아동 존중과 이해) 아동에 대한 관심과 배려, 공감과 이해 등 있는 그대로의 아동, 지금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줄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이 필요함
- (범주3: 교육활성화)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의 효과적 추진 필요함
- (범주4: 지원체계 강화) 가족기능 강화와 더불어 아동을 둘러싼 각종 사회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범주5: 제도적 개선과 강화)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개입, 사회적 개입을 강화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한 사회진단과 대책마련이 필요함



〈그림 3-14〉 아동학대 예방대책 제안사항(보호자)

〈표 3-17〉 아동학대 예방대책 제안사항(보호자)

범주 (5개)	하위범주 (54개)	주요 응답내용 (801개)
가족기능강화	가족분위기개선 가족상담 가족프로그램 경제적지원 부모상담 부모의정서관리 부모자녀관계개선 소통방안개선 아동상담 아동프로그램 양육환경개선 책임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학대 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자각 할수있도록 전 부모를 상대로 국가에서 심리검사를 받을수있도록 지원사업을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 어린 자녀라고해도 인격을 존중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될것 같습니다 • 아동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고 소통을 자주해야된다고 봅니다 •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수 있는 환경들을 더 좋게 만들면 더 좋을꺼 라 생각합니다, • 부모님들의 스트레스나 안좋은 감정을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지말고 스스로 잘 다스릴줄 알아야 한다,
교육 활성화	가정교육 교육매체개발 교육의무화 교직원교육 부모교육 아동교육 아동학대에방교육 인성교육 정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가정교육 • 부모교육의 의무화 • 부모가 되기 위한 부모교육을 미리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주기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 부모교육 및 정서교육 • 무조건 법으로 잡근하기 보다는 교육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인식개 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성인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주기적인 교육 및 평가 시스템
아동 존중과 이해	경청 공감 관심 기다림 마음가짐 믿음 배려 사랑 사회적관심 아동이해 아동존중 인간존중 인식개선 존중 체벌금지 캠페인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 • 공감하고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준다, • 주위 어른들의 관심 • 어른(부모)들의 사랑과 관심이 첫 번째이고, 두번째는 주위의 관심 입니다, • 폭력을 근절하고 믿고 사랑한다, •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한다, • 무관심이 아닌 적절한 관심으로 주위를 살펴 본다, • 항상 주변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이해하기위해 노력해야한다 •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라는것을 인지하는 것 • 어른들의 생각의 개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실제로 가정에서 온하게 일어나는 일상언어나 부모의 행동(강요,잔 소리,무시,아동권리 침해 등)을 담아서 아이것도 아동 학대 구나 하 고 보호자 가 느낄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도적 개선과 강화	국가개입강화 모니터링활성화 분리보호강화 신고활성화 아동학대개념정립 재발방지 정기실태조사 제도개선 처벌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한 법체계 마련 • 학대받은 아동에게 필요한 최대한의 보호와 처우 개선 • 학대아동의 철저한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알람서비스 시스템 마련 • 사회적 제도 마련과 강력한 법적 조치 •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
지원체계강화	돌봄서비스확충 방과후활동 확대 사회적지원 아동복지 확대 조력자만들기 학교의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센터 및 부모교육센터 확충 및 운영 시간대 다양화 • 돌봄시설 늘리기, 직장생활하면서 아이돌보는게 버거워서 화도내고 방치도합니다, • 학교에서 선생님의 관심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아동복지가 더 활성화 되어 아동학대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주) 범주별 주요 응답내용은 일부 응답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하였음

1)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를 내게 되는 주요 상황

- 아동과 보호자 모두 자녀의 거짓말이 화를 내는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함

-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를 내게 되는 상황이라고 응답한 아동들의 인식 키워드에는 ‘거짓말’(811건)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말’(724건), ‘동생’(534건), ‘숙제’(504건), ‘공부’(44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5〉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를 내게 되는 주요 상황(아동)

-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를 내게 되는 상황이라고 응답한 보호자들의 인식 키워드에는 ‘거짓말’(132건)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행동’(95건), ‘약속’(90건), ‘지켜야하는’(76건), ‘스마트폰’(7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6〉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를 내게 되는 주요 상황(보호자)

〈표 3-18〉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를 내게 되는 상황 주요 키워드(아동)

응답순위	키워드	응답빈도	응답비율	응답순위	키워드	응답빈도	응답비율
1	거짓말	811	8.6	31	나쁘게	67	0.7
2	말	724	7.7	32	사고친	66	0.7
3	동생	534	5.7	33	대들때	65	0.7
4	숙제	504	5.4	34	누나	52	0.6
5	공부	446	4.7	35	소리	49	0.5
6	싸움	408	4.3	36	어른	49	0.5
7	스마트폰	375	4.0	37	밥	45	0.5
8	부모	326	3.5	38	미루고	44	0.5
9	게임	268	2.8	39	밤	44	0.5
10	학원	211	2.2	40	실수	43	0.5
11	약속	209	2.2	41	장난	43	0.5
12	엄마	202	2.1	42	아빠	41	0.4
13	짜증	186	2.0	43	버릇	38	0.4
14	행동	184	2.0	44	돈	34	0.4
15	지키지않는	176	1.9	45	정리	33	0.4
16	계속	151	1.6	46	학교	33	0.4
17	예의	142	1.5	47	치우지않은	32	0.3
18	집	112	1.2	48	문제	30	0.3
19	욕설	101	1.1	49	안치우고	29	0.3
20	시간	86	0.9	50	말씀	27	0.3
21	친구	86	0.9	51	반항	27	0.3
22	오빠	83	0.9	52	시험	27	0.3
23	물건	81	0.9	53	씻지않으면	24	0.3
24	위험	80	0.9	54	대답	21	0.2
25	방	78	0.8	55	전화	21	0.2
26	언니	77	0.8	56	다치게	20	0.2
27	때리면	73	0.8	57	싫어하는	20	0.2
28	청소	73	0.8	58	잠	20	0.2
29	형제	71	0.8	59	틀리면	20	0.2
30	말대꾸	70	0.7	60	무시	19	0.2

주) 키워드 상위 60개만 추출하여 제시함

〈표 3-19〉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를 내게 되는 상황 주요 키워드(보호자)

응답순위	키워드	응답빈도	응답비율	응답순위	키워드	응답빈도	응답비율
1	거짓말	132	9.8	31	사용	7	0.5
2	행동	95	7.1	32	컴퓨터	7	0.5
3	약속	90	6.7	33	티비	7	0.5
4	지켜야하는	76	5.6	34	대답	6	0.4
5	스마트폰	72	5.3	35	사람	6	0.4
6	하지않는	62	4.6	36	어른	6	0.4
7	말	55	4.1	37	이야기	6	0.4
8	게임	39	2.9	38	자녀에게	6	0.4
9	시간	30	2.2	39	고집	5	0.4
10	예의	30	2.2	40	기본	5	0.4
11	위험	25	1.9	41	동생	5	0.4
12	자기	19	1.4	42	무시	5	0.4
13	숙제	17	1.3	43	본인	5	0.4
14	정한	15	1.1	44	자녀	5	0.4
15	반복	14	1.0	45	종일	5	0.4
16	아이	14	1.0	46	피해	5	0.4
17	계속	13	1.0	47	하루	5	0.4
18	규칙	13	1.0	48	생활	4	0.3
19	부모	13	1.0	49	소리	4	0.3
20	정리	12	0.9	50	언행	4	0.3
21	형제	12	0.9	51	엄마	4	0.3
22	욕설	11	0.8	52	의견	4	0.3
23	싸움	10	0.7	53	자매	4	0.3
24	짜증	10	0.7	54	잠	4	0.3
25	늦게	9	0.7	55	친구	4	0.3
26	자신	9	0.7	56	폭력	4	0.3
27	공부	8	0.6	57	학교	4	0.3
28	미룰때	8	0.6	58	고치지	3	0.2
29	버릇	8	0.6	59	과한	3	0.2
30	어긋나	8	0.6	60	기기	3	0.2

주) 키워드 상위 60개만 추출하여 제시함

2)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났을 때 행동 인식

■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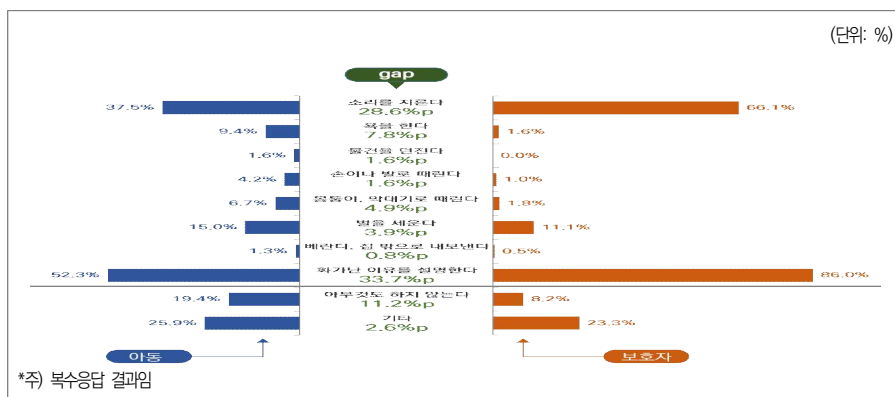
-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났을 때 행동 유형으로, 아동과 보호자 모두 '화가난 이유를 설명한다'(아동:52.3%, 보호자:86.0%)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리를 지른다'(아동:37.5%, 보호자:66.1%), '벌을 세운다'(아동:15.0%, 보호자:11.1%) 등으로 나타남

■ 아동

- 부모님이 화나셨을 때 자신에게 하는 행동 유형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 화가 난 이유를 설명한다: 10명 중 5.2명(52.3%)
 - 소리를 지른다: 10명 중 3.7명(37.5%)
 - 벌을 세운다: 10명 중 1.5명(15.0%)
 - 욕을 한다: 10명 중 0.9명(9.4%)

■ 보호자

- 자녀에게 화났을 때 하는 행동 유형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 화가 난 이유를 설명한다: 10명 중 8.6명(86.0%)
 - 소리를 지른다: 10명 중 6.6명(66.1%)
 - 벌을 세운다: 10명 중 1.1명(11.1%)
 - 몽둥이, 막대기로 때린다: 10명 중 0.1명(1.8%)



〈그림 3-17〉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났을 때 행동 인식(아동/보호자)

〈표 3-20〉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났을 때 행동 인식(아동)

구분		사례수	응답 총계	소리지름	욕을함	물건던짐	손발로 때림	도구로 때림	벌을 세움	밖으로 내보냄	화난이유 설명함	아무것도 하지않음	기타
전체	빈도(명)	7,725	13,388	2,896	727	126	324	517	1,157	97	4,041	1,501	2,002
	비율(%)		(173.3)	(37.5)	(9.4)	(1.6)	(4.2)	(6.7)	(15.0)	(1.3)	(52.3)	(19.4)	(25.9)
성별	여자	3,723	6,471	1,267	307	61	165	209	451	45	2,085	736	1,145
			(173.8)	(34.0)	(8.2)	(1.6)	(4.4)	(5.6)	(12.1)	(1.2)	(56.0)	(19.8)	(30.8)
	남자	3,948	6,820	1,604	411	64	158	303	701	51	1,924	757	847
			(172.7)	(40.6)	(10.4)	(1.6)	(4.0)	(7.7)	(17.8)	(1.3)	(48.7)	(19.2)	(21.5)
학년	4학년	2,533	4,369	910	217	34	104	187	441	32	1,251	481	712
			(172.5)	(35.9)	(8.6)	(1.3)	(4.1)	(7.4)	(17.4)	(1.3)	(49.4)	(19.0)	(28.1)
	5학년	2,567	4,503	951	251	46	124	181	385	30	1,344	508	683
			(175.4)	(37.0)	(9.8)	(1.8)	(4.8)	(7.1)	(15.0)	(1.2)	(52.4)	(19.8)	(26.6)
	6학년	2,618	4,503	1,034	259	46	96	149	328	35	1,440	510	606
			(172.0)	(39.5)	(9.9)	(1.8)	(3.7)	(5.7)	(12.5)	(1.3)	(55.0)	(19.5)	(23.1)
거주지역	읍면 지역	1,269	2,172	462	112	21	46	97	180	21	657	256	320
			(171.2)	(36.4)	(8.8)	(1.7)	(3.6)	(7.6)	(14.2)	(1.7)	(51.8)	(20.2)	(25.2)
	동지역	6,369	11,070	2,403	606	102	274	413	969	76	3,339	1,221	1,667
			(173.8)	(37.7)	(9.5)	(1.6)	(4.3)	(6.5)	(15.2)	(1.2)	(52.4)	(19.2)	(26.2)
아동학대 예방교육	받았음	5,376	9,364	1,997	482	88	214	352	820	69	2,895	1,017	1,430
			(174.2)	(37.1)	(9.0)	(1.6)	(4.0)	(6.5)	(15.3)	(1.3)	(53.9)	(18.9)	(26.6)
	안받았음	444	739	170	51	4	26	34	60	11	204	96	83
			(166.4)	(38.3)	(11.5)	(0.9)	(5.9)	(7.7)	(13.5)	(2.5)	(45.9)	(21.6)	(18.7)
	모르겠음	1,863	3,214	707	193	34	83	130	270	17	919	381	480
			(172.5)	(37.9)	(10.4)	(1.8)	(4.5)	(7.0)	(14.5)	(0.9)	(49.3)	(20.5)	(25.8)
아동권리 교육	받았음	4,115	7,181	1,522	357	73	160	275	642	46	2,249	781	1,076
			(174.5)	(37.0)	(8.7)	(1.8)	(3.9)	(6.7)	(15.6)	(1.1)	(54.7)	(19.0)	(26.1)
	안받았음	498	846	214	56	8	32	38	62	11	229	107	89
			(169.9)	(43.0)	(11.2)	(1.6)	(6.4)	(7.6)	(12.4)	(2.2)	(46.0)	(21.5)	(17.9)
	모르겠음	3,054	5,261	1,134	311	44	131	200	443	40	1,532	601	825
			(172.3)	(37.1)	(10.2)	(1.4)	(4.3)	(6.5)	(14.5)	(1.3)	(50.2)	(19.7)	(27.0)

주) 결측값에 따라 합계가 다를 수 있음

〈표 3-21〉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났을 때 행동 인식(보호자)

구분		사례수	응답총계	소리자름	욕을함	물건던짐	손발로 때림	도구로 때림	벌을 세움	박으로 내보냄	화난이유 설명함	아무것도 하지않음	기타
전체	빈도(명)	622	1,241	411	10	0	6	11	69	3	535	51	145
	비율(%)		(199.5)	(66.1)	(1.6)	(0.0)	(1.0)	(1.8)	(11.1)	(0.5)	(86.0)	(8.2)	(23.3)
성별	여자	566	1,130	374	9	0	6	11	61	2	486	47	134
	비율(%)		(199.6)	(66.1)	(1.6)	(0.0)	(1.1)	(1.9)	(10.8)	(0.4)	(85.9)	(8.3)	(23.7)
	남자	56	111	37	1	0	0	0	8	1	49	4	11
	비율(%)		(198.2)	(66.1)	(1.8)	(0.0)	(0.0)	(0.0)	(14.3)	(1.8)	(87.5)	(7.1)	(19.6)
연령대	39세이하	83	166	59	4	0	5	1	11	1	61	6	18
	비율(%)		(200.0)	(71.1)	(4.8)	(0.0)	(6.0)	(1.2)	(13.3)	(1.2)	(73.5)	(7.2)	(21.7)
	40~44세	297	593	196	2	0	1	8	38	1	258	25	64
	비율(%)		(199.7)	(66.0)	(0.7)	(0.0)	(0.3)	(2.7)	(12.8)	(0.3)	(86.9)	(8.4)	(21.5)
	45세~49세	184	366	122	3	0	0	2	18	1	161	13	46
	비율(%)		(198.9)	(66.3)	(1.6)	(0.0)	(0.0)	(1.1)	(9.8)	(0.5)	(87.5)	(7.1)	(25.0)
	50세이상	48	96	27	1	0	0	0	2	0	45	5	16
	비율(%)		(200.0)	(56.3)	(2.1)	(0.0)	(0.0)	(0.0)	(4.2)	(0.0)	(93.8)	(10.4)	(33.3)
자녀수	1명	117	233	74	2	0	0	1	7	0	101	11	37
	비율(%)		(199.1)	(63.2)	(1.7)	(0.0)	(0.0)	(0.9)	(6.0)	(0.0)	(86.3)	(9.4)	(31.6)
	2명	358	714	232	4	0	5	7	41	2	307	36	80
	비율(%)		(199.4)	(64.8)	(1.1)	(0.0)	(1.4)	(2.0)	(11.5)	(0.6)	(85.8)	(10.1)	(22.3)
	3명이상	147	294	105	4	0	1	3	21	1	127	4	28
	비율(%)		(200.0)	(71.4)	(2.7)	(0.0)	(0.7)	(2.0)	(14.3)	(0.7)	(86.4)	(2.7)	(19.0)
자녀 성별	딸만있음	104	208	70	1	0	1	3	12	0	83	13	25
	비율(%)		(200.0)	(67.3)	(1.0)	(0.0)	(1.0)	(2.9)	(11.5)	(0.0)	(79.8)	(12.5)	(24.0)
	아들만있음	137	272	89	3	0	2	3	15	1	118	14	27
	비율(%)		(198.5)	(65.0)	(2.2)	(0.0)	(1.5)	(2.2)	(10.9)	(0.7)	(86.1)	(10.2)	(19.7)
	아들딸있음	225	450	161	4	0	1	5	16	0	197	15	51
	비율(%)		(200.0)	(71.6)	(1.8)	(0.0)	(0.4)	(2.2)	(7.1)	(0.0)	(87.6)	(6.7)	(22.7)
자녀 연령	초등생이하	375	748	254	4	0	4	6	44	1	324	30	81
	비율(%)		(199.5)	(67.7)	(1.1)	(0.0)	(1.1)	(1.6)	(11.7)	(0.3)	(86.4)	(8.0)	(21.6)
	중고생이하	175	349	108	4	0	2	3	21	2	146	19	44
	비율(%)		(199.4)	(61.7)	(2.3)	(0.0)	(1.1)	(1.7)	(12.0)	(1.1)	(83.4)	(10.9)	(25.1)
	성인이하	51	102	33	1	0	0	0	4	0	49	1	14
	비율(%)		(200.0)	(64.7)	(2.0)	(0.0)	(0.0)	(0.0)	(7.8)	(0.0)	(96.1)	(2.0)	(27.5)
거주지역	읍면지역	69	138	48	1	0	0	0	7	0	59	7	16
	비율(%)		(200.0)	(69.6)	(1.4)	(0.0)	(0.0)	(0.0)	(10.1)	(0.0)	(85.5)	(10.1)	(23.2)
	동지역	478	953	314	7	0	6	10	53	3	410	39	111
	비율(%)		(199.4)	(65.7)	(1.5)	(0.0)	(1.3)	(2.1)	(11.1)	(0.6)	(85.8)	(8.2)	(23.2)
아동학대 예방교육	받았음	290	580	179	3	0	1	2	31	1	256	24	83
	비율(%)		(200.0)	(61.7)	(1.0)	(0.0)	(0.3)	(0.7)	(10.7)	(0.3)	(88.3)	(8.3)	(28.6)
	안받았음	297	592	209	6	0	5	6	33	2	250	25	56
	비율(%)		(199.3)	(70.4)	(2.0)	(0.0)	(1.7)	(2.0)	(11.1)	(0.7)	(84.2)	(8.4)	(18.9)
아동권리 교육	모르겠음	35	69	23	1	0	0	3	5	0	29	2	6
	비율(%)		(197.1)	(65.7)	(2.9)	(0.0)	(0.0)	(8.6)	(14.3)	(0.0)	(82.9)	(5.7)	(17.1)
	받았음	226	452	136	2	0	1	2	23	0	205	20	63
	비율(%)		(200.0)	(60.2)	(0.9)	(0.0)	(0.4)	(0.9)	(10.2)	(0.0)	(90.7)	(8.8)	(27.9)
	안받았음	338	674	237	7	0	5	7	39	3	280	26	70
	비율(%)		(199.4)	(70.1)	(2.1)	(0.0)	(1.5)	(2.1)	(11.5)	(0.9)	(82.8)	(7.7)	(20.7)
	모르겠음	58	115	38	1	0	0	2	7	0	50	5	12
	비율(%)		(198.3)	(65.5)	(1.7)	(0.0)	(0.0)	(3.4)	(12.1)	(0.0)	(86.2)	(8.6)	(20.7)
부모 교육	받았음	366	731	232	5	0	2	4	42	2	320	32	92
	비율(%)		(199.7)	(63.4)	(1.4)	(0.0)	(0.5)	(1.1)	(11.5)	(0.5)	(87.4)	(8.7)	(25.1)
	안받았음	230	460	162	5	0	4	6	24	1	193	17	48
	비율(%)		(200.0)	(70.4)	(2.2)	(0.0)	(1.7)	(2.6)	(10.4)	(0.4)	(83.9)	(7.4)	(20.9)
	모르겠음	26	50	17	0	0	0	1	3	0	22	2	5
	비율(%)		(192.3)	(65.4)	(0.0)	(0.0)	(0.0)	(3.8)	(11.5)	(0.0)	(84.6)	(7.7)	(19.2)

주) 결측값에 따라 합계가 다를 수 있음

〈표 3-22〉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를 냈을 때 기분 상태 키워드(아동)

응답순위	키워드	응답빈도	응답비율	응답순위	키워드	응답빈도	응답비율
1	슬픈	878	13.5	31	더럽	27	0.4
2	속상	789	12.1	32	고치려고	26	0.4
3	짜증	568	8.7	33	노력	24	0.4
4	무서운	530	8.1	34	놀라고	23	0.4
5	나쁜	444	6.8	35	동생	23	0.4
6	미안	280	4.3	36	좌책감	23	0.4
7	반성	262	4.0	37	감사	22	0.3
8	다음에는	158	2.4	38	죽고	22	0.3
9	엄마	156	2.4	39	때리지	21	0.3
10	아픈	102	1.6	40	욕	21	0.3
11	이해	96	1.5	41	이유	20	0.3
12	우울	92	1.4	42	서러움	19	0.3
13	아무렇지	89	1.4	43	당황	18	0.3
14	관찰지않은	85	1.3	44	싸우고	18	0.3
15	힘든	73	1.1	45	다짐	17	0.3
16	불안	65	1.0	46	듣기싫은	17	0.3
17	후회	60	0.9	47	아무것도	17	0.3
18	소리	50	0.8	48	귀찮은	16	0.2
19	설명	49	0.8	49	사과	16	0.2
20	앞으로	48	0.7	50	긴장	15	0.2
21	안해야	47	0.7	51	자신	15	0.2
22	두렵	46	0.7	52	보통	14	0.2
23	인정	44	0.7	53	분노	14	0.2
24	가출	43	0.7	54	한마음	14	0.2
25	아빠	37	0.6	55	걱정	13	0.2
26	미운	34	0.5	56	귀	13	0.2
27	안되겠다고	30	0.5	57	스트레스	13	0.2
28	벌	29	0.4	58	어이없는	13	0.2
29	눈물	28	0.4	59	깨닫는	12	0.2
30	말하고싶지않은	28	0.4	60	혼자	12	0.2

주) 키워드 상위 60개만 추출하여 제시함

〈표 3-23〉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를 냈을 때 기분 상태 키워드(보호자)

응답순위	키워드	응답빈도	응답비율	응답순위	키워드	응답빈도	응답비율
1	후회	92	7.7	31	해결	8	0.7
2	미안	89	7.5	32	눈물	7	0.6
3	속상	81	6.8	33	다음번	7	0.6
4	소리	54	4.5	34	말하지	7	0.6
5	설명	37	3.1	35	방법	7	0.6
6	이야기	34	2.9	36	이유	7	0.6
7	아픈	25	2.1	37	가라앉는	6	0.5
8	행동	24	2.0	38	걱정	6	0.5
9	이해	23	1.9	39	교육	6	0.5
10	불편	22	1.8	40	무겁	6	0.5
11	나쁜	21	1.8	41	자녀	6	0.5
12	대화	21	1.8	42	괜찮	5	0.4
13	조금	19	1.6	43	모습	5	0.4
14	순간	18	1.5	44	심호흡	5	0.4
15	부모	16	1.3	45	알아듣게	5	0.4
16	자신	16	1.3	46	약속	5	0.4
17	죄책감	16	1.3	47	조절	5	0.4
18	반성	14	1.2	48	처음	5	0.4
19	잘못하는	13	1.1	49	풀어지지	5	0.4
20	시간	13	1.1	50	계속	4	0.3
21	힘든	12	1.0	51	과정	4	0.3
22	필요	11	0.9	52	놀라	4	0.3
23	훈육	11	0.9	53	다짐	4	0.3
24	노력	10	0.8	54	받아들이면	4	0.3
25	반복	10	0.8	55	변화	4	0.3
26	사과	10	0.8	56	부분	4	0.3
27	슬픈	9	0.8	57	상황	4	0.3
28	엄마	9	0.8	58	어려운	4	0.3
29	돌아서서	8	0.7	59	올바른	4	0.3
30	미안한마음	8	0.7	60	우울	4	0.3

주) 키워드 상위 60개만 추출하여 제시함

5. 부모님의 ‘부부싸움’에 관한 사항

1) 자녀 앞에서의 부부싸움 여부

■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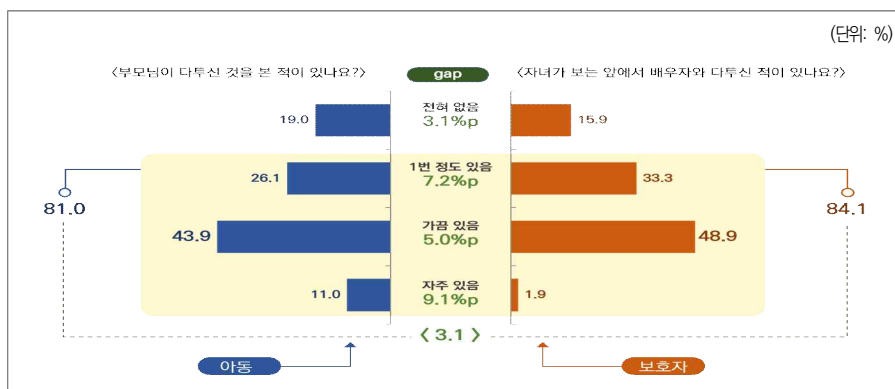
-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서 아동은 10명 중 8.1명, 보호자는 10명 중 8.4명이 적어도 1번 이상 있다고 응답하였음
- 즉, 아동들 10명 중 8명 이상은 부부싸움에 1번 이상 노출된 것으로 확인됨

■ 아동

- 부모님이 다투신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 1번 정도 있다고 응답한 경우: 10명 중 2.6명(26.1%)
 - 가끔 있다고 응답한 경우: 10명 중 4.3명(43.9%)
 - 자주 있다고 응답한 경우: 10명 중 1.1명(11.0%)
 - 1번+가끔+자주 있다고 응답한 경우: 10명 중 8.1명(81.0%)

■ 보호자

- 자녀 앞에서 배우자와 다투신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 1번 정도 있다고 응답한 경우: 10명 중 3.3명(33.3%)
 - 가끔 있다고 응답한 경우: 10명 중 4.8명(48.9%)
 - 자주 있다고 응답한 경우: 10명 중 0.2명(1.9%)
 - 1번+가끔+자주 있다고 응답한 경우: 10명 중 8.4명(84.1%)



〈그림 3-20〉 자녀 앞에서의 부부싸움 여부(아동/보호자)

〈표 3-24〉 자녀 앞에서의 부부싸움 여부(아동)

구분		전혀 본적이 없음	1번 정도 봤음	가끔 봤음	자주 봤음	총계	x ²	
전체		빈도(명)	1,467	2,011	3,380	850	7,708	-
		비율(%)	(19.0)	(26.1)	(43.9)	(11.0)	(100.0)	
성별	여자	빈도(명)	668	994	1,626	430	3,718	7.461
		비율(%)	(18.0)	(26.7)	(43.7)	(11.6)	(100.0)	
	남자	빈도(명)	790	1,004	1,728	414	3,936	
		비율(%)	(20.1)	(25.5)	(43.9)	(10.5)	(100.0)	
학년	4학년	빈도(명)	503	695	1,066	259	2,523	16.437*
		비율(%)	(19.9)	(27.5)	(42.3)	(10.3)	(100.0)	
	5학년	빈도(명)	485	659	1,153	261	2,558	
		비율(%)	(19.0)	(25.8)	(45.1)	(10.2)	(100.0)	
	6학년	빈도(명)	477	656	1,157	330	2,620	
		비율(%)	(18.2)	(25.0)	(44.2)	(12.6)	(100.0)	
거주지역	읍면 지역	빈도(명)	248	329	567	131	1,275	1.086
		비율(%)	(19.5)	(25.8)	(44.5)	(10.3)	(100.0)	
	동지역	빈도(명)	1,203	1,662	2,774	708	6,347	
		비율(%)	(19.0)	(26.2)	(43.7)	(11.2)	(100.0)	
아동학대 예방교육	받았음	빈도(명)	997	1,424	2,377	565	5,363	11.256
		비율(%)	(18.6)	(26.6)	(44.3)	(10.5)	(100.0)	
	안받았음	빈도(명)	101	104	180	56	441	
		비율(%)	(22.9)	(23.6)	(40.8)	(12.7)	(100.0)	
	모르겠음	빈도(명)	355	474	808	225	1,862	
		비율(%)	(19.1)	(25.5)	(43.4)	(12.1)	(100.0)	
아동권리 교육	받았음	빈도(명)	793	1,070	1,814	421	4,098	8.708
		비율(%)	(19.4)	(26.1)	(44.3)	(10.3)	(100.0)	
	안받았음	빈도(명)	104	118	216	61	499	
		비율(%)	(20.8)	(23.6)	(43.3)	(12.2)	(100.0)	
	모르겠음	빈도(명)	554	808	1,329	363	3,054	
		비율(%)	(18.1)	(26.5)	(43.5)	(11.9)	(100.0)	

*p<.05, **p<.01, ***p<.001

주) 결측값에 따라 합계가 다를 수 있음

〈표 3-25〉 자녀 앞에서의 부부싸움 여부(보호자)

구분		전혀 그런적 없다	1번 정도 그랬다	가끔 그런다	자주 그런다	총계	χ^2
전체	빈도(명)	99	207	304	12	622	-
	비율(%)	(15.9)	(33.3)	(48.9)	(1.9)	(100.0)	
성별	여자	빈도(명)	85	190	280	11	3.811
		비율(%)	(15.0)	(33.6)	(49.5)	(1.9)	
	남자	빈도(명)	14	17	24	1	
		비율(%)	(25.0)	(30.4)	(42.9)	(1.8)	
연령대	39세이하	빈도(명)	9	34	39	1	11.139
		비율(%)	(10.8)	(41.0)	(47.0)	(1.2)	
	40~44세	빈도(명)	48	95	151	3	
		비율(%)	(16.2)	(32.0)	(50.8)	(1.0)	
	45세~49세	빈도(명)	36	60	82	6	
		비율(%)	(19.6)	(32.6)	(44.6)	(3.3)	
	50세이상	빈도(명)	5	15	26	2	
		비율(%)	(10.4)	(31.3)	(54.2)	(4.2)	
자녀수	1명	빈도(명)	19	38	56	4	4.338
		비율(%)	(16.2)	(32.5)	(47.9)	(3.4)	
	2명	빈도(명)	62	121	170	5	
		비율(%)	(17.3)	(33.8)	(47.5)	(1.4)	
	3명이상	빈도(명)	18	48	78	3	
		비율(%)	(12.2)	(32.7)	(53.1)	(2.0)	
자녀 성별	딸만있음	빈도(명)	12	35	55	2	4.454
		비율(%)	(11.5)	(33.7)	(52.9)	(1.9)	
	아들만있음	빈도(명)	26	38	71	2	
		비율(%)	(19.0)	(27.7)	(51.8)	(1.5)	
	아들딸있음	빈도(명)	30	78	112	5	
		비율(%)	(13.3)	(34.7)	(49.8)	(2.2)	
자녀 연령	초등생이하	빈도(명)	64	128	175	8	5.822
		비율(%)	(17.1)	(34.1)	(46.7)	(2.1)	
	중고생이하	빈도(명)	29	49	94	3	
		비율(%)	(16.6)	(28.0)	(53.7)	(1.7)	
	성인이하	빈도(명)	4	20	26	1	
		비율(%)	(7.8)	(39.2)	(51.0)	(2.0)	
거주지역	읍면지역	빈도(명)	8	27	33	1	1.915
		비율(%)	(11.6)	(39.1)	(47.8)	(1.4)	
	동지역	빈도(명)	82	158	228	10	
		비율(%)	(17.2)	(33.1)	(47.7)	(2.1)	
아동학대 예발교육	받았음	빈도(명)	44	106	138	2	7.259
		비율(%)	(15.2)	(36.6)	(47.6)	(0.7)	
	안받았음	빈도(명)	50	88	150	9	
		비율(%)	(16.8)	(29.6)	(50.5)	(3.0)	
	모르겠음	빈도(명)	5	13	16	1	
		비율(%)	(14.3)	(37.1)	(45.7)	(2.9)	
아동권리 교육	받았음	빈도(명)	32	84	108	2	6.987
		비율(%)	(14.2)	(37.2)	(47.8)	(0.9)	
	안받았음	빈도(명)	57	105	169	7	
		비율(%)	(16.9)	(31.1)	(50.0)	(2.1)	
	모르겠음	빈도(명)	10	18	27	3	
		비율(%)	(17.2)	(31.0)	(46.6)	(5.2)	
부모 교육	받았음	빈도(명)	53	125	179	9	4.176
		비율(%)	(14.5)	(34.2)	(48.9)	(2.5)	
	안받았음	빈도(명)	40	76	111	3	
		비율(%)	(17.4)	(33.0)	(48.3)	(1.3)	
	모르겠음	빈도(명)	6	6	14	0	
		비율(%)	(23.1)	(23.1)	(53.8)	(0.0)	

*p<.05, **p<.01, ***p<.001

주) 결측값에 따라 합계가 다를 수 있음

2) 부부싸움 이후 자녀에게 화풀이 하듯 한 적이 있는지 여부

■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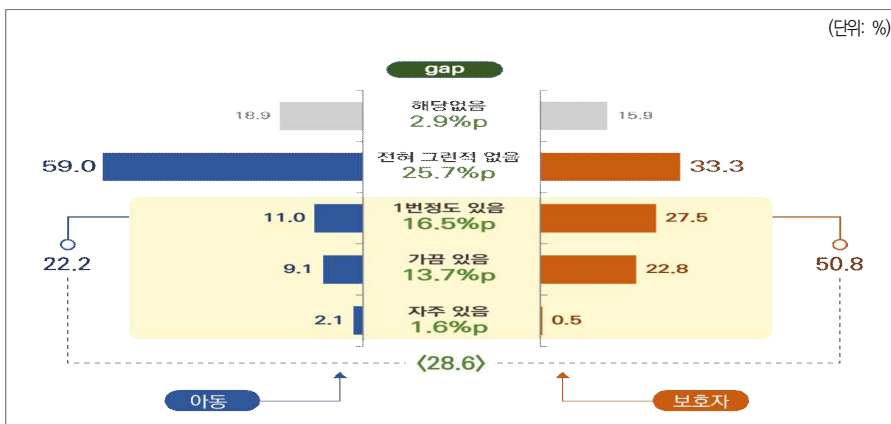
- 부부싸움 이후 자녀에게 화풀이 하듯 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서 아동은 10명 중 2.2명, 보호자는 10명 중 5.1명이 적어도 1번 이상 있다고 응답하였음
-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것이 부부싸움 이후 화풀이의 하나로 인식할 경우, ‘화’의 효용성은 매우 떨어질 수 있으며, 관계 악화의 핵심 원인이 될 수 있음

■ 아동

- 부모님이 부부싸움 이후 화풀이 하듯 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 1번 정도 있다고 응답한 경우: 10명 중 1.1명(11.0%)
 - 가끔 있다고 응답한 경우: 10명 중 0.9명(9.1%)
 - 자주 있다고 응답한 경우: 10명 중 0.2명(2.1%)
 - 1번+가끔+자주 있다고 응답한 경우: 10명 중 2.2명(22.2%)

■ 보호자

- 배우자와 다투고 난 뒤 자녀에게 화풀이 하듯 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 1번 정도 있다고 응답한 경우: 10명 중 2.7명(27.5%)
 - 가끔 있다고 응답한 경우: 10명 중 2.2명(22.8%)
 - 자주 있다고 응답한 경우: 10명 중 0.05명(0.5%)
 - 1번+가끔+자주 있다고 응답한 경우: 10명 중 5.1명(50.8%)



〈그림 3-21〉 부부싸움 이후 자녀에게 화풀이 하듯 한 적이 있는지 여부(아동/보호자)

〈표 3-26〉 부부싸움 이후 자녀에게 화풀이 하듯 한 적이 있는지 여부(아동)

구분		응답대상 아님	전혀 그런적 없다	1번정도 그랬다	가끔 그런다	자주 그런다	총계	χ ²	
전체		빈도(명)	1,448	4,531	843	698	160	7,680	-
		비율(%)	(18.9)	(59.0)	(11.0)	(9.1)	(2.1)	(100.0)	
성별	여자	빈도(명)	663	2,130	468	355	82	3,698	28.435***
		비율(%)	(17.9)	(57.6)	(12.7)	(9.6)	(2.2)	(100.0)	
	남자	빈도(명)	777	2,371	365	336	78	3,927	
		비율(%)	(19.8)	(60.4)	(9.3)	(8.6)	(2.0)	(100.0)	
학년	4학년	빈도(명)	494	1,484	287	194	45	2,504	21.118***
		비율(%)	(19.7)	(59.3)	(11.5)	(7.7)	(1.8)	(100.0)	
	5학년	빈도(명)	478	1,528	271	219	62	2,558	
		비율(%)	(18.7)	(59.7)	(10.6)	(8.6)	(2.4)	(100.0)	
	6학년	빈도(명)	474	1,516	284	285	52	2,611	
		비율(%)	(18.2)	(58.1)	(10.9)	(10.9)	(2.0)	(100.0)	
거주지역	읍면 지역	빈도(명)	243	761	132	102	30	1,268	3.135
		비율(%)	(19.2)	(60.0)	(10.4)	(8.0)	(2.4)	(100.0)	
	동지역	빈도(명)	1,190	3,723	704	583	126	6,326	
		비율(%)	(18.8)	(58.9)	(11.1)	(9.2)	(2.0)	(100.0)	
아동학대 예방교육	받았음	빈도(명)	983	3,195	589	482	103	5,352	10.370
		비율(%)	(18.4)	(59.7)	(11.0)	(9.0)	(1.9)	(100.0)	
	안받았음	빈도(명)	99	232	51	41	12	435	
		비율(%)	(22.8)	(53.3)	(11.7)	(9.4)	(2.8)	(100.0)	
	모르겠음	빈도(명)	353	1,082	198	173	45	1,851	
		비율(%)	(19.1)	(58.5)	(10.7)	(9.3)	(2.4)	(100.0)	
아동권리 교육	받았음	빈도(명)	784	2,422	444	362	79	4,091	9.184
		비율(%)	(19.2)	(59.2)	(10.9)	(8.8)	(1.9)	(100.0)	
	안받았음	빈도(명)	101	269	49	50	16	485	
		비율(%)	(20.8)	(55.5)	(10.1)	(10.3)	(3.3)	(100.0)	
	모르겠음	빈도(명)	548	1,812	342	282	65	3,049	
		비율(%)	(18.0)	(59.4)	(11.2)	(9.2)	(2.1)	(100.0)	

*p<.05, **p<.01, ***p<.001

주) 결측값에 따라 합계가 다를 수 있음

〈표 3-27〉 부부싸움 이후 자녀에게 화풀이 하듯 한 적이 있는지 여부(보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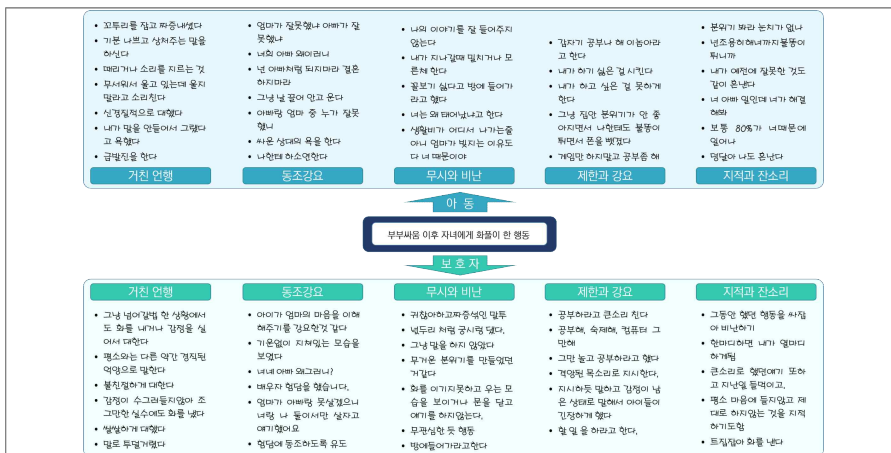
구분		응답대상 아님	전혀 그런적 없다	1번정도 그랬다	가끔 그런다	자주 그런다	총계	χ^2
전체	빈도(명)	99	207	171	142	3	622	-
	비율(%)	(15.9)	(33.3)	(27.5)	(22.8)	(0.5)	(100.0)	
성별	여자	빈도(명)	85	184	163	3	566	8.788
		비율(%)	(15.0)	(32.5)	(28.8)	(23.1)	(100.0)	
	남자	빈도(명)	14	23	8	11	56	
		비율(%)	(25.0)	(41.1)	(14.3)	(19.6)	(100.0)	
연령대	39세이하	빈도(명)	9	40	21	13	83	26.822**
		비율(%)	(10.8)	(48.2)	(25.3)	(15.7)	(100.0)	
	40~44세	빈도(명)	48	81	89	78	297	
		비율(%)	(16.2)	(27.3)	(30.0)	(26.3)	(100.0)	
	45세~49세	빈도(명)	36	58	46	43	184	
		비율(%)	(19.6)	(31.5)	(25.0)	(23.4)	(100.0)	
	50세이상	빈도(명)	5	24	12	6	48	
		비율(%)	(10.4)	(50.0)	(25.0)	(12.5)	(100.0)	
재취수	1명	빈도(명)	19	41	26	30	117	5.400
		비율(%)	(16.2)	(35.0)	(22.2)	(25.6)	(100.0)	
	2명	빈도(명)	62	117	100	77	358	
		비율(%)	(17.3)	(32.7)	(27.9)	(21.5)	(100.0)	
	3명이상	빈도(명)	18	49	45	35	147	
		비율(%)	(12.2)	(33.3)	(30.6)	(23.8)	(100.0)	
자녀 성별	딸만있음	빈도(명)	12	36	31	24	104	9.101
		비율(%)	(11.5)	(34.6)	(29.8)	(23.1)	(100.0)	
	아들만있음	빈도(명)	26	37	32	41	137	
		비율(%)	(19.0)	(27.0)	(23.4)	(29.9)	(100.0)	
	아들딸있음	빈도(명)	30	81	65	48	225	
		비율(%)	(13.3)	(36.0)	(28.9)	(21.3)	(100.0)	
자녀 연령	초등생이하	빈도(명)	64	127	98	85	375	11.816
		비율(%)	(17.1)	(33.9)	(26.1)	(22.7)	(100.0)	
	중고생이하	빈도(명)	29	49	49	46	175	
		비율(%)	(16.6)	(28.0)	(28.0)	(26.3)	(100.0)	
	성인이하	빈도(명)	4	23	17	7	51	
		비율(%)	(7.8)	(45.1)	(33.3)	(13.7)	(100.0)	
	읍면지역	빈도(명)	8	24	21	16	69	
		비율(%)	(11.6)	(34.8)	(30.4)	(23.2)	(100.0)	
거주지역	동지역	빈도(명)	82	160	125	109	478	1.871
		비율(%)	(17.2)	(33.5)	(26.2)	(22.8)	(100.0)	
	읍지역	빈도(명)	44	99	85	60	290	
		비율(%)	(15.2)	(34.1)	(29.3)	(20.7)	(100.0)	
아동학대 예방교육	받았음	빈도(명)	50	93	80	73	297	5.102
		비율(%)	(16.8)	(31.3)	(26.9)	(24.6)	(100.0)	
	모르겠음	빈도(명)	5	15	6	9	35	
		비율(%)	(14.3)	(42.9)	(17.1)	(25.7)	(100.0)	
	안받았음	빈도(명)	32	80	65	47	226	
		비율(%)	(14.2)	(35.4)	(28.8)	(20.8)	(100.0)	
아동권리 교육	받았음	빈도(명)	57	110	92	78	338	4.475
		비율(%)	(16.9)	(32.5)	(27.2)	(23.1)	(100.0)	
	안받았음	빈도(명)	10	17	14	17	58	
		비율(%)	(17.2)	(29.3)	(24.1)	(29.3)	(100.0)	
	모르겠음	빈도(명)	53	121	104	86	366	
		비율(%)	(14.5)	(33.1)	(28.4)	(23.5)	(100.0)	
부모 교육	받았음	빈도(명)	40	78	65	46	230	9.407
		비율(%)	(17.4)	(33.9)	(28.3)	(20.0)	(100.0)	
	안받았음	빈도(명)	6	8	2	10	26	
		비율(%)	(23.1)	(30.8)	(7.7)	(38.5)	(100.0)	

*p<.05, **p<.01, ***p<.001

주) 결측값에 따라 합계가 다를 수 있음

3) 부부싸움 이후 자녀에게 화풀이 하듯 한 행동

- 부부싸움 이후 자녀에게 화풀이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인 화풀이 행동은 무엇이었는지 아동과 보호자에게 각각 개방형으로 질문하였음
 - 아동이 응답한 1,489개의 응답결과를 주제어에 따라 범주를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 57개의 하위범주와 5개의 범주로 분류되었음
 - 보호자가 응답한 290개의 응답결과를 주제어에 따라 범주를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 43개의 하위범주와 5개의 범주로 분류되었음
 - 아동과 보호자가 인식한 화풀이 행동의 5가지 범주는 공통적으로 분류될 수 있었음
- (범주1: 거친 언행) 부부싸움 이후에 자녀에게 화풀이 하는 대표적인 행동유형은 거친 언행임. 부정적이고 격앙된 감정을 자녀에게 그대로 표현하는 것임
- (범주2: 동조강요) 부부싸움 이후 부모들은 자녀에게 서로의 배우자를 헐담하고, 이에 동조할 것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강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 (범주3: 무시와 비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상황에서 아동이 무언가를 요청하거나 눈앞에 있을 경우 무시하고 비난하는 행위를 보이기도 함
- (범주4: 제한과 강요) 아동이 좋아하는 것, 하고싶은 것을 제한하고, 하기싫은 것, 꼭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장 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를 보이기도 함
- (범주5: 지적과 잔소리) 현재 발생한 부부갈등의 원인을 자녀에게 돌리거나, 자녀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들추어 지적하기도 하는 등 잔소리를 과하게 하기도 함



〈그림 3-22〉 부부싸움 이후 자녀에게 화풀이 하듯 한 행동(아동/보호자)

〈표 3-28〉 부부싸움 이후 자녀에게 화풀이 하듯 한 행동(아동)

범주 (5개)	하위범주 (57개)	주요 응답내용 (1,489개)	
거친언행	감정변화 갑자기 짜증 강압적태도 거친말 공포분위기 눈치들춤 때림 목소리거침 무서움 물건던짐 부정적인말 부정적태도 비속어 배침 소리침 예민한반응 욕설 위협 음주 이혼협박 집안감 짜증 투덜거림 한숨 협박 화남 말투 화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꼬투리를 잡고 짜증내었다• 별 거 아닌 일로 화내고 짜증내신다• 기분 나쁘고 상처주는 말을 하신다• 아무말도 하지않고 눈치를 준다•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 목소리를 높이고 짜증난 말투로 얘기• 무서워서 울고 있는데 울지 말라고 소리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경질적으로 대했다• 내가 말을 안들어서 그랬다고 욕했다• 욕하거나 짜증낸다• 엄마아빠 이혼하면 누구 따라 갈거냐고 묻는다• 나한테까지 까칠하게 구셨다• 이혼할꺼니까 잘알고있어• 화와 짜증 섞인 말투로 빨리 해라 하신다• 급발진을 한다
동조강요	화풀이 동조유도 신세한탄 아빠(엄마) 상호 비난 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마가 잘못했냐 아빠가 잘못했냐• 계속 주절주절 아빠는 그냥 미안하다고 함• 짜증나는 일을 나에게 말하고 생각을 나누었다• 너희 아빠 왜이러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넌 아버지처럼 되지마라 결혼하지마라• 그냥 날 끌어 안고 온다• 아빠랑 엄마 중 누가 잘못했니• 싸운 상대의 욕을 한다• 나한테 하소연한다
무시와 비난	귀찮아함 대화단절 무시 밥을안줌 방에가려함 비난 비아냥 사비 쫓아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날 조금 귀찮아한다• 너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 내가 지나갈때 밀치거나 모른체 한다• 인사하지말라고 하거나 무시한다• 밥을 안 주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꼴보기 싫다고 방에 들어가고 했다• 너의 단점만 골라서 이야기 함• 너는 왜 태어났냐고 한다• 생활비가 어디서 나가는줄 아니 엄마가 빚지는 이유도 다 너 때문이야
제한과 강요	게임제한 공부재촉 자라고함 재촉 집안일시킴 하고싶은것제한 핸드폰사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게임만 하지말고 공부좀 해• 갑자기 공부나 해 이놈아라고 한다• 빨리 들어가 자라고 했다• 혼자 욕을 하면서 나에게 빨리 자라고 한다• 내가 하기 싫은 걸 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 청소를 하라고 하신다• 아빠가 뭔가를 계속 시킨다• 나에게 밥을 얹어서 차려 먹으라 하고 그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한다• 그냥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나한테도 불뚱이 튀면서 폰을 뺏겼다
지적과 잔소리	갑자기 잔소리 갑자기 트집 갑자기 훈변 과거잘못훈변 발세움 지적 탓하기 트집 훈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만히 있는데 내가 잘못하냐하면 옥박지르고 소리지름• 갑자기 꼬투리를 잡는다• 분위기 봐라 눈치가 없나• 갑자기 뭐라고 하신다• 년조용히해너까지불뚱이튀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가 예전에 잘못한 것도 같이 혼낸다• 갈등이 내가 아빠한테 이야기 좀 해봐 너 아빠 일인데 너가 해결 해봐• 보통 80%가 너때문에 일어나• 덩달아 나도 혼난다

주) 하위범주별 주요 응답내용은 일부 응답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하였음

〈표 3-29〉 부부싸움 이후 자녀에게 화풀이 하듯 한 행동(보호자)

범주 (5개)	하위범주 (43개)	주요 응답내용 (290개)	
거친언행	감정적대응 거친말투 경직된역양 눈치를중 불친절한대도 소리지름 신경질냄 연성높임 예민해짐 짜증냄 차가운대도 투덜거림 통명스러운대도 화냄	√ 그냥 넘어갈법 한 상황에서 도 화를 내거나 감정을 설어 서 대한다 √ 평소와는 다른 약간 경직된 역양으로 말한다 √ 불친절하게 대한다 √ 소리지르며 말한다 √ 음성이 높아지거나 짜증을 냄 √ 별일아닌일에 화를 냄	√ 가만히있는 아이에게 왜 시 킨것을하지않냐고 화를 냈 습니다 √ 화난목소리로 얼른 자라고 함 √ 감정이 수그러들지않아 조 그만한 실수에도 화를 냈다 √ 쌀쌀하게 대했다 √ 말로 투덜거렸다 √ 짜증섞인 목소리로 아이를 나무란다
	공감강요 무기력 배우자협담 속상함일함 신세환탄 울음 이혼협박 침울	√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이해 해주기를 강요한것 같다 √ 기운없이 지쳐있는 모습을 보였다 √ 너네 아빠 왜그러니? √ 배우자 협담을 했습니다, √ 배우자의 협담에 동조하도 록 유도한다	√ 속풀이를 했다 √ 엄마가 아빠랑 못살겠으니 너랑 나 둘이서만 살자고 애 기했어요 √ 무뎡뎡하게 대하거나 짜증 낸다, √ 꾸념 √ 배우자의 욕을했습니다,
무시와 비난	귀찮아함 눈치를중 대화단절 무관심 무시 방에가라함 요구사항회피	√ 귀찮아하고짜증섞인 말투 √ 냇두리 처럼 공시령 댔다, √ 그냥 말을 하지 않았다 √ 대답을 잘 해주지 않았다 √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었던 거 같다 √ 말을 하지 않고 혼자만의 시 간을 갖는다, 	√ 화를 이기지 못하고 우는 모 습을 보이거나 문을 닫고 애 기를 하지않는다, √ 무관심한 듯 행동 √ 방에들어가라고한다 √ 요구사항을 회피한적있다, √ 못본척했다
제한과 강요	공부재촉 일찍자라고함 지시적어투 청소지시	√ 공부하라고 큰소리 친다 √ 공부해, 숙제해, 컴퓨터 그만해 √ 그만 놓고 공부하라고 했다 √ 격앙된 목소리로 지시한다, √ 지시하듯 말하고 감정이 남은 상태로 말해서 아이들이 긴장하게 했다 √ 할 일 을 하라고 한다, 	
	과거잘못흔냄 숙제점검 아다침 엄격 엄격한규칙적응 잔소리 지적 책임전가 트집잡아화냄 흔냄	√ 그동안 했던 행동을 싸잡아 비난하기 √ 한마디하면 내가 얼마디하 게됨 √ 큰소리로 했면얘기 또하고 지나일 들먹이고, √ 평소 마음에 들지않고 제대 로 하지않는 것을 지적하기 도함	√ 간혹 화풀이를 할때는 팬시 리 아판을 쳤던거 같습니다, √ 평소에는 더 참고 좋게 이야 기할 일도 화내고 소리쳤다 √ 꼬투리를잡아화를낸다 √ 내가 한 행동때문에 엄마야 빠가 싸웠다고 말했다 √ 트집잡아 화를낸다

주) 하위범주별 주요 응답내용은 일부 응답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하였음


4) 부부싸움 이후 자녀에게 화풀이 하였을 때 기분 상태

■ 종합

- 부모님이 부부싸움 이후 자녀에게 화풀이를 하였을 때, 아동은 짜증나고(287건), 속상하다(159건)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보호자는 미안하고(86건), 속상하다(33건)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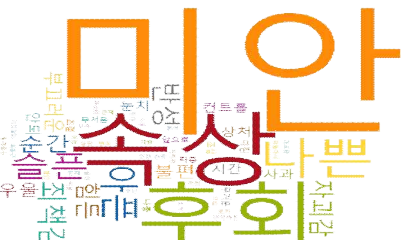
- 부모님의 부부싸움 이후 본인에게 화풀이 하셨을 때 기분 상태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 키워드를 보면, ‘짜증’(287건)이 가장 많았으며, ‘속상’(159건), ‘슬픈’(151건), ‘나쁜’(108건), ‘무서운’(10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p>이해안되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이없고, 왜 나한테 화풀이를 하는지 궁금했다 • 마음속으로는 똑같이 해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 난 감정쓰레기통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이다, • 엄마 아빠가 헤어질까봐 무서웠다, • 답답하고 억울하다 • 그러려니 한다 • 눈물이 나고 죽고 싶었다 • 나가서 혼자 살고 싶었다 • 절벽 끝에서 있는 기분이다,
[워드클라우드]	[주요응답내용]

〈그림 3-23〉 부부싸움 이후 자녀에게 화풀이 하였을 때 기분 상태(아동)

■ 보호자

- 배우자와 다투고 난 뒤 자녀에게 화풀이를 하였을 때 기분 상태에 대한 보호자들의 인식 키워드를 보면, ‘미안’(86건)이 가장 많았으며, ‘속상’(33건), ‘후회’(25건), ‘나쁜’(13건), ‘아픈’(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찢찢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 아이에게 괜히 소리 지르고 화를 내서 미안하다 • 속상하고 후회스럽다 • 순간의 감정을 컨트롤 못하고 후회를 하게 된다 • 배우자와 싸웠을 때 보다 더 좋지 않다 • 분이 안풀리고 더 화가 난다 • 아이들이 불안해 할까봐 걱정됐다 • 원인제공이 아님을 알면서도 떠넘겨서 상처받지 않았을까 • 후회하고 스스로 자괴감이 든다
[워드클라우드]	[주요응답내용]

〈그림 3-24〉 부부싸움 이후 자녀에게 화풀이 하였을 때 기분 상태(보호자)

〈표 3-30〉 부부싸움 이후 자녀에게 화풀이 하였을 때 기분 키워드(아동/보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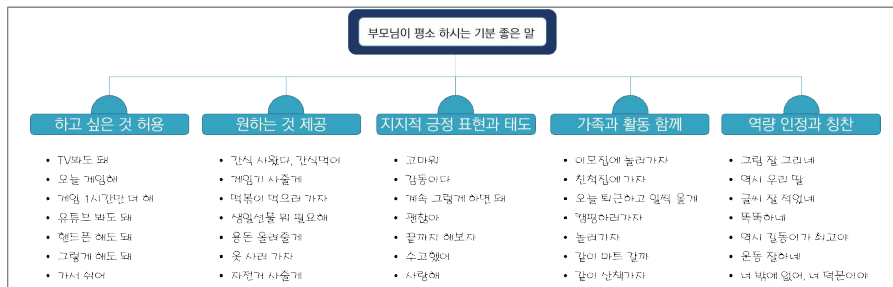
응답순위	아동			응답순위	보호자		
	키워드	응답빈도	응답비율		키워드	응답빈도	응답비율
1	짜증	287	24.1	1	미안	86	31.4
2	속상	159	13.4	2	속상	33	12.0
3	슬픈	151	12.7	3	후회	25	9.1
4	나쁜	108	9.1	4	나쁜	13	4.7
5	무서운	103	8.6	5	아픈	8	2.9
6	싫은	31	2.6	6	슬픈	8	2.9
7	어이없는	29	2.4	7	좌책감	6	2.2
8	이해안되는	24	2.0	8	반성	6	2.2
9	당황	20	1.7	9	힘든	5	1.8
10	괜찮은	18	1.5	10	자괴감	5	1.8
11	두려운	14	1.2	11	순간	5	1.8
12	더러운	12	1.0	12	우울	4	1.5
13	걱정	12	1.0	13	불편	4	1.5
14	힘든	10	0.8	14	부끄러운	4	1.5
15	우울	10	0.8	15	컨트롤	3	1.1
16	미안	10	0.8	16	안되	3	1.1
17	불안	9	0.8	17	시간	3	1.1
18	미운	9	0.8	18	상처	3	1.1
19	놀란	8	0.7	19	사과	3	1.1
20	이상한	7	0.6	20	눈치	3	1.1
21	아픈	7	0.6	21	짜증	2	0.7
22	화해	6	0.5	22	조절	2	0.7
23	혼자	6	0.5	23	조심	2	0.7
24	혼나	6	0.5	24	앞으로	2	0.7
25	불뚱	6	0.5	25	무서운	2	0.7
26	무엇	5	0.4	26	무거운	2	0.7
27	때리는	5	0.4	27	다짐	2	0.7
28	공감	5	0.4	28	나중	2	0.7
29	욕하고싶은	4	0.3	29	훈육	1	0.4
30	눈치	4	0.3	30	폭발	1	0.4

주) 키워드 상위 30개만 추출하여 제시함

6. 부모님이 자녀에게 평소 하시는 말(아동)

1) 기분 좋은말

- 부모님이 평소 하시는 말 중 아동들이 가장 기분 좋은 말은 무엇인지 자유기술 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 21,499개의 응답, 103개의 하위범주, 5개의 범주로 분류되었음
- (범주1: 하고 싶은 것 허용하는 말) 아동들은 평소 제한된 활동들에 대해 부모님이 허용해주실 때, 예컨대, TV시청, 게임, 스마트폰, 친구와 놀기 등을 허용해 주시는 말을 기분 좋은 말로 인식하였음
- (범주2: 원하는 것 제공하는 말) 아동들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실 때, 예컨대, 간식이나 맛있는 것, 게임기, 선물, 용돈 등을 주신다고 하실 때 기분 좋은 말로 인식하였음
- (범주3: 지지적 긍정 표현과 태도) 아동들은 부모님이 격려와 공감과 같이 지지적이거나 긍정적 표현을 주실 때, 예컨대, 경청, 공감, 수용, 지지, 축하 등을 표현해 주실 때 기분 좋은 말로 인식하였음
- (범주4: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 아동들은 부모님이 가족들과 무언가를 함께 하자고 말씀하실 때, 예컨대, 가족모임, 나들이, 캠핑, 외식 등을 함께 하자고 하실 때 기분 좋은 말로 인식하였음
- (범주5: 역량인정과 칭찬) 아동들은 역량을 인정해주고 칭찬을 표현해 주실 때, 예컨대, 학업칭찬, 성과칭찬, 행동칭찬, 성과칭찬 등을 표현해 주실 때 기분 좋은 말로 인식하였음



〈그림 3-25〉 부모님이 자녀에게 평소 하시는 말(기분 좋은 말)

〈표 3-31〉 부모님이 자녀에게 평소 하시는 말(기분 좋은 말)

범주 (5개)	하위범주 (103개)	주요 응답내용 (21,499개)	
하고 싶은 것 허용하는 말	tv시청허락, 게임허락, 귀가시간연장, 노는시간부여, 늦은취침허용, 유튜브시청허용, 수면시간연장, 친구집외박허가, 요청사항수용, 운동허용, 컴퓨터허용, 취침시간연장, 친구와노는것허락, 핸드폰사용허용, 휴식시간, 부모의뜻은귀가, 부모의외박, 부모의외출, 혼자있는시간	√ TV봐도 돼 √ 오늘 게임해 √ 게임 1시간만 더 해 √ 유튜브 봐도 돼 √ 핸드폰 해도 돼 √ 그렇게 해도 돼 √ 가서 쉬어	√ 놀러 갔다와 √ 놀아도 돼 √ 방과후 빼줄게 √ 숙제 오늘은 하지 말자 √ 오늘은 학원 쉬어라 √ 친구랑 놀고 와 √ 힘들면 학원 하나 그만두자
원하는 것 제공하는 말	간식제공, 맛있는식사제공, 좋아하는음식, 게임기구입, 선물제공, 보상제공, 용돈, 원하는것시중	√ 간식 사왔다, 간식먹어 √ 게임기 사줄게 √ 떡볶이 먹으러 가자 √ 생일선물 뭐 필요해	√ 용돈올려줄게 √ 옷 사러 가자 √ 자전거 사줄게 √ 뭐해줄까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	가족모임, 가족회의, 대화, 보살핌의말, 엄마집방문, 이빠집방문, 반려동물돌봄, 부모와형제외출, 부모의이른귀가, 부모의휴가, 부모의휴식, 부모의금주다짐, 외식, 원만한부모관계, 집안일분담, 할머니집방문, 함께하는활동	√ 이모집에 놀러가자 √ 친척집에 가자 √ 오늘 퇴근하고 일찍 올게 √ 캠핑하러가자 √ 놀러가자 √ 같이 마트 갈까 √ 같이 산책가자	√ 주말에 놀러가자 √ 오늘은 엄마랑 같이 자자 √ 내일 외식하자 √ 수영장 가자 √ 엄마랑 같이하자 √ 오늘 가족끼리 회의하자 √ 엄마아빠 앞으로 안싸울게
지리적 긍정 표현과 태도	감동표현, 고마움표현, 격려, 독려, 건강기원, 경청, 공감, 동감, 동의, 동조, 학업독려, 학업부담완화, 관심표현, 긍정적인말, 기쁜말, 다정함말투, 다정한태도, 미안함표현, 밝은표정, 수용적태도, 신뢰표현, 애정표현, 애칭부름, 염려, 위로, 유머, 의견존중, 이름부름, 인사, 장난, 조언, 존중표현, 즐거움표현, 지지, 축하, 편들어줌, 행복감표현, 화해	√ 고마워 √ 감동이다 √ 계속 그렇게 하면 돼 √ 괜찮아 √ Good √ 끝까지 해보자 √ 수고했어 √ 사랑해	√ 잘했어 √ 길동아-(부드럽게 부름) √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 공부가 다는 아니야 √ 미안해 √ 너가 하고 싶은거 해 √ 나는 널 믿어 √ 항상 우리딸 편이야
역량인정과 칭찬	건강기원, 게임칭찬, 공부칭찬, 과정칭찬, 공부후휴식권유, 도움요청하는말, 비교우위인정, 성과칭찬, 학업성적칭찬, 학업칭찬, 성향칭찬, 악기연주칭찬, 역량칭찬, 외모칭찬, 운동칭찬, 의지하는말, 인정, 집안일칭찬, 행동칭찬, 형제관계칭찬	√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 건강하게만 잘 자라줘 √ 그럼 잘 그리네 √ 역시 우리 딸 √ 글씨 잘 적었네 √ 똑똑하네	√ 역시 길동이가 최고야 √ 운동 잘하네 √ 착하네 √ 너 밖에 없어, 너 덕분이야 √ 훌륭해 √ 할 수 있어

주) 하위범주별 주요 응답내용은 일부 응답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하였음

2) 기분 좋지 않은 말

- 부모님이 평소 하시는 말 중 아동들이 가장 기분 좋지 않은 말은 무엇인지 자유 기술 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 16,419개의 응답, 101개의 하위범주, 5개의 범주로 분류되었음
- (범주1: 하고 싶은 것 제한하는 말) 아동들은 평소 하고 싶은 활동을 제한하실 때, 예컨대, 친구놀이통제, 컴퓨터 통제, TV시청 통제, 게임통제 등 원하는 활동이나 놀이를 제한하는 말을 기분 좋지 않은 말로 인식하였음
- (범주2: 지적과 잔소리) 아동들은 부모님이 지적이나 잔소리를 하실 때, 예컨대, 같은말 반복해서 지시, 다른 사람과 비교, 엄마(아빠)와 비교, 지시적 어투 등으로 말씀하실 때 기분 좋지 않은 말로 인식하였음
- (범주3: 부정 표현과 태도) 아동들은 부모님이 부정적인 표현이나 태도를 보여주실 때, 예컨대, 비아냥 거림, 욕설과 비속어, 차별적 태도, 폭언, 실망감 표현, 거부적 반응 등을 표현하실 때 기분 좋지 않은 말로 인식하였음
- (범주4: 걱정 유발) 아동들은 부모님이 가족 관계와 관련하여 걱정을 유발하실 때, 예컨대, 부모님의 관계 불화 표현, 부모님의 늦은 귀가, 부모님의 흡연과 음주, 부모님의 질병 등을 표현하실 때 기분 좋지 않은 말로 인식하였음
- (범주5: 강요하는 말) 아동들은 부모님이 지시적이거나 강요하는 말을 하실 때, 예컨대, 공부나 독서 강요, 심부름, 운동강요, 재촉하는 말투, 협박 등의 어투로 표현하실 때 기분 좋지 않은 말로 인식하였음



〈그림 3-26〉 부모님이 자녀에게 평소 하시는 말(기분 좋지 않은 말)

〈표 3-32〉 부모님이 자녀에게 평소 하시는 말(기분 좋지 않은 말)

범주 (5개)	하위범주 (101개)	주요 응답내용 (16,419개)	
하고 싶은 것 제한하는 말	TV시청제한, 게임제한, 귀가시간제한, 동영상시청제한, 뒷담화, 스마트기기제한, 여가활동제한, 음식제한, 인터넷사용제한, 일상생활통제, 친구관계통제, 컴퓨터사용제한, 핸드폰사용제한, 행동통제	♪ TV그만봐라 ♪ 게임 그만해 ♪ 너 한달간 게임 금지야 ♪ 유튜브 그만 봐 ♪ 오늘은 힘드니까 다음에 하자 ♪ 음악 꺼	♪ 놀러가지 마 ♪ 과자 먹지마 ♪ 컴퓨터 그만해 ♪ 핸드폰 그만해 ♪ 그만 좀 해라 ♪ 그 친구랑 놀지마
지적과 잔소리	같은말반복, 과거와비교, 과거이야기, 글씨지적, 다른사람과비교, 돈관련된말, 똑같은말반복, 비교, 비난, 야단, 엄마(아빠)와비교, 외모지적, 우는것야단, 지적지적, 잔소리, 지시적어투, 지적, 질책, 책임전가, 추궁, 평가, 형제와비교	♪ 너가 잘못했으면서 왜울어 ♪ 니 동생은 잘 하는데 넌 왜 못하니 ♪ 웡길둥!!(성을 붙여 이름부름) ♪ 잘못했으면 맞아야지 ♪ 방 꼴이 이게 뭐니 ♪ 너 살쥔어	♪ 누구 닮아서 못생겼노 ♪ 몸무게 점점 늘어나니 친구가 없는거야 ♪ 어깨에 힘줄 주고 걸어 ♪ 예전에는 귀여웠는데 ♪ 이번 어렸을 때... ♪ 말좀 잘들어 ♪ 거짓말 하지마
부정 표현과 태도	강압적태도, 거절, 경고, 다툼, 띠꺼운말, 무관심, 무뎡뎡함, 무시, 부정적감정표현, 불신, 불쾌한감정표현, 불합리한언행, 불합리한행동, 비공감적태도, 비속어, 비아냥거림, 서운한말, 실망감표현, 오해, 요구(요청)사항거부, 욕설, 용돈제한, 위협적인행, 욕박지름, 이름부름(강한어조), 장난스러운말, 종의적표현, 짜증, 차별적발언, 차별적태도, 체벌, 큰목소리, 폭력적인행동, 폭언, 한숨, 헛웃음, 형제비하, 혼잣말, 화풀이	♪ 개!!(소리침) ♪ 가만히 있어 ♪ 그거 하지마 ♪ 너 때문이야 ♪ 도움이 안되네 ♪ 누구를 닮아서 저 모양인지 ♪ 하...(깊은한숨) ♪ 니가 그렇지 뭐 ♪ 내가 너를 왜 낳았을까 ♪ 안 돼! ♪ 어허!! ♪ 지 아비를 속 다했아 가지고	♪ 띠껍게 말하는 거 ♪ 너 알아서 좀 해 ♪ 나한테 불지 말고 방에나 가 ♪ 넌 없어도 돼 ♪ 넌 빠져 ♪ 어른들끼리 말하고 있잖아 ♪ 얼마나 힘들어 ♪ 그렇게 하면 넌 못 믿어 ♪ 살고싶지 않다 ♪ 섭섭하다 ♪ 그게 뭐하는 거냐 ♪ 욕설(씨발 새끼야/개새끼야)
걱정을 유발	부모관계불화, 부모의늑은기가, 부모의와박, 부모의외출, 부모의음주, 부모의질병, 부모의흡연	♪ 네 아버지는 왜그러냐 ♪ 안좋은 엄마(아빠) 이야기 ♪ 이혼을 해버려야지 ♪ 네 애미 때문에 내가 힘들다 ♪ 집에 혼자 있어, 금방올게	♪ 담배를 안피면 자꾸 스트레스가 나서 어쩔 수 없어 ♪ 내가 집을 나가야 너가 좋지 ♪ 내가 죽어버릴까 ♪ 오늘 좀 늦어
강요하는 말	강요, 공부강요, 독서강요, 동행강요, 목욕강요, 병원진료강요, 부모외출, 심부름, 양보강요, 양치강요, 외출강요, 운동강요, 일기작성강요, 재촉, 제시이야기, 집안일시킴, 청소강요, 피아노강요, 협박	♪ 아무지게 좀 할 수 없니 ♪ 공부(숙제) 좀 해 ♪ 조용히 해 ♪ 니가 양보해 ♪ 100점 맞아야 돼 ♪ 공부 다했어? ♪ 같은말 반복해서 지시	♪ 심부름 갔다와 ♪ 일기써라 ♪ 이제 책읽어 ♪ 할 일 다하고 놀아 ♪ 비단좀 치워라 ♪ 빨래해라 ♪ 청소좀 해라

주) 하위범주별 주요 응답내용은 일부 응답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하였음

7. 부모양육태도(문항별, 유형별)

■ 종합

- 부모양육태도와 관련하여 아동(2.17점)이 보호자(2.09점)보다 더 지지적 태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과 보호자 모두 부모의 자녀에 대한 믿음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자녀에게는 '안돼'라고 표현하는가에 대해 가장 낮게 인식하였음

■ 아동

- 아동들이 부모양육태도를 지지적이라고 인식한 정도는 2.45점, 강요적이라고 인식한 정도는 1.11점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양육태도 전체에 대해서는 2.17점으로 나타남
- 평균값이 높을수록 지지적 양육태도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때,
 - 성별로는 여자가(M=2.20) 남자(M=2.14)보다 더 높게 나타남
 - 학년별로는 4학년(M=2.18), 5학년(M=2.18), 6학년(M=2.15) 순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별로는 읍면지역(M=2.19)이 동지역(M=2.17점) 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한 경우(M=2.1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이수 여부를 모르는 경우(M=2.12), 이수하지 않은 경우(M=2.10) 순으로 나타남
 - 아동권리교육을 이수한 경우(M=2.2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이수 여부를 모르는 경우(M=2.14), 이수하지 않은 경우(M=2.09) 순으로 나타남

■ 보호자

- 보호자들이 부모양육태도를 지지적이라고 인식한 정도는 2.35점, 강요적이라고 인식한 정도는 1.17점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양육태도 전체에 대해서는 2.09점으로 나타남
- 평균값이 높을수록 지지적 양육태도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때,
 - 성별로는 남자가(M=2.15) 여자(M=2.08)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대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높게 나타남. 즉 50세이상(M=2.19), 45세~49세(M=2.11), 40세~44세(M=2.07), 39세이하(M=2.06) 순으로 나타남

- 자녀수는 적을수록 더 높게 나타남. 즉 1명(M=2.12), 2명(M=2.08), 3명이상(M=2.08) 순으로 나타남
- 자녀의 성별은 딸만 있는 경우(M=2.13)가 가장 높았으며, 아들과 딸이 있는 경우(M=2.10), 아들만 있는 경우(M=2.04) 순으로 나타남
- 자녀의 연령별로는 성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M=2.17)가 가장 높았으며, 중고생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M=2.10), 초등생 이하 자녀만 있는 경우(M=2.07) 순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별로는 읍면지역(M=2.09)과 동지역(M=2.09)의 차이가 없었음
-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여부를 모르는 경우(M=2.15)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이수한 경우(M=2.11), 이수하지 않은 경우(M=2.06) 순으로 나타남
- 아동권리교육을 이수한 경우(M=2.1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이수 여부를 모르는 경우(M=2.09), 이수하지 않은 경우(M=2.06) 순으로 나타남
- 부모교육을 이수한 경우(M=2.1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수하지 않은 경우(M=2.07), 이수 여부를 모르는 경우(M=2.00)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7〉 부모님의 양육태도 인식(아동/보호자)

〈표 3-33〉 부모님의 양육태도 문항별 인식(아동)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1)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66	(0.8)	331	(4.2)	2,928	(37.2)	4,543	(57.7)	2.52	0.620
2)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79	(1.0)	491	(6.3)	3,260	(41.5)	4,025	(51.2)	2.43	0.656
3)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	95	(1.2)	565	(7.2)	3,252	(41.4)	3,937	(50.2)	2.41	0.677
4)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118	(1.5)	538	(6.9)	2,853	(36.5)	4,318	(55.2)	2.45	0.690
5)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	640	(8.2)	2,678	(34.3)	2,931	(37.5)	1,560	(20.0)	1.69	0.881
6)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신다	1,624	(20.8)	3,275	(42.0)	2,100	(26.9)	799	(10.2)	1.27	0.904
7)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부모님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신다	2,803	(35.8)	3,043	(38.9)	1,395	(17.8)	583	(7.5)	0.97	0.913
8) 부모님은 모든 것에 대해 “안 돼”라고 하신다	4,531	(57.7)	2,653	(33.8)	499	(6.4)	164	(2.1)	0.53	0.708

주) 결측값에 따라 합계가 다를 수 있음

〈표 3-34〉 부모님의 양육태도 문항별 인식(보호자)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1)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5	(0.8)	10	(1.6)	296	(47.6)	311	(50.0)	2.47	.574
2)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3	(0.5)	29	(4.7)	425	(68.3)	165	(26.5)	2.21	.537
3)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	1	(0.2)	10	(1.6)	373	(60.0)	238	(38.3)	2.36	.523
4)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1	(0.2)	6	(1.0)	381	(61.3)	234	(37.6)	2.36	.511
5)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	19	(3.1)	201	(32.3)	361	(58.0)	41	(6.6)	1.68	.641
6)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신다	20	(3.2)	244	(39.2)	339	(54.5)	19	(3.1)	1.57	.609
7)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부모님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신다	212	(34.1)	357	(57.4)	49	(7.9)	4	(0.6)	.75	.620
8) 부모님은 모든 것에 대해 “안 돼”라고 하신다	224	(36.0)	367	(59.0)	29	(4.7)	2	(0.3)	.69	.571

주) 결측값에 따라 합계가 다를 수 있음

〈표 3-35〉 부모님의 양육태도 유형별 인식(아동)

구분		사례수	지지적		강요적		양육태도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7,884	2.45	.526	1.11	.621	2.17	.476
성별	여자	3,803	2.46	.524	1.06	.614	2.20	.483
	남자	4,025	2.44	.529	1.16	.626	2.14	.469
	t	-	1.304		-6.746***		5.150	
학년	4학년	2,590	2.43	.506	1.07	.617	2.18	.457
	5학년	2,631	2.47	.535	1.11	.614	2.18	.480
	6학년	2,656	2.45	.537	1.16	.630	2.15	.490
	F (schffe)	-	3.332*(a,b)		13.921*** (a,b,c)		5.400** (a,b,c)	
거주 지역	읍면지역	1,297	2.48	.506	1.11	.621	2.19	.460
	동지역	6,500	2.45	.530	1.11	.622	2.17	.479
	t	-	2.131*		-0.318		1.348	
아동학대 예방교육	받았음	5,475	2.48	.516	1.10	.614	2.19	.470
	안받았음	449	2.41	.559	1.20	.687	2.10	.500
	모르겠음	1,916	2.38	.543	1.14	.623	2.12	.484
	F (schffe)	-	23.630*** (a,b,c)		8.859*** (a,b,c)		19.587*** (a,b,c)	
아동 권리교육	받았음	4,179	2.49	.517	1.08	.618	2.21	.475
	안받았음	512	2.37	.575	1.19	.676	2.09	.498
	모르겠음	3,133	2.41	.527	1.14	.614	2.14	.471
	F (schffe)	-	30.955*** (a,b,c)		11.036*** (a,b,c)		26.783*** (a,b,c)	

*p<.05, **p<.01, ***p<.001

주) 전체 평균값 산출 시 강요적 문항은 역산함. 평균값이 높을수록 지지적 양육태도로 인식하는 정도가 강함

〈표 3-36〉 부모님의 양육태도 유형별 인식(보호자)

구분		사례수	지지적		강요적		양육태도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622	2.35	.413	1.17	.453	2.09	.345
성별	여자	566	2.34	.409	1.18	.441	2.08	.343
	남자	56	2.41	.448	1.10	.560	2.15	.361
	t	-	-1.138		1.250		-1.501	
연령대	39세이하	83	2.34	.380	1.23	.501	2.06	.347
	40-44세	297	2.36	.406	1.23	.426	2.07	.340
	45세-49세	184	2.35	.448	1.13	.448	2.11	.347
	50세이상	48	2.30	.375	0.93	.449	2.19	.365
	F (schffe)	-	.269		7.363*** (a)d, b)d		2.261	
자녀수	1명	117	2.41	.411	1.16	.459	2.12	.321
	2명	358	2.36	.429	1.20	.462	2.08	.362
	3명이상	147	2.28	.362	1.11	.423	2.08	.322
	F (schffe)	-	3.710* (a)c		2.115		.782	
자녀성별	딸만있음	104	2.40	.410	1.15	.456	2.13	.346
	아들만있음	137	2.33	.384	1.24	.445	2.04	.330
	아들딸있음	225	2.35	.428	1.15	.438	2.10	.334
	F (schffe)	-	1.111		2.005		2.037	
자녀연령	초등생이하	375	2.37	.426	1.22	.452	2.07	.342
	중고생이하	175	2.32	.405	1.12	.439	2.10	.363
	성인이하	51	2.31	.335	0.97	.442	2.17	.340
	F (schffe)	-	1.075		9.186*** (a)b,c		2.065	
거주 지역	읍면지역	69	2.39	.372	1.21	.485	2.09	.336
	동지역	478	2.35	.413	1.18	.451	2.09	.345
	t	-	.788		.472		.155	
아동학대 예방교육	받았음	290	2.37	.404	1.16	.468	2.11	.355
	안받았음	297	2.32	.423	1.20	.443	2.06	.337
	모르겠음	35	2.46	.366	1.16	.416	2.15	.316
	F (schffe)	-	2.633		.578		2.022	
아동 권리교육	받았음	226	2.40	.398	1.15	.446	2.13	.340
	안받았음	338	2.32	.419	1.19	.455	2.06	.341
	모르겠음	58	2.38	.417	1.20	.474	2.09	.381
	F (schffe)	-	2.753		.738		2.215	
부모교육	받았음	366	2.38	.409	1.17	.450	2.11	.349
	안받았음	230	2.31	.417	1.18	.465	2.07	.341
	모르겠음	26	2.24	.390	1.23	.393	2.00	.313
	F (schffe)	-	2.994		.265		1.801	

*p<.05, **p<.01, ***p<.001

주) 전체 평균값 산출 시 강요적 문항은 역산함. 평균값이 높을수록 지지적 양육태도로 인식하는 정도가 강함

〈표 3-37〉 어른들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키워드(아동)

응답순위	키워드	응답빈도	응답비율	응답순위	키워드	응답빈도	응답비율
1	말	475	9.5	31	배려	28	0.6
2	칭찬	452	9.1	32	예의	28	0.6
3	공부	371	7.5	33	보호	27	0.5
4	들어주실	214	4.3	34	인정	26	0.5
5	의견	182	3.7	35	좋아하는	24	0.5
6	사랑	160	3.2	36	위로	23	0.5
7	이해	148	3.0	37	가족	22	0.4
8	이야기	113	2.3	38	마음	22	0.4
9	믿어	112	2.3	39	맛있는	22	0.4
10	인사	99	2.0	40	싸우지	22	0.4
11	시험	84	1.7	41	응원	22	0.4
12	원하는	80	1.6	42	노력	21	0.4
13	평소	61	1.2	43	음식	20	0.4
14	맛있을때	56	1.1	44	자유	20	0.4
15	착하게	51	1.0	45	학원	20	0.4
16	밥	48	1.0	46	하락	20	0.4
17	도움	47	0.9	47	고맙다고	19	0.4
18	숙제	43	0.9	48	용돈	19	0.4
19	공감	42	0.8	49	전부	19	0.4
20	동생	41	0.8	50	관심	18	0.4
21	기분	36	0.7	51	운동	18	0.4
22	힘들때	36	0.7	52	청소	18	0.4
23	그림	35	0.7	53	친구와	18	0.4
24	사주실때	34	0.7	54	게임	17	0.3
25	챙겨주는	34	0.7	55	대회	17	0.3
26	자켜주는	33	0.7	56	심부름	17	0.3
27	다른사람	32	0.6	57	위험	17	0.3
28	매일	32	0.6	58	행복	17	0.3
29	올바른	29	0.6	59	걱정	16	0.3
30	경청	28	0.6	60	만들기	16	0.3

주) 키워드 상위 60개만 추출하여 제시함

2) 아동존중에 대한 이미지

■ 종합

- 아동존중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단어)를 살펴보면, 아동과 보호자 모두 동일하게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다수를 차지하였음
- 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사랑이 아동을 존중하는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으며, 이어서 배려와 이해와 믿음이 중요한 키워드로 나타남

■ 아동

- 아동들이 응답한 아동존중에 대한 이미지(단어)의 키워드를 세부적으로 보면, ‘사랑’(2,024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배려’(1,012건), ‘행복’(720건), ‘이해’(582건), ‘보호’(5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보호자

- 보호자들이 응답한 아동존중에 대한 이미지(단어)의 키워드를 세부적으로 보면, ‘사랑’(242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이해’(116건), ‘믿음’(109건), ‘배려’(109건), ‘인격’(7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9〉 아동존중에 대한 이미지(아동/보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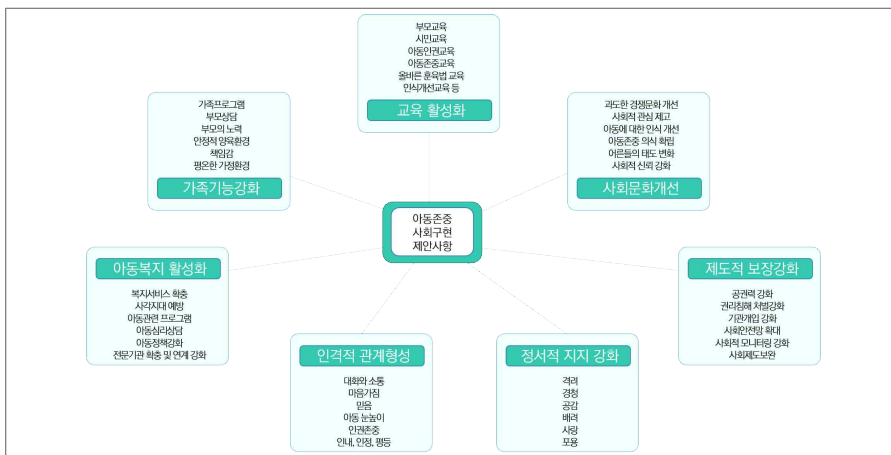
〈표 3-38〉 아동존중에 대한 이미지 키워드(아동/보호자)

응답순위	아동			응답순위	보호자		
	키워드	응답빈도	응답비율		키워드	응답빈도	응답비율
1	사랑	2024	17.0	1	사랑	242	14.9
2	배려	1012	8.5	2	이해	116	7.1
3	행복	720	6.0	3	믿음	109	6.7
4	이해	582	4.9	4	배려	109	6.7
5	보호	550	4.6	5	인격	74	4.6
6	학대	514	4.3	6	자유	69	4.2
7	인권	402	3.4	7	행복	50	3.1
8	믿음	350	2.9	8	대화	44	2.7
9	부모	314	2.6	9	경청	42	2.6
10	칭찬	290	2.4	10	보호	41	2.5
11	권리	272	2.3	11	관심	38	2.3
12	폭력	219	1.8	12	인권	30	1.8
13	가족	213	1.8	13	권리	29	1.8
14	어른	213	1.8	14	의견	26	1.6
15	자유	191	1.6	15	공감	25	1.5
16	관심	180	1.5	16	인정	25	1.5
17	말	142	1.2	17	자존감	23	1.4
18	기쁨	132	1.1	18	기대감	20	1.2
19	평화	123	1.0	19	책임	18	1.1
20	평등	109	0.9	20	소통	17	1.0
21	공감	107	0.9	21	의사	17	1.0
22	도움	94	0.8	22	칭찬	17	1.0
23	마음	84	0.7	23	인내	16	1.0
24	금지	83	0.7	24	웃음	15	0.9
25	생명	81	0.7	25	행동	13	0.8
26	경청	76	0.6	26	마음	11	0.7
27	친절	74	0.6	27	말	11	0.7
28	안전	73	0.6	28	선택	11	0.7
29	사람	64	0.5	29	이야기	11	0.7
30	의견	64	0.5	30	표현	11	0.7

주) 키워드 상위 30개만 추출하여 제시함

3) 아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제안사항

- 보호자들은 아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하여 매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자유기술 문항에 응답한 805개의 응답결과를 주제어에 따라 범주를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 62개의 하위범주와 7개의 범주로 분류되었음
- (범주1: 가족기능강화) 아동학대예방대책과 마찬가지로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가족 내부적, 사회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제안함
- (범주2: 교육활성화) 부모들의 양육법 등 부모교육 활성화와 더불어 아동존중사회를 위한 시민교육, 아동교육, 인성교육, 인식개선 교육 등 활발한 추진 필요함
- (범주3: 사회문화개선) 아동을 독립적 인격체로 보지 않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 경쟁문화 개선, 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 어른들의 태도 변화 등 사회문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범주4: 아동복지활성화) 아동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및 아동보호체계 확립으로 아동의 복지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범주5: 인격적 관계형성) 아동의 눈높이에서 대화하고, 객체로서 서로 상호 존중하며, 믿음을 갖고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 (범주6: 정서적 지지강화) 격려와 경청, 공감과 배려, 사랑과 포용의 자세로 아동과 상호작용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범주7: 제도적 권리보장 강화)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그림 3-30〉 아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제안사항(보호자)

〈표 3-39〉 아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제안사항 주요내용(보호자)

범주 (7개)	하위범주 (62개)	주요 응답내용 (805개)
가족기능강화	가족프로그램, 부모상담, 부모의 노력, 안정적양육환경, 책임감, 평온한가정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을 존중해야하는 부모들의 마음덜래기 •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주어야 합니다. • 부모가 먼저 행복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평안할 때 아이를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 사랑하는 마음과 보호해야 할 책임감
교육활성화	부모교육, 시민교육, 아동교육, 아동인권교육, 아동존중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예절교육, 올바른훈육법교육, 인성교육, 인식개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되기전에 자식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시스템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부모, 아동 모두 도덕적인 내용의 학습이나 강의 중요 • 아동인권에 관한 정보제공 및 교육 • 아동 존중을 위한 부모님의 언어 및 행동 요령 교육 • 부모의 의식개선과 사회의 적절한 교육
사회문화개선	과도한 경쟁문화 개선, 다양한 기회보장, 사회구조개선, 사회적관심제고, 사회적신뢰강화, 아동에대한인식개선, 아동존중의식확립, 아동학대근절, 안전사회구현, 어른들의태도변화, 체벌근절, 캠페인과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열에 대한 인식개선 • 입시위주의 교육 정책의 변화 • 주변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주는 것 • 부모와 아이의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니라란것을 꾸준히 알려야함 • 아동을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사회의 인식개선 • 올바른 부모와 어른들이 되는것
아동복지활성화	복지서비스확충, 사각지대예방, 아동관련 프로그램, 아동심리상담, 아동정책강화, 양육과돌봄지원, 양육지원, 유관기관협력 강화, 전문기관(시설)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복지 확대 • 아이들이 쉽게 다가가서 마음을 알릴수 있는 상담사 양성 • 여러 기관 들의 협조 • 부모가 직접 아동을 양육 할 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 아이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 • 전문기관의 활성화
인격적관계형성	대화, 마음가짐, 믿음, 상호존중, 소통, 아동눈높이, 인권존중, 인내, 인정, 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기 • 우선은 가정에서의 소통 대화가 가장 중요 •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를 실천하고, 사랑 많이 해주기 • 먼저 이해하고 존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노력 • 아동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들어주려는 노력 •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태도 필요
정서적 지지강화	격려, 경청, 공감, 배려, 사랑, 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른들의 사랑과 관심, 배려심 • 포용하려는 노력 •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 사랑 관심 배려 소중한 존재로 보호 받아야함을 기억하는 것 • 믿음과 사랑이필요하다고 생각함
제도적권리보장강화	공권력강화, 권리침해저변강화, 기관의개입강화, 법강화, 아동인권보호, 사회안전망확대, 사회적모니터링, 사회제도보완, 신고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키우기 좋은나라 • 아이를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키지 않는 사회제도 더 마련 • 소외되고 학대 받는 아이들을 구제할수 있는 시스템이 빨리 마련 • 사회적 제도로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 • 안전사각지대가 없는 시스템구축 • 아동인권법 강화 및 사회 시스템 보완

주) 하위범주별 주요 응답내용은 일부 응답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하였음

Chapter IV | 결 론

1. 요 약

2. 제 언

제4장 결 론

1. 요약

- 본 조사는 진주지역의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기초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존중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사업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과 보호자의 인식격차 파악하기
 - 둘째, 부모양육태도 및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특성 파악하기
 - 셋째, 아동존중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 파악하기
 - 넷째,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존중사회 조성을 위한 제안사항 파악하기
- 조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아동과 보호자는 공통된 조사항목을 사용하였으나, 대상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하는 형태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 다만, 자료분석 및 해석에 있어서 몇가지 제한점이 있어 조사결과에 대한 집단간(아동-보호자) 통계적 차이검증은 실시하지 못했음
 - 조사대상 규모 및 응답자의 특성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의표집으로 조사가 추진되면서, 아동과 보호자의 표본 수에서 큰 차이를 보임
 - 집단간 동질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또한 아동들의 경우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협조를 받아 전수에 가까운 인원을 조사할 수 있었으나, 보호자의 경우 안내문을 통해 자율적인 조사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사실상 조사참여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음을 고려해야 함
 - 이는 조사에 참여한 보호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문제나 사회참여에 대한 적극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평소 인식도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됨. 이는 조사결과 해석시 고려해야 할 사항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하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대상별 접근방안 마련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음

1) 조사 응답자

- 조사응답자 중 아동은 진주시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4~6학년 학생 8,662명이며, 분석에 활용된 케이스는 7,963명임
- 조사응답자 중 보호자는 진주시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4~6학년 학생의 학부모 622명으로, 전체 케이스가 분석에 활용됨

2) 아동 연령기준에 대한 인식

-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즉 만18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인 만17세까지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아동의 연령기준에 대하여, 만 17세까지가 아동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아동은 2.7%(207명), 호자는 1.5%(9명)에 그침

3) 아동학대 인식

■ 아동학대 인식도

- 아동과 보호자 모두 성학대→신체학대→방임→정서학대 순의 인식도를 보임
 - 아동의 아동학대 유형별 인식도는 성학대(M=2.85), 신체학대(M=2.82), 방임(M=2.58), 정서학대(M=2.38) 순으로 나타남
 - 보호자의 아동학대 유형별 인식도는 성학대(M=2.96), 신체학대(M=2.94), 방임(M=2.82), 정서학대(M=2.60)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아동학대 인식도는 보호자가 2.81점으로 아동 2.63점 보다 0.18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유형별로 Gap을 보면, 방임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gap=0.25), 이어서 정서학대(gap=0.22), 신체학대(gap=0.13), 성학대(gap=0.11) 순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 인식도가 낮은 유형일수록 아동과 보호자의 인식 gap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인식

- 아동과 보호자 모두 신체학대 관련 개념 키워드가 다수를 차지하였음
- 아동들이 응답한 아동학대 개념 키워드에는 ‘때리기’(2,183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괴롭’(1,012건), ‘폭력’(670건), ‘싫은’(654건), ‘학대’(64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보호자들이 응답한 아동학대 개념 키워드에는 ‘신체’(164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정신’(131건), ‘학대’(88건), ‘폭력’(85건), ‘행위’(8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변에 학대피해아동 여부

- 주변에 아동학대를 경험한 친구나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을 때,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10명 중 0.3명(3.7%), 보호자는 10명 중 1.7명(17.8%)으로 나타남.
- 다만, 주변의 아동들이 아동학대를 경험하고 있는지 여부를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비교적 높게(아동: 43.6%, 보호자: 25.2%) 나타남. 즉 이웃이나 친구에 대한 관심도나 민감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진주지역 내 아동학대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

- 진주지역 내 아동학대 발생 빈도에 대해서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적은 반면(아동: 6.1%, 보호자: 0.6%), 응답자들의 다수는 가끔+자주+항상 일어나고 있다고 응답함(아동: 38.8%, 보호자 67.5%)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인식

-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아동학대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수를 차지함(아동: 45.6%, 보호자: 52.7%)
- 아동의 경우 주변의 어른(16.6%)이나 학교 선생님(13.6%)을 주요 의논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아동들이 어른이나 학교 선생님들에게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신뢰감을 주는 것이 중요함
- 아동학대 개입의 공공화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통한 신고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아동: 0.7%, 보호자: 6.1%)

■ 보호자들이 생각하는 아동학대 예방대책

- 보호자들이 응답한 801개의 응답결과를 주제어에 따라 범주를 분류한 결과 54개의 하위범주와 5개의 범주로 분류되었음.
- 보호자들은 크게 ‘가족기능강화’, ‘아동 존중과 이해’, ‘교육 활성화’, ‘지원체계 강화’, ‘제도적 개선과 강화’를 주요 대책으로 제안하였음

4) 부모님의 화에 관한 사항

■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를 내게 되는 주요 상황

- 아동과 보호자 모두 ‘자녀의 거짓말’이 화를 내는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함
- 그 외에도 말을 듣지 않거나, 형제들과 다투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스마트폰 사용 등의 상황에서 자녀에게 화를 내게 된다고 응답함

■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났을 때 행동 유형

-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났을 때 행동 유형으로, 아동과 보호자 모두 ‘화가난 이유를 설명한다’(아동:52.3%, 보호자:86.0%)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소리를 지른다’(아동:37.5%, 보호자:66.1%), ‘벌을 세운다’(아동:15.0%, 보호자:11.1%) 등으로 나타남

■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를 냈을 때 기분 상태

-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를 냈을 때, 화를 받는 아동과 화를 내는 보호자 모두 상처와 죄책감 등 부정적 감정이 다수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함
- 상처와 죄책감을 유발하지 않고 보다 긍정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5) 부부싸움에 관한 사항

■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 여부

-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서 아동은 10명 중 8.1명(81.0%), 보호자는 10명 중 8.4명(84.1%)이 적어도 1번 이상 있다고 응답하였음
- 즉, 아동들 10명 중 8명 이상은 부부싸움에 1번 이상 노출된 것으로 확인됨

■ 부부싸움 이후 자녀에게 화풀이 하듯 한 적이 있는지 여부

- 부부싸움 이후 자녀에게 화풀이 하듯 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서 아동은 10명 중 2.2명(22.2%), 보호자는 10명 중 5.1명(50.8%)이 적어도 1번 이상 있다고 응답하였음
-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것이 부부싸움 이후 화풀이의 하나로 인식할 경우, ‘화’의 효용성은 매우 떨어질 수 있으며, 관계 악화의 핵심 원인이 될 수 있음

■ 부부싸움 이후 자녀에게 화풀이 하듯 한 행동 유형

- 아동들이 응답한 1,489개의 응답결과를 주제어에 따라 범주를 분류한 결과 57개의 하위범주와 5개의 범주로 분류되었음.
- 보호자들이 응답한 290개의 응답결과를 주제어에 따라 범주를 분류한 결과 43개의 하위범주와 5개의 범주로 분류되었음.
- 아동과 보호자들의 응답결과에서 상위범주 5개는 동일하게 분류되었음. 즉, ‘거친언행’, ‘동조강요’, ‘무시와 비난’, ‘제한과 강요’, ‘지적과 잔소리’ 등을 주요 화풀이 행동 유형으로 지목하였음

■ 부부싸움 이후 자녀에게 화풀이 하였을 때 기분 상태

- 부모님이 부부싸움 이후 자녀에게 화풀이를 하였을 때, 아동은 짜증나고(287건), 속상하다(159건)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보호자는 미안하고(86건), 속상하다(33건)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6) 부모님이 자녀에게 평소 하는 말

■ 기분 좋은 말

- 아동들이 응답한 21,499개의 응답결과를 주제어에 따라 범주를 분류한 결과 103개의 하위범주와 5개의 범주로 분류되었음.
- 아동들은 크게 ‘하고 싶은 것 허용하는 말’, ‘원하는 것 제공하는 말’, ‘지지적 긍정 표현과 태도’,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 ‘역량인정과 칭찬’을 대표적인 기분 좋은 말로 인식하였음

■ 기본 좋지 않은 말

- 아동들이 응답한 16,419개의 응답결과를 주제어에 따라 범주를 분류한 결과 101개의 하위범주와 5개의 범주로 분류되었음.
- 아동들은 크게 ‘하고 싶은 것 제한하는 말’, ‘지적과 잔소리’, ‘부정 표현과 태도’, ‘걱정 유발’, ‘강요하는 말’을 대표적인 기본 좋지 않은 말로 인식하였음

7) 부모양육태도

- 부모양육태도와 관련하여 아동(2.17점)이 보호자(2.09점)보다 더 지지적 태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들이 부모양육태도를 지지적이라고 인식한 정도는 2.45점, 강요적이라고 인식한 정도는 1.11점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양육태도 전체에 대해서는 2.17점으로 나타남
- 보호자들이 부모양육태도를 지지적이라고 인식한 정도는 2.35점, 강요적이라고 인식한 정도는 1.17점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양육태도 전체에 대해서는 2.09점으로 나타남

8) 아동 존중 문화

■ 어른들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 아동들이 평소 부모님이나 어른들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에 관한 응답 결과를 키워드로 살펴보면, ‘말’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475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칭찬’(452건)이나 ‘공부’(371건)와 관련해서 격려를 해주실 때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아동들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들어주시는’(214건) 것 만으로도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으며, ‘사랑’(160건)과 ‘이해’(148건)를 받는다고 느끼는 것으로도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존중에 대한 이미지

- 아동존중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단어)를 살펴보면, 아동과 보호자 모두 동일하게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다수를 차지하였음
- 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사랑이 아동을 존중하는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으며, 이어서 배려와 이해와 믿음이 중요한 키워드로 나타남

■ 보호자들이 생각하는 아동존중사회 구현을 제안 사항

- 보호자들이 응답한 805개의 응답결과를 주제어에 따라 범주를 분류한 결과 62개의 하위범주와 7개의 범주로 분류되었음.
- 보호자들은 크게 ‘가족기능강화’, ‘사회문화개선’, ‘교육 활성화’, ‘아동복지 활성화’, ‘인격적 관계형성’, ‘정서적 지지강화’, ‘제도적 권리보장 강화’를 주요 대책으로 제안하였음

2. 시사점(주요 조사결과와 진주시 아동학대 주요통계의 비교)

■ 아동학대 발견율과 실제 아동학대 발생의 차이

- 아동학대 인식조사 결과에서 아동 응답자 8,662명 중 81%가 부모의 부부싸움을 목격했다고 응답하였고, 부모 응답자 622명 중 84.1%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또한 아동 응답자 중 22.2%는 부모의 부부싸움 후 자신에게 화풀이했다고 응답하였고, 부모 응답자 중 50.8%가 자녀에게 화풀이했다고 응답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진주시 아동학대 발견율(아동인구 1000명당 4.02명)보다 훨씬 많은 아동이 정서학대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줌
- 일상생활 속에서 어른들이 무심코 행하는 폭력 행동이나 강압적이고 불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간과할 경우, 아동학대는 멈추지 않고 대물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
 - 실제 아동학대 사례들을 살펴보면, 작은 폭력을 방관했을 때 폭력은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몸집을 불러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음
- 따라서 부모들이 아동들 앞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특히 부부싸움이나 화풀이와 같이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상황을 노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캠페인 추진이 필요함
- 또한 신고의무자를 비롯한 모든 어른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중 아동본인 신고율의 변화

- 전국적으로 아동본인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전국 기준 아동학대 통계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중 아동본인에 의한 신고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01년 1%→ 2021년 17%)
 - 진주시의 2021년 아동학대 통계에서도 아동본인에 의한 신고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2021년 기준 전체 신고유형의 19.4%)
 -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현황 통계자료를 보았을 때, 아동과 부모의 아동학대 인식격차에서 아동의 인식수준이 높을 것을 예상될 수 있음
- 그러나 이번에 실시한 2022년 아동학대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부모의 아동학대 인식도가 아동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아동과 부모 동일 인원 참여시 다른 결과 가능성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아동들이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서울교육청은 아동학대예방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유치원~고등학교까지 제공하였으며, 아동용·부모용·교사용·매뉴얼북까지 다양한 대상과 형태로 제공하였음
 - 서울교육청과 같은 노력은 부모와 교사에게는 아동권리 의무이행자로서의 역할을 인식시키고, 아동에게는 권리주체자로서 자기보호역량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기대됨
 - 실제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한 아동권리 관련 조사²⁾에서는 아동이 부모보다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경상남도 또는 진주시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노력을 하였다면, 2022 아동학대 인식조사는 아동학대 통계와 연관성 있는 결과를 보였을 수도 있음
 - 즉, 아동학대 인식격차는 단순히 수치로만 의미를 판단하기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따라서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과 보호자, 아동과 성인 모두 아동학대 인식과 관련하여 상향 평준화된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2) 국제아동인권센터(2019), 아동권리인식도조사 결과보고서; 아동권리보장원(2021), 아동권리 인식조사; 초록우산 아동연구소(2019), 한국 아동권리의 현주소-부모자녀 아동권리인식 비교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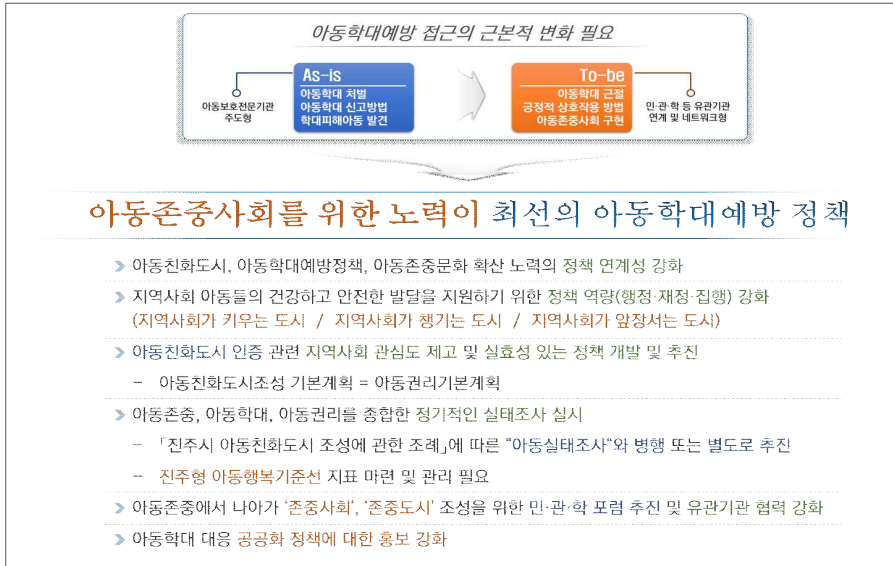
■ 아동 존중에 대한 전반적 인식 수준

- 진주시의 2021년 아동학대 신고현황을 보면, 중복학대 포함하여 정서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75.6%에 달하였음. 즉, 아동학대 유형 중 정서학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임
- 반면, 이번 조사결과 정서학대에 대한 인식도는 성학대, 신체학대, 방임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정서학대에 대한 민감도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번 조사에서 아동을 기분 좋게 하는 어른들의 말은 “잘했어”, “고마워”, “괜찮아” 등으로 대부분 비슷하고 단순했음
- 하지만 아동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은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이었음. “어리다고 무시”하고, “비교”하고, “차별”하고, “강요”하는 말들이었음
- 정서학대는 아동을 존중하지 않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아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노력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음
- 아동을 ‘어른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무언가를 잘해야만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될 필요가 있음
- 아동을 자신을 존중하는 어른과 함께 있을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
- 아동을 존중하는 어른들의 변화가 먼저 시작되어야 아이들도 어른을 존경하게 될 것임

3. 제언

- 이번 조사는 진주지역 내 초등학교 4~6학년에 재학중인 아동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아동학대 인식도 및 부모-자녀 관계, 아동존중에 대한 이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 끝으로 본 절에서는 주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성과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추진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함

1)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성



〈그림 4-1〉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성

• 첫째,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회적 접근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함

-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동학대예방정책은 아동권리보장에 대한 사회적 성숙도가 낮은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기 능해왔음
- 전면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각 지역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기 시작하였고,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조치결정, 사후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해왔음
- 다만, 아동학대 사례개입과 예방사업을 전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담하면서 공권력이 적절히 개입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예방사업 보다는 현장조사와 사례개입 등 사후조치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왔음
-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개입 강화 및 공공화 정책이 도입되면서, 아동학대의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등 초기개입은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례관리 및 예방사업 등에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상과 같이 아동학대예방 정책의 변화와 함께 이제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회적 접근의 근본적 변화 노력도 필요함
- 즉,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심으로 학대피해아동의 발견과 신고, 처벌 위주의 접근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지역의 민·관·학의 긴밀한 연계망을 통해 아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 아동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데 유관기관이 협력하는 방안과 구체적인 사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를 총괄 기획·운영하는 아동권리보장 전문기관이 되어야 할 것임
- 아동존중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최선의 아동학대예방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아동학대예방 접근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 **둘째, 아동친화도시, 아동학대예방정책, 아동존중사회 조성 노력의 정책 연계성 강화가 필요함**
 - 2022년 기준 전국의 83개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33개 지자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남. 경남지역에는 창원시, 김해시, 고성군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진주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계속 추진중임³⁾
 - 또한 2022년 본예산(일반회계) 기준 진주시의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약 1조 3,878억원이며, 이 중 아동보육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약 1,352억원 규모임(전체 예산의 약 9.7%)⁴⁾. 이 외에 아동친화 관련 예산을 모두 합하면 약 2,93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1.1%가 아동친화예산으로 투입되고 있음⁵⁾
 - 이상과 같이 진주시는 아동들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과 함께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 이러한 진주시의 정책적·행정적·재정적 노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부 정책들 간의 상호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아동친화도시, 아동학대예방정책과 사업, 아동존중사회 조성을 위한 전략방안과 추진계획들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조직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 <http://childfriendlycities.kr/index.html> (검색일: 2022.12.20.)

4) 진주시청 홈페이지 내 예산현황 <https://www.jinju.go.kr/00133/00443/00499.web?idx=75> (검색일: 2022.12.20.)

5) 진종삼(2022), 아동친화도시와 아동학대 인식개선의 관련성, 2022년 아동존중 정책토론회 자료집

• 셋째, 지역사회 아동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진주시에는 아동학대예방을 포함한 아동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있음
- 아동복지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민간기관 종사자는 물론 아동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존재함
- 지역사회 아동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 주체들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
- 민간기관 종사자와 더불어 공공부문의 공무원들까지 아동존중사회 조성을 위한 합의된 비전과 전략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적, 재정적 추진 역량과 집행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동친화, 아동존중에 대한 보다 성숙된 자세와 정책 추진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홍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넷째,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 지역사회 관심도 제고가 필요함

- 아동존중사회라는 추상적 개념이 구체화된 형태가 아동친화도시라고 볼 수 있음
- 즉,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해당 지역이 아동권리보장에 적극적이며, 아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척도가 될 수 있음
- 이런 측면에서 진주시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은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이상과 같은 아동친화도시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민들의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함께 병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하여 진주시에서는 그동안 시민참여 원탁토론회 개최, 아동친화도시 추진단 구성,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운영,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들 사업들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일반 시민들이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해 깊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아동존중, 아동학대, 아동권리를 종합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한**

- 이번에 추진한 진주지역 아동 및 보호자들의 아동학대 인식조사는 2022년 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립된 첫해에 추진된 매우 의미있는 조사이며, 진주시 관내 아동 및 보호자들의 전반적인 아동학대 인식과 태도를 살펴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이번 조사를 계기로 향후에는 아동학대 인식을 포함한 아동실태 전반에 대한 정기조사가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근거기반, 요구도 기반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변화하는 인식과 요구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함
- 현재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진주시에서는 아동권리 전반과 아동학대 인식에 대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진주형 아동행복기준선’ 지표를 마련하여, 아동들의 행복도를 점검 및 관리하면서, 조사결과를 아동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여섯째,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함**

- 이번 아동학대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주변에서 아동학대를 목격하게 된다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시청·주민센터에 신고할 것이라는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났음
-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강화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면서,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은 많이 높아진 것으로 이해됨
- 다만, 정부에서 2019년 5월 발표한 ‘혁신적 포용국가 아동정책’으로 시행된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는 아직 낮은 것으로 보여짐
-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공공에서 공권력이 직접 개입하고 대응하고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거주지 인근 가까운 곳에 있는 시청과 주민센터가 아동학대 발견 시 상담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민감성을 높이고, 모든 시민들이 함께 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쉽게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있음을 인지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아동학대예방사업 추진 방향성

1	대시민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정책역량 및 추진체계 강화	(As-is) 일회, 행사, 일방 (To-be) 상시, 일상, 참여 ②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추진계획 수립(기본/연차별) ③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캠페인 추진 및 평가체계 마련 ④ 제한적(아동학대) → 포괄적(아동존중) 캠페인 설계
2	부모교육 활성화 예방교육, 권리교육, 부모교육	(As-is) 강역형, 부모만 (To-be) 참여형, 아동과함께 ② 아동과 부모가 함께하는 참여형 교육P/G 개발 ③ 아보전, 가족센터, 상담센터 등 유관기관 협력 ④ 부모교육 지원조례 제정(경남, 창원, 김해)
3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이미지 변화 단, 아동학대의 경각심은 잃지 않기!!	(As-is) Negative (To-be) Positive ② 혐오, 기피, 부정, 거부 등 부정적 이미지 접근 탈피 ③ 아동친화형, 긍정형 예방사업 기획 및 추진 ex) 좋은말 챌린지, Respect 공모전, 사진전 등
4	지역 특화형 예방사업 추진	(As-is) 일반적 (To-be) 특화형, 맞춤형 ② (지역환경적 특성 고려) 시가지역, 읍면지역 ③ 진주형 특화 아동학대 예방사업 개발

〈그림 4-2〉 아동학대예방사업 추진 방향성

• 첫째, 대시민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추진체계 강화

- 지금까지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은 개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차원에서 일회성, 행사위주, 일방적 전달의 형태로 추진되어 왔음
- 그간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노력들 역시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활동들이었으나, 캠페인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캠페인 추진전략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캠페인 추진전략의 핵심 키워드로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두고 다음과 같이 캠페인 추진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추진계획 수립(5개년 기본계획/연차별 실행계획)
 - * 아동학대예방 효과성 평가체계 마련
 - * '아동학대'라는 제한된 주제를 넘어 '아동존중'이라는 포괄적 주제의 캠페인 콘텐츠 개발

• 둘째, 부모교육, 아동교육 활성화

- 부모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음
- 부모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 그간 강의형으로 성인들만 참여하는 부모교육의 형식을 탈피하여 아동과 함께 하는 참여형 부모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 현재 아동양육과 관련된 부모교육은 다양한 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가족센터, 상담센터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유관기관들이 함께 연대하여 공통의 부모교육 콘텐츠를 시리즈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 이번 조사결과와 같은 다양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현실감 있는 사례중심의 교육 추진이 필요함. 특히 아동과 보호자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하는 관계 형성, 상처가 되지 않는 훈육법, 긍정양육 기술 등 일상에서 적용도가 높은 교육내용 구성 필요함
 - *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부모교육 추진을 위하여 부모교육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함

• 셋째,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이미지 변화

- 그간 아동학대라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근절을 목표로 아동학대예방사업이 부정적(Negative) 이미지로 추진된 경향이 있으나, 아동학대의 근절 노력은 지속함과 더불어 보다 긍정적(Positive) 이미지로 예방사업을 추진할 방안 고려 필요함
-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이나 예방사업에 활용되는 콘텐츠들이 혐오, 기피, 부정, 거부 등 부정적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아동존중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 형태의 아동학대예방사업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아동친화형, 긍정형 예방사업을 기획 및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예컨대, 좋은말 챌린지, 아동존중 공모전, 존중문화 공모전, 사진전 등
- 다만,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는 않아야 할 것임

• 넷째, 지역 특화형 예방사업 개발 및 추진

- 진주지역은 대표적인 도농복합지역임
- 인구구성 비율은 시가지역(동지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범위가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 시가지역 아동을 위한 예방사업, 농촌지역 아동을 위한 예방사업 등

■ 참고문헌

- 국제아동인권센터(2019), 아동권리인식도조사 결과보고서
- 보건복지부(각 연도별), 아동학대 주요통계
- 아동권리보장원(2021), 아동권리 인식조사
- 진종삼(2022), 아동친화도시와 아동학대 인식개선의 관련성, 2022년 아동존중 정책토론회 자료집
-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아동학대현황자료)
- 초록우산 아동연구소(2019), 한국 아동권리의 현주소-부모자녀 아동권리인식 비교 보고서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2016). 초록우산 300인 원탁토론 “아동학대예방” 사전조사 문 초안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2020). 한국 아동권리의 현주소-동상이몽, 부모자녀 아동권리인식 비교
- 한국리서치(2022). 여론속의 여론.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제170-1호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 <http://childfriendlycities.kr/index.html>
- 진주시청 홈페이지 내 예산현황
<https://www.jinju.go.kr/00133/00443/00499.web?idx=75>
- 한겨레, 2022.06.27. 보도자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8589.html

부록

1. 아동용 설문지
2. 보호자용 설문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ID				
----	--	--	--	--

아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기초 인식조사 [아동용]

안녕하십니까?

진주시에서는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 아동학대가 근절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기초 인식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및 아동존중에 관한 종합적인 인식과 격차를 파악하여 아동학대 예방활동 및 아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주시는 설문에는 맞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신분 및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설문조사에 솔직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9월

기관로고1	기관로고2	기관로고3	기관로고4
-------	-------	-------	-------

■ 문의처 :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Tel: 055-000-0000, e-mail: @)

□ 응답자 일반적 사항

성 별	① 여성 ② 남성	연 령	_____세 ※만 나이가 아닌 현재 나이를 기입
학년	초등학교 ()학년	현재 살고있는 곳	_____읍·면·동 ※살고있는 곳 읍면동만 적어주세요
교육이수 여부	※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은적이 있나요?		① 있음 ② 없음
	※ 아동권리교육(아동인권교육)을 받은적이 있나요?		① 있음 ② 없음

□ 아동학대 인식

1. 다음은 아동학대의 정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사항에 체크(v) 해주세요.

문항	학대가 아니다	경미한 학대이다	심각한 학대이다
1 아이를 칼이나 위험한 도구로 위협하는 것			
2 아이의 팔이나 다리를 묶는 것			
3 아이를 밀폐된 공간(방 또는 닫힌 공간)에 가두는 것			
4 물건을 아이에게 던지거나 부수는 것			
5 아이를 밀쳐서 신체의 일부를 벽이나 물체에 부딪치게 하는 것			
6 아이의 얼굴, 머리, 뺨 등을 때리는 것			
7 아이를 꼬집거나 할퀴기, 깨무는 행위를 하는 것			
8 아이를 손, 발 또는 도구(막대기, 빗자루 등)를 이용하여 때리는 것			
9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 하는 것			
10 아이를 내쫓거나 집 밖에 세워두는 것			
11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			
12 아이를 언어적으로 위협하는 것(욕설, 헐박 등)			
13 아이에게 비현실적인(지나친) 요구나 강요를 하는 것			
14 정해진 규칙없이 아이의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15 아이의 동의없이 학원, 방과후 수업의 참여를 강요하는 것			
16 공개된 장소에서 아이를 혼욕하는 것			
17 아이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			
18 부정적인 감정을 아이에게 표현하여 아이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19 아이에게 강제로 몸을 만져달라고 말하는 것			
20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몸을 만지는 것			
21 아이의 옷을 벗겨 몸을 보려고 하는 것			
22 아이에게 억지로 입을 맞추려는 것			
23 어른들이 옷을 벗고 소중한 곳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			
24 아이의 벗은 몸을 촬영하여 SNS(인스타, 틱톡 등)에 사진을 올리는 것			
25 아이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			
26 더럽고 위험한 상황을 아이에게 노출하거나 방치하는 것			
27 아이가 몸이 아프다고 해도 내버려두거나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것			
28 아이를 교육기관(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것			
29 아이가 위험한 것(도구, 유해사이트)을 가지고 놀아도 상관하지 않는 것			
30 아이가 잘못된 행동(나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해도 모른체 하는 것			
31 늦은 밤까지 아이 혼자 집에 있게 하는 것			
32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준비물 등)이나 용돈을 적절히 제공해주지 않는 것			

2. 다음은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묻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생각하시는데로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 1) 아동의 연령은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나요? ()세 까지
 2) 아동학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3) 주변에 아동학대를 경험한 친구나 다른 사람이 있나요? ① 있음 ② 없음 ③ 모르겠음
4) 우리 지역(진주시)에서 아동학대는 얼마나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하나요? ① 전혀 발생하지 않음 ② 거의 발생하지 않음 ③ 자주(빈번히, 흔히) 발생하고 있음 ④ 매우 자주(빈번히, 흔히) 발생하고 있음
5) 주변에서 아동학대를 보게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은가요? ①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② 시청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할 것이다 ③ 학교 선생님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것이다 ⑤ 부모님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⑥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 ⑦ 모르겠다 ⑧ 기타()

3. 다음은 부모님과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대로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부모님이 화가나셨을 때
1) 내가 무엇을(어떻게) 할 때 부모님이 가장 크게 화를 내시나요?
2) 부모님은 나에게 화가나셨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가장 많이 하시는 것 2가지만 선택해주세요) ① 소리를 지른다 ② 욕을 한다 ③ 물건을 던진다 ④ 손이나 발로 때린다 ⑤ 몽둥이, 막대기로 때린다 ⑥ 벌을 세운다 ⑦ 베란다, 집밖으로 내 보낸다 ⑧ 무엇 때문에 화가났는지 설명한다 ⑨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⑩ 기타()
3) 부모님이 위에서 체크한 것을 나에게 하셨을 때, 나는 기분은 어땠나요?
*부모님이 다투셨을 때
4) 부모님이 다투신 것을 본 적이 있나요? ① 자주 봤다 ② 가끔 봤다 ③ 1번이상 봤다 ④ 전혀 본적이 없다 (①,②,③ 응답한 경우: 아래 질문에 계속 응답해주세요) (④ 응답한 경우: 4번으로 넘어가세요)
5) 부모님이 다투고 난 뒤 나에게 화풀이 하듯 대한 적이 있나요? ① 자주 그런다 ② 가끔 그런다 ③ 1번이상 그랬다 ④ 전혀 그런적 없다 (①,②,③ 응답한 경우: 아래 질문에 계속 응답해주세요) (④ 응답한 경우: 4번으로 넘어가세요)
6) 부모님이 다투고 난 뒤 나에게 화풀이를 어떻게 하셨나요?
7) 부모님이 다투고 난 뒤 나에게 화풀이를 하셨을 때, 나는 기분은 어땠나요?

4. 다음은 부모님이 평소하시는 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생각하는대로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1) 부모님이 평소 하시는 말 중에서 <u>가장 기분 좋은</u> 말은 무엇인가요?(3가지만 적어주세요)
2) 부모님이 평소 하시는 말 중에서 <u>가장 기분 좋지 않은</u> 말은 무엇인가요?(3가지만 적어주세요)

5. 다음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 (v)표 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2.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3.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				
4.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5.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				
6.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저러라 하신다				
7.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부모님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신다				
8. 부모님은 모든 것에 대해 “안 돼”라고 하신다				

6. 다음은 아동존중에 대한 이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생각하는대로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1) 나는 평소 부모님이나 어른들로부터 어떤 때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나요?			
2) “아동존중” 하면 떠오르는 단어 3가지만 적어주세요(3가지만 적어주세요) (아동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33%; height: 20px;"></td> <td style="width: 33%; height: 20px;"></td> <td style="width: 33%; height: 20px;"></td> </tr> </table>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ID				
----	--	--	--	--

아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기초 인식조사 [부모님 · 보호자용]

안녕하십니까?

진주시에서는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 아동학대가 근절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기초 인식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및 아동존중에 관한 종합적인 인식과 격차를 파악하여 아동학대 예방활동 및 아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주시는 설문에는 맞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신분 및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설문조사에 솔직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9월

기관로그1	기관로그2	기관로그3	기관로그4
-------	-------	-------	-------

■ 문의처 :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Tel: 055-000-0000, e-mail: @)

□ 응답자 일반적 사항

응답자 성 별		① 여성 ② 남성				응답자 연 령	_____세 ※만 나이가 아닌 현재 나이를 기입
자녀 관련 사항	자취	명				현재 살고있는 곳	_____읍 · 면 · 동 ※살고있는 곳 읍면동만 적어주세요
	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성별						
	학년						
교육이수 여부		※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은적이 있나요?				① 있음 ② 없음	
		※ 아동권리교육(아동인권교육)을 받은적이 있 나요?				① 있음 ② 없음	
		※ 부모교육(자녀양육교육)을 받은적이 있나요?				① 있음 ② 없음	

□ 아동학대 인식

1. 다음은 아동학대의 정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사항에 체크(v) 해주세요.

문항	학대가 아니다	경미한 학대이다	심각한 학대이다
1 아이를 칼이나 위험한 도구로 위협하는 것			
2 아이의 팔이나 다리를 묶는 것			
3 아이를 밀폐된 공간(방 또는 닫힌 공간)에 가두는 것			
4 물건을 아이에게 던지거나 부수는 것			
5 아이를 밀쳐서 신체의 일부를 벽이나 물체에 부딪치게 하는 것			
6 아이의 얼굴, 머리, 뺨 등을 때리는 것			
7 아이를 꼬집거나 할퀴기, 깨무는 행위를 하는 것			
8 아이를 손, 발 또는 도구(막대기, 빗자루 등)를 이용하여 때리는 것			
9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 하는 것			
10 아이를 내쫓거나 집 밖에 세워두는 것			
11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			
12 아이를 언어적으로 위협하는 것(욕설, 헐박 등)			
13 아이에게 비현실적인(지나친) 요구나 강요를 하는 것			
14 정해진 규칙없이 아이의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15 아이의 동의없이 학원, 방과후 수업의 참여를 강요하는 것			
16 공개된 장소에서 아이를 혼욕하는 것			
17 아이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			
18 부정적인 감정을 아이에게 표현하여 아이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19 아이에게 강제로 몸을 만져달라고 말하는 것			
20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몸을 만지는 것			
21 아이의 옷을 벗겨 몸을 보려고 하는 것			
22 아이에게 억지로 입을 맞추려는 것			
23 어른들이 옷을 벗고 소중한 곳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			
24 아이의 벗은 몸을 촬영하여 SNS(인스타, 틱톡 등)에 사진을 올리는 것			
25 아이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			
26 더럽고 위험한 상황을 아이에게 노출하거나 방치하는 것			
27 아이가 몸이 아프다고 해도 내버려두거나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것			
28 아이를 교육기관(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것			
29 아이가 위험한 것(도구, 유해사이트)을 가지고 놀아도 상관하지 않는 것			
30 아이가 잘못된 행동(나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해도 모른체 하는 것			
31 늦은 밤까지 아이 혼자 집에 있게 하는 것			
32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준비물 등)이나 용돈을 적절히 제공해주지 않는 것			

2. 다음은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묻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생각하시는데로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1) 아동의 연령은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나요? ()세 까지
2) 아동학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3) 주변에 아동학대를 경험한 친구나 다른 사람이 있나요? ① 있음 ② 없음 ③ 모르겠음
4) 우리 지역(진주시)에서 아동학대는 얼마나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하나요? ① 전혀 발생하지 않음 ② 거의 발생하지 않음 ③ 자주(빈번히, 흔히) 발생하고 있음 ④ 매우 자주(빈번히, 흔히) 발생하고 있음
5) 주변에서 아동학대를 보게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은가요? ①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② 시청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할 것이다 ③ 학교 선생님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것이다 ⑤ 부모님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⑥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 ⑦ 모르겠다 ⑧ 기타()

3. 다음은 부모님과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대로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부모님이 화가나셨을 때
1) 자녀가 무엇을(어떻게) 할 때 가장 크게 화를 내시나요?
2) 자녀에게 화가나셨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가장 많이 하시는 것 2가지만 선택해주세요) ① 소리를 지른다 ② 욕을 한다 ③ 물건을 던진다 ④ 손이나 발로 때린다 ⑤ 몽둥이, 막대기로 때린다 ⑥ 벌을 세운다 ⑦ 배란다, 집밖으로 내 보낸다 ⑧ 무엇 때문에 화가났는지 설명한다 ⑨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⑩ 기타()
3) 위에서 체크한 것을 자녀에게 하셨을 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부모님이 다투셨을 때
4) 자녀(아동)이 보는 앞에서(있는 곳에서) 배우자와 다투신 적이 있나요? ① 자주 그런다 ② 가끔 그런다 ③ 1번이상 그래봤다 ④ 전혀 그런적 없다 (①,②,③ 응답한 경우: 아래 질문 계속 응답해주세요) (④ 응답한 경우: 4번으로 넘어가세요)
5) 부모님이 다투고 난 뒤 나에게 화풀이 하듯 대한 적이 있나요? ① 자주 그런다 ② 가끔 그런다 ③ 1번이상 그랬다 ④ 전혀 그런적 없다 (①,②,③ 응답한 경우: 아래 질문 계속 응답해주세요) (④ 응답한 경우: 4번으로 넘어가세요)
6)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7) 부부싸움 이후 자녀에게 화풀이를 하셨을 때, 기분은 어땠나요?

4. 다음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 (v)표 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자녀를 믿는다				
2. 나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3. 나는 자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준다.				
4. 나는 자녀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5. 나는 자녀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한다.				
6. 나는 자녀에게 이래라저래라 한다.				
7.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부모(보호자)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8. 모든 것에 대해 “안 돼”라고 한다				

5. 다음은 아동존중에 대한 이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생각하는대로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1) “아동존중” 하면 떠오르는 단어 또는 이미지 3가지만 적어주세요(3가지만 적어주세요) (아동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6.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는대로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1)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끝까지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